

07

예술가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4
JULY
vol.271


Cover Story

행복을 선사하는 무대위의 나는새 금난새

반갑습니다 클라리네티스트 정우영

건축으로 보는 부산, 부산 문화 기술이 만드는 건축의 새로운 풍경

부록 프로그램 가이드

 부산문화회관
culture.busan.go.kr

음악감독 금난새와 함께하는 첫번째 부산 실내악음악축제

BUSAN CHAMBER MUSIC 1st FESTIVAL

Soloists

Evgeny Izotov	Pianist
Yangji Baek	Clarinetist
Youngwook Yoo	Pianist
Dmitry Lokalenkov	Trumpeter

Gum Nanse
금난새
Artistic Director

Euro-Asian Ensemble
Amphion Quartet
Busan Sinfonietta
Camerata S
Busan Festival Chamber Orchestra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2014 | 8 | 28 pm 7:30 29 pm 7:30 30 pm 3:00 31 pm 3:00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산광역시

주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부산문화회관 EURO-ASIAN CORPORATION 후원 복권위원회

티켓가격 R 20,000원 S 1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할인)

티켓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부산은행 전 지점 인터파크 ticket.interpark.com 1544-1555

"이사업은 복권기금 문화나눔의 일환으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하여 전국의 문예회관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난새와 함께하는 Busan Chamber Music Festival

뜨거웠던 여름의 마지막을 아름다운 실내악 선율과 함께...

〈제주 뮤직아일 페스티벌〉을 10년 동안 성공적으로 이끌어 오면서 실내악 음악 알리기에 앞장서 온 지휘자 금난새가 이번에는 부산에서 실내악 페스티벌을 펼칩니다.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부산문화회관과 유라시안 필하모닉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페스티벌에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Amphion String Quartet, 28년 전통을 자랑하는 부산신포니에타, 유라시안 앙상블과 부산 경남지역 연주자들로 구성된 Camerata S, 러시아 출신의 피아니스트 Evgeny Izotov(에브게니 이조토프), 피아니스트 유영욱 등 국내외 실력과 연주자들이 참여합니다. 지휘자 금난새와 함께 실내악 음악의 아름다운 세계로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음악감독 · 지휘 · 해설 금난새

8. 28 (목) 오후 7:30

Grieg String Quartet No. 1 in g minor Op. 27
 Wolf Italian Serenade in G Major
 Mendelssohn String Octet in E^b Major Op.20 중

연주 : 엠피온 콰르텟, 유라시안 앙상블

8. 29 (금) 오후 7:30

Schumann Piano Quintet
 Weber Clarinet Concertino in Eb Major Op.26
 Britten Simple Symphony

연주 : 피아니스트 에브게니 이조토프, 엠피온 콰르텟, 백양지, 부산신포니에타

8. 30(토) 오후 3:00

Dvorak String Quartet (American)
 Vivaldi Summer (Four Seasons)
 Elgar Introduction and Allegro

연주 : 엠피온 콰르텟, Camerata S, Katherine Hyun

8. 31(일) 오후 3:00 <러시아 음악의 날>

Arensky on a Theme by Tchaikovsky a minor Op.35
 Shostakovich Concerto no.1 for Piano, Trumpet and String Orchestra Op.35
 Tchaikovsky Serenade for String Orchestra in C Major Op.48

연주 : Busan Festival Chamber Orchestra

협연 : 피아니스트 유영욱, 트럼펫 드미트리 로카렌코프



부산신포니에타 Busan Sinfonietta

김영희 교수를 리더로 1986년 창단된 부산신포니에타는 연주양식과 전통성이 확립된 부산의 독보적인 연주단체로 당시 거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국내(특히 부산) 실내악운동을 정착시키고 활성화하는데 적지 않은 자극제가 되었고, 현재 부산에서 많은 실내악단이 활동하는 음악적 토양이 이루어지는데 실질적인 공헌을 하였다. 20여명의 탁월한 현악기주자들이 빚어내는 맑고 풍부한 음색과 뛰어난 앙상블로 긴밀한 입체감을 이루며, 실내악의 깊은 내면 세계를 추구하고 있다.



엠피온 스트링 콰르텟 Amphion String Quartet

2009년 처음 결성된 이들은 Plowman Chamber Music과 Hugo Kauder String Quartet Competition에서 우수한 실력과 연주자들이다. 2012-2013 시즌에는 워싱턴DC의 Phillips Collection, TCAN 예술센터, Caramoor Center, 노스캐롤라이나 투어 뿐 아니라 카네기홀(Carnegie Hall)에서의 데뷔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바이올리니스트 Kate Hyun, David Southorn / 비올리니스트 Wei Yang Andy Lin / 첼리스트 Mihai Marica)



피아노 에브게니 이조토프 Evgeny Izotov

이조토프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과 프랑스 에콜노르말 최고연주자과정을 수석 졸업했다. 일본 Takasakki 국제 콩쿠르 특별상, 이탈리아 Como 국제 콩쿠르 1등상, 루마니아 George Enescu 국제 콩쿠르 2등상, 포르투갈 Cernancelhe 국제 콩쿠르, 프랑스 Mee sur Seine 국제 콩쿠르 1등 등 세계 유수의 콩쿠르를 석권했으며, 2011년 폴란드 문화부 장관으로부터 쇼팽 연주 감사패를 수여 받기도 했다. 현재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 교수, 신라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클라리넷 백양지 Yangji Baek

부산예술고등학교 졸업 후 독일 자브뤼켄 국립 음악대학에 입학, 전문연주자과정(Diplom), 최고연주자과정을 최우수성적으로 졸업했다. 자르르르록스 오케스트라, 훔부르크 챔버, 룩셈부르크 챔버의 수석으로 활동했으며, 독일 오스나부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원을 역임했다. Internationales Oleg Kagan Musikfest Kreuth, Tegernseer Tal, Telavi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Domleschger chamber music festival, Swiss 등의 초청연주를 통해 세계무대에 실력을 알렸다. 현재는 국내에서 현대음악앙상블 21AND 멤버,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단원으로 활동 중이다.



트럼펫 드미트리 로카렌코프 Dmitry Lokalenkov

러시아 출신의 트럼펫 연주자 드미트리 로카렌코프는 그네신대학 졸업 후, 모스크바 주립 콘서바토리에서 불쇼이 극장 수석주자를 역임하였다. 그 후 1989년부터 6년동안 말리 주립 오케스트라의 수석을 역임하였고, 1994년에는 불쇼이 극장의 수석으로 활동하였다. 1994년부터 2000년까지 모스크바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수석 연주자로 활동하면서 러시아, 일본, 중동, 미국,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투어공연을 하였다. 1997년 모스크바 국제 트럼펫 콩쿠르 3위에 입상하였으며 현재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트럼펫 연주자로 활동 중이다.



피아노 유영욱 Youngwook Yoo

유영욱은 10세 때 자신의 작품 발표회를 가질 정도로 작곡에도 놀라운 재능을 보이며 언론의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줄리어드 예비학교에 입학한 그는 스페인 산탄데르 국제 피아노콩쿠르에서 만장일치로 대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된다. 독일 본 국제 베토벤피아노콩쿠르에서 우승하면서, "베토벤이 피아노를 친다면 유영욱처럼 연주했을 것이다" 라는 심사위원의 평가 "베토벤의 환생"이란 현지언론의 리뷰는 피아니스트로서의 유영욱을 다시 한번 전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연세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The 32nd Eulsukdo Masterpiece Concert

복권기금
문화예술
www.lotteryarts.or.kr

Program

임지훈 오케스트라를 위한 "애가"(哀歌)
쇼팽 피아노 협주곡 제1번 E단조 작품 11
슈만 교향곡 제4번 D단조 작품 120

Conductor
Oh Choong Keun

Piano
Beatrice Nara
Stelzmuller

Busan Symphony Orchestra

2014. **7.10** (목) 오후 8시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예술감독 | 김원명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을숙도문화회관 주관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후원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부산원음방송, 팝부산, 흥티아트센터, 경성대학교, 고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산대학교, 신라대학교, 인제대학교, 한진중공업
입장료 | 2천원 예매 | 을숙도문화회관 홈페이지, 부산은행 전 지점 문의 | 051)220-5812
무대감독 | 전광수 조명감독 | 박병주 음향감독 | 이광섭

※ 을숙도명품콘서트는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사업비의 일부를 복권기금으로 지원받았습니다.

The 33th Eulsukdo Masterpiece Concert

부산기금
문화예술
www.lotteryarts.or.kr



Puccini OPERA
TURANDOT

2014. 7. 25(금) 오후 7시 30분 / 26(토) 오후 5시 |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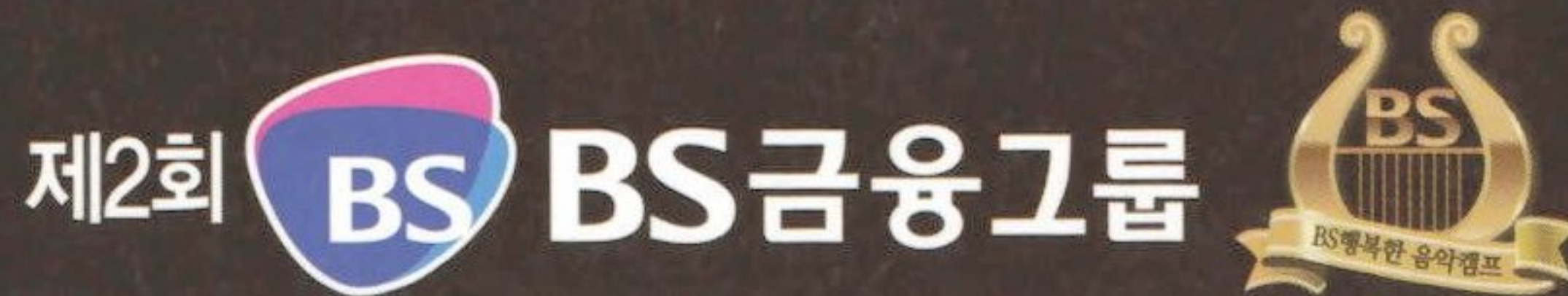
입장료 1층 20,000원 2층 10,000원 | 예매 을숙도 문화회관 홈페이지, 부산은행 전지점 | 문의 051)220-5813

※ 본 공연은 2014년 부산문화재단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의 일부지원으로 시행됩니다.
※ 본 공연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사업비의 일부를 복권기금으로 지원받았습니다.

예술감독 | 김원명 총 제작 | 김일택 총괄기획 | 공영식 연출 | 김성경 지휘 | 김봉미 음악감독 | 이소영 합창지휘 | 이성훈
투란도트 | 이화영, 김라희 칼라프 | 박기천, 이정원 류 | 허미경, 김경희 T.I.F 심포니 오케스트라, 부산오페라합창단, 센텀어린이합창단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산일보, 을숙도문화회관 주관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T.I.F 심포니 오케스트라
후원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경성대학교, 고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산대학교, 신라대학교, 인제대학교

나눔으로 함께하는 행복한 금융!



행복한 음악캠프 수료축하 연주회

BS금융그룹이 주최하고 국내외 유명 교수진의 재능기부와 참가비 전액 무료로 진행된 5박 6일간의 음악캠프를 마치고 전국의 젊은 차세대 음악도들이 음악을 향한 끝없는 꿈과 열정을 선보이고자 수료연주회를 개최합니다. 젊은 음악인의 열정 가득한 무대에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4년 8월 2일(토) / 오후 4시 /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지휘 / 오충근
협연 / 김영미(플루트, 계명대학교 교수), 박라나(하프,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연주 / BS뮤직캠프오케스트라(BMCO)
티켓 / 입장권은 7월 1일부터 BS부산은행조은극장 홈페이지 무료배부

연주곡목 / R. 슈트라우스, 교향시 돈 후안 작품20
 / 모짜르트, 플루트와 하프를 위한 협주곡 C장조 작품299
 / 최성환, 아리랑
 / 무소르그스키, 전람회의 그림 外 수곡

예술총감독 오충근
 서울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
 미국 보스턴 콘서바토리 졸업
 현재 고신대학교 교수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예술감독

문의 BS금융그룹 부산은행 051)620-3844

교수진

바이올린 김영목
 경희대학교, 비인국립음대,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음대 졸업
 경희대 음대 학장 역임
 현재 경희대 평화의전당 관장,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첼로 송하승
 서울대학교, 비인국립음대 수석 졸업
 오스트리아 문화부장관상 수상 및 정부장학생
 현재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클라리넷 이임수
 서울대학교, 미국 USC 음악대학원 졸업
 서울시립교향악단 제2수석 역임
 현재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베이스 트롬본 김우석
 미국 맨하탄 음대 졸업, 뉴욕주립대 박사과정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서울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현재 서경대학교 교수

바이올린 김영희
 이화여자대학교, 원현국립음대 졸업
 부산대학교 교수 역임
 현재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예술감독 및 리더

베이스 김창호
 서울대학교, 비인국립음대 수석 졸업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역임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이화여대 외래교수, 서울오케스트라 수석

바순 광정선
 서울대학교, 슈트트가르트 국립음대 대학원 졸업
 현재 서울대학교, 선화예고 외래교수
 서울시립교향악단 수석, 금호챔버뮤직 소사이어티 단원

튜바 김남호
 프랑스 콘서바토리 수석 졸업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양대 외래교수
 아카데미아 브라스 멤버

바이올린 백재진
 서울대학교, 비인국립음대 졸업
 현재 동덕대학교 교수
 비르투오조 앙상블 리더

베이스 박희철
 부산대학교, 불기리아 국립 소피아 아카데미 졸업
 현재 부산대학교 외래교수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수석

바순 최영진
 한국예술종합학교, 하노버 국립음대 대학원 졸업
 노르웨이 트롬쇠임심포니오케스트라 수석 역임
 현재 일본 도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수석

타악기 박광서
 오스트리아 비인 국립음대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원장 역임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서울국제타악기페스티벌 음악감독

바이올린 안고은
 서울대 재학중 도미,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 원현국립음대 최고 연주자과정 졸업
 부산시립교향악단 악장 역임
 현재 경희대학교 교수

플루트 김희미
 서울대학교, 프랑스 예클노르말 음악원 최고연주자 과정 수석 졸업
 KBS교향악단 수석 역임
 현재 계명대학교 교수

호른 알렉산더 아킴오프 (Alexander Akimov)
 벨라루스 국립음악원 졸업
 레닌그라드 국립음악원 졸업
 현재 KBS교향악단 부수석

타악기 김정우
 동덕대학교, 독일 로스톡음대 최고연주자 과정 졸업
 현재 동의대학교, 고신대학교 외래교수
 울산시립교향악단 수석,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수석

바이올린 양경아
 미국 맨하탄 음대 및 대학원, 메릴랜드 대학교(박사) 졸업
 2013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악장
 현재 동아대학교 외래교수

플루트 안영주
 미국 줄리아드(학사, 석사), 뉴욕주립대학교(박사) 졸업
 현재 연세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외래교수
 KBS교향악단 수석

호른 준지 다케무라 (Takemura Junji)
 일본 쿨리타치 음악대학 졸업
 도쿄시립필하모닉오케스트라 수석, 아이치대학 교수 역임
 현재 대구시립교향악단 수석

하프 박라나
 미국 줄리아드 음악원(학사, 석사, 박사) 졸업
 현재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외래교수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비올라 최승룡
 서울대학교, 미국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 졸업
 서울시향, KBS교향악단 수석 역임, 한세대 교수 역임
 현재 서울이무지치행버오케스트라 음악감독 및 상임지휘자

오보에 이승희
 서울대학교, 네덜란드 로데르담 콘서바토리 졸업
 서울시향, KBS교향악단 수석 역임, 한세대 교수 역임
 현재 서울예술종합학교, 안양예고 외래교수

트럼펫 드미트리 로카렌코프 (Dmitry Lokalenkov)
 그네신 대학, 모스크바 콘서바토리 졸업
 모스크바심포니오케스트라 수석 역임
 현재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대금 전지현
 부산대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 수료
 현재 KBS국악관현악단 단원

비올라 박주연
 부산대학교 졸업, 영남대학교 대학원 수료
 현재 울산대학교 외래교수
 울산시립교향악단 수석,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수석

오보에 이윤정
 서울대학교, 미국 줄리아드(석사) 졸업
 수원시립교향악단 수석 역임
 현재 경희대학교 교수, 금호챔버뮤직소사이어티 멤버

트럼펫 김완선
 한국예술종합학교, 대트롬본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외래교수
 성남시립교향악단 수석

해금 전지인
 부산대학교 졸업
 제32차 OCA총회 인천(사)간계임 흥보 연주(말리핀)
 태국 아시아 음악축제, 천진 국제문화예술제 참가

첼로 이재규
 연세대학교, 미국 메네스 음악대학원 졸업
 국립교향악단, KBS교향악단, 연세대 외래교수 역임
 현재 서울오케스트라 수석

클라리넷 김현곤
 서울대학교, 원현국립음대 졸업
 KBS교향악단 수석, 서울대학교 교수 역임
 현재 체리트리체임버앙상블, 서울클라리넷앙상블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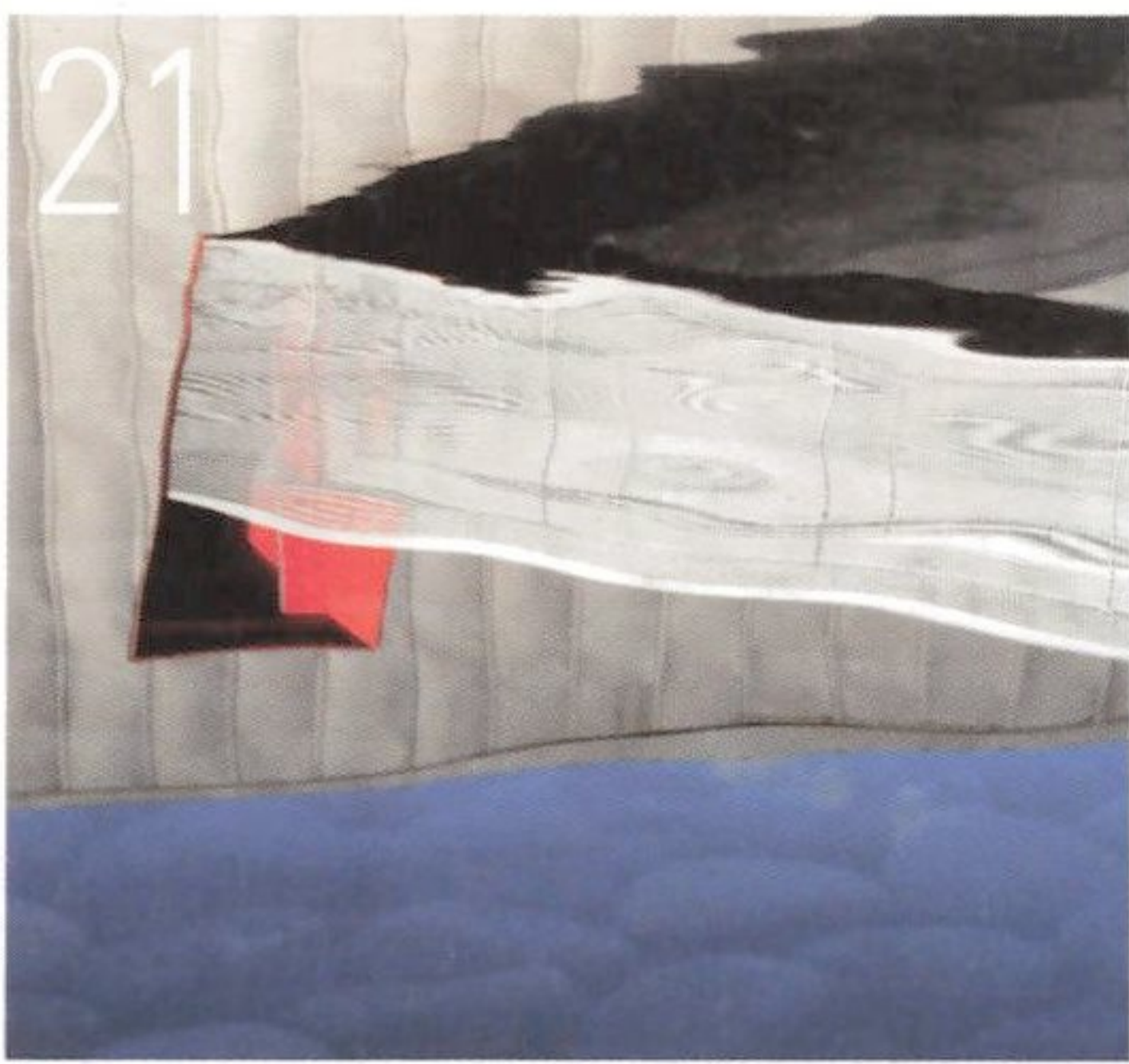
트롬본 이정생
 서울대학교, 미국 맨하탄 음대 졸업
 서울시향, KBS교향악단 수석 역임
 현재 서울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외래교수

부지휘자 김상철
 부산대학교, 고신대학교 대학원(박사) 지휘 졸업
 현재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부지휘자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

Contents

·
·

2014
JULY
vol.271



08 커버스토리
행복을 선사하는 무대 위의 나는새 금난새

Cultural Story

- 10 공연 일정
- 12 반갑습니다
새로운 음악인생 준비하는 클라리네티스트 정우영
- 14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푸젠성으로 떠난 객가 투러우 여행_허정애
- 18 불멸의 거장-셰익스피어
인간성의 창조자 셰익스피어①_송홍한
- 20 건축으로 보는 부산, 부산 문화
기술이 만드는 건축의 새로운 풍경_강기표
- 22 그곳에 가면
부산기후변화체험교육관
- 24 우리는 문화가족
기장청소년리코더합주단
- 26 테마가 있는 여행
대구 근대문화골목 투어
- 30 하인상의 생각그림
남녀 월드컵

Boards Inside

- 32 프리뷰
- 38 리뷰
- 40 프로그램 가이드
- 56 새로 나온 음반
- 57 새로 나온 책
- 58 스페셜 이벤트

Center News

- 59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 60 부산문화회관 소식
- 62 부산문화회관路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4년 7월호 통권 271호

발행처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608-811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 Tel.051 120(주간), 051 607 6222(야간)

예술단 공연문의 051 607 3100 대관문의 051 607 6051~5

발행인 박성택 편집인 박원철 편집 백경옥 정복엽 발행일 2014년 6월 25일 인쇄처 효민디앤피 051 807 5100



마에스트로 **금난새**와 함께 하는 休 스토리

“

2014년의 여름 행복을 전하는 무대 위의 나는새 마에스트로 금난새가 7월과 8월 두 달간 부산시민들에게 휴식 같은 최고의 음악으로 즐거움을 선사한다. 7월의 시작을 알리는 금난새와 떠나는 '오페라 여행'을 시작으로 8월 13일 최고의 청소년음악회로 오랜 사랑을 받아온 장수프로그램 '클래식은 내친구', 28일부터 31일까지 부산문화회관이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부산챔버뮤직페스티벌에서 마에스트로 금난새와의 즐거운 음악여행이 시작된다.

'금난새와 떠나는 오페라 여행'은 어렵다고 느끼는 오페라를 좀 더 친숙하게 만나기 위해 재미있고 친절한 작품 해설과 함께 유명한 오페라 작품인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를 감상할 수 있는 무대로 금난새 자신이 이끄는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 부산 무대에 오른다. 7월 공연에 이어 11월에는 푸치니의 <라 보엠>으로 오페라의 재미를 선사할 계획이다.

작곡가 베르디는 26곡의 오페라 대작과 명작을 남겼다.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는 파리 사교계에 빛나는 무희 비올레타와 프로방스 출신의 귀족 청년 알프레도와의 비극적인 사랑을 그린 작품으로 알렉산더 뒤마의 아들이 쓴 <춘희>를 원작으로 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지휘, 해설에 금난새,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소프라노 서활란, 테너 이재욱, 바리톤 박정섭과 함께 작품의 줄거리를 따라가며 주요 연주곡과 아리아를 감상할 수 있다

8월에는 '클래식은 내친구'로 부산 청소년들과 만난다. '클래식은 내친구'는 역사가 깊다. 1995년 한일그룹의 지원을 받아 청소년 해설음악회로 출발했다. 1998년 외환위기 여파로 잠시 중단됐지만, 관객 요청으로 다시 부활해 매년 여름방학이면 청소년들이 부담없이 클래식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재미있고 친근한 해설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요즈음은 '클래식은 내 친구'를 듣고 자란 청소년들이 성장해 어느새 어머니가 되어 이제는 자녀들과 옛 추억을 이야기 하면서 공연장을 찾고 있다. 올해 '클래식은 내친구'는 클래식애호가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을 비롯해 차이코프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하이든 '놀람교향곡', 피아졸라 '리베르 탱고' 등 우리에게 잘 알려진 명곡들로 무대를 꾸민다. 올해는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클래식은 내친구'를 연주한다.

'클래식은 내친구'에 이어 8월 28일부터 31일까지는 부산문화회관이 실내악 활성화를 위해 의욕적으로 시작하는 '부산챔버뮤직페스티벌'의 막이 오른다. 금난새가 이끄는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비롯해 부산신포니에타, 엠피온스트링 콰

르텟, 트럼펫터 드미트리 로카렌코프, 피아니스트 에브게니 이조토프 등이 참가해 여름 무더위를 날려줄 감미로운 실내악의 향연을 펼친다.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오페라 갈라 콘서트
금난새와 떠나는 오페라 여행 | '라 트라비아타'

일 시 | 7월 1일 화요일 오후 7:30

장 소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연주/유라시안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지휘/금난새)
- 협연/소프라노 서활란, 테너 이재욱, 바리톤 박정섭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금난새와 함께 하는 클래식은 내친구

일 시 | 8월 13일 수요일 오후 4:00

장 소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연주/유라시안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지휘/금난새)
- 협연/바이올린 옥선재, 색소폰 송동건, 클라리넷 백양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음악감독 금난새와 함께하는 첫번째 부산 실내악음악축제
부산챔버뮤직페스티벌

일 시 | 8월 28일-31일 목-금요일 오후 7:30

토-일요일 오후 3:00

장 소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음악감독, 지휘, 해설/금난새

문 의 | 부산문화회관 051-607-6057~8

CULTURAL SCHEDULE

SUN

MON


TU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6

 김은경 클라리넷 리사이틀 V 17:00
균일 2만원/김은경후원회(02-2143-0044)


7


 2014 부산무용제 19:30
1만원, 5천원/부산무용협회(632-5116)

8


 2014 부산무용제 19:30
1만원, 5천원/부산무용협회(632-5116)

13

 출산장려 가족창작 뮤지컬 '아빠 함께 해요' 11:00, 14:00 초대/끼리프로젝트
(759-7112, 010-4784-7721)

 김영희무용단 정기공연 'W-Members 프로젝트 공연' 17:00 2만원, 1만원
김영희무용단(010-4196-8250)

14

 이성은 피아노 독주회
베토벤 피아노소나타 전곡 연주시리즈1
19:30 초대/이성은(010-9716-0717)

15

20

 이일세 첼로 독주회 19:30
균일 2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
이일세(010-9998-7207)


21

22

27

28

29

-  표 공연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 안내는 <http://culture.busan.go.kr> 을 click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측에 문의바랍니다.

● 대극장
 ● 중극장
 ● 소극장
 ● 야외공연장
 ● 국제회의장

WED	THU	FRI	SAT
<p>2 ● 대 닥터스심포닉밴드 제13회 정기연주회 19:30 초대/닥터스심포닉밴드 (554-1088, 010-2561-6047)</p>	<p>3 ● 대 제25회 이건음악회-베를린필하모닉 윈드퀸텟 초청공연 19:30 초대 (주)이건창호(032-760-0898)</p> <p>● 중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13회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19:30 균일 2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 소 어린이뮤지컬 '벌거벗은 임금님' 10:15, 11:20 균일1만원 키즈샘(070-8281-6593)</p>	<p>4 ● 대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02회 정기 연주회-거장 유베르트 수당 초청 '명작, 러시아 II' 19:30 2만원, 1만5천원, 1만원, 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 소 송강수 장단 발표회 19:30 초대/송강수(010-4576-9117)</p>	<p>5</p> <p>● 소 토요일상설무대-김현숙의 우리춤 '동행' 16:00 무료(공연 30분전 선착순 입장) 부산문화회관(607-6056)</p>
<p>9</p> <p>● 중 2014 부산무용제 19:30 1만원, 5천원/부산무용협회(632-5116)</p>	<p>10</p> <p>● 중 부산음악콩쿠르 시상식 및 축하연주회 19:00 무료/부산문화방송사업팀(760-1126)</p>	<p>11</p>	<p>12</p> <p>● 중 출산장려 가족 창작뮤지컬 '아빠 함께 해요' 19:30 초대/끼리프로젝트 (759-7112, 010-4784-7721)</p> <p>● 소 토요일상설무대-조철현 대금연구소 '대금 소리 사랑소리' 16:00 무료(공연30분전 선착순 입장)/부산문화회관(607-6056)</p>
<p>16</p> <p>● ● 중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74회 정기연주회 '풍향' 19:30 1만원, 7천원, 5천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3)</p>	<p>17</p> <p>● 소 스마일 스킨 프로젝트 15:30, 19:00 (사)밝은미소운동본부(02-883-5630, 010-7342-7773)</p> <p>● 야 부산시립무용단 2014 여름마당총판 '7월의 크리스마스-클라리와 호두이야기' 20:00 무료/부산시립무용단(607-3131) *우천시 중극장</p>	<p>18</p> <p>● 야 부산시립무용단 2014 여름마당총판 '7월의 크리스마스-클라리와 호두이야기' 20:00 무료/부산시립무용단(607-3131) *우천시 중극장</p>	<p>19</p> <p>● 중 국제청소년교류음악제 14:00 균일 1만원 부산음악교육협의회(637-0580)</p> <p>● 소 토요일상설무대-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 16:00 무료(공연30분전 선착순 입장)/부산문화회관(607-6056)</p>
<p>23</p>	<p>24</p> <p>● 중 부산시립교향악단 2014 악기가족이 야기 종합편-악기마을 한마음 음악회 10:30, 15:30 균일 2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25</p> <p>● 중 부산시립교향악단 2014 악기가족이 야기 종합편-악기마을 한마음 음악회 10:30, 15:30 균일 2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 소 부산시립무용단 무용교실 발표회 13:00 무료/부산시립무용단(607-3131~2)</p>	<p>26</p>
<p>30</p>	<p>31</p>	<p style="background-color: #333; color: white; padding: 2px;">전 시</p> <p>제20회 부산서예대전-대, 중전시실 7월 12일(토)-7월 16일(수) 부산서예협회(010-9753-0718)</p>	<p style="background-color: #333; color: white; padding: 2px;">국제회의장</p> <p>토요 오감놀이터 '얼씨구 락' 7월 5일(토), 12일(토), 19일(토) 오전 10:00~12:00 부산문화회관(607-3100)</p>

30년 정든 무대 떠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클라리넷 주자

정우영



지난 5월 제500회라는 큰 산을 넘은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제 501회 정기연주회가 6월 20일 매진 속에 열렸다. 모두가 빛이 난 무대였지만 이날 연주회의 주인공은 단연 부산시립교향악단 클라리넷 수석 정우영 씨. 6월 30일 정년퇴임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무대에 오른 그는 함께 해온 단원들과 청중들을 위해 혼신의 무대를 선보였다.

“부산시립교향악단에 입단한 게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정년퇴임이네요. 그동안 카네기 홀 공연, 아시아 순회공연, 창단 50주년 기념 중국 순회 연주회까지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정말 많습니다. 시민들과 단원들과 함께 한 지난 시간이 정말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정우영은 섬세하면서도 풍부한 음악 속에서 성숙한 내면 세계를 표현하는 부산 대표 클라리네티스트이다. 1981년 부산시립교향악단에 입단한 정우영 씨는 지휘자 과정 공부를 위해 빈시립음악원에서 4년간 유학생생활을 했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지난 30년간 부산시립교향악단 클라리넷 수석으로 최고의 무대를 선사해 왔다.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며 아쉬웠던 점이 많지만 정우영씨는 그런 힘든 과정을 즐기며 한국 클라리넷 음악계에 큰 족적을 남겼다.

정우영씨와 클라리넷과의 인연은 중학교 2학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밴드부의 연습을 우연히 보게 된 그는 친구들과 놀기보다는 담장 너머 들리는 밴드 소리에 시간가는 줄 몰랐다. 예민하던 사춘기, 고등학생 형들을 쫓아 어렵게 클라리넷을 배우게 된 정우영 씨는 일부러 밴드부가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해 지금까지 변함없는 클라리넷 사랑을 펼쳐왔다.

정우영 씨는 연주자로서 개인활동 외에 부산클라리넷콰이어, 부산필원드앙상블, 한국아카데미체임버앙상블 등을 창단하며 클라리넷과 관악앙상블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1999년에는 한국 최초로 클라리넷 앙상블 음반을 발매하여 호평을 받기도 했다. 2000년부터는 일본 히데아키 이와이 클라리넷 콰이어와 매년 교류 연주회를 개최하며 국제 교류활동도 활발하게 펼쳤다. 2001년부터는 해운대청소년오케스트라 지휘자로 활동하면서 지역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 힘써왔다.

“청소년오케스트라 활동도 어느새 13년이네요. 처음 단원들은 오케스트라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음악활동을 시작했지만 창단 단원들이 어느새 성인이 되어 찾아오곤 합니다.”

한국클라리넷협회 회장을 지내기도 한 정우영 씨는 많은 제자들이 전국 곳곳에서 연주자로, 교육자로 활동하고 있어 언제나 힘이 난다. 특히 장남 준화 씨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클라리넷을 전공하고 있어 한편으로 든든하다. 최근에는 프랑스 에콜노르말 음악원 최고연주자 과정에 다니고 있는 준화 씨가 제30회 럼드 전국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과 전체 대상격인 시장상을 수상한데 이어 스페인 아빌라에서 열린 제5회 줄리안 메넨 데즈 클라리넷 콩쿠르에서 아시아 최초로 2위에 입상해 주목을 받아 아버지로, 스승으로 기쁨이 크다. 사실 아들이 클라리넷을 하고 싶어 했을 때 정우영 씨는 자신이 걸어온 힘든 길을 아들도 겪는게 싫어서 반대를 많이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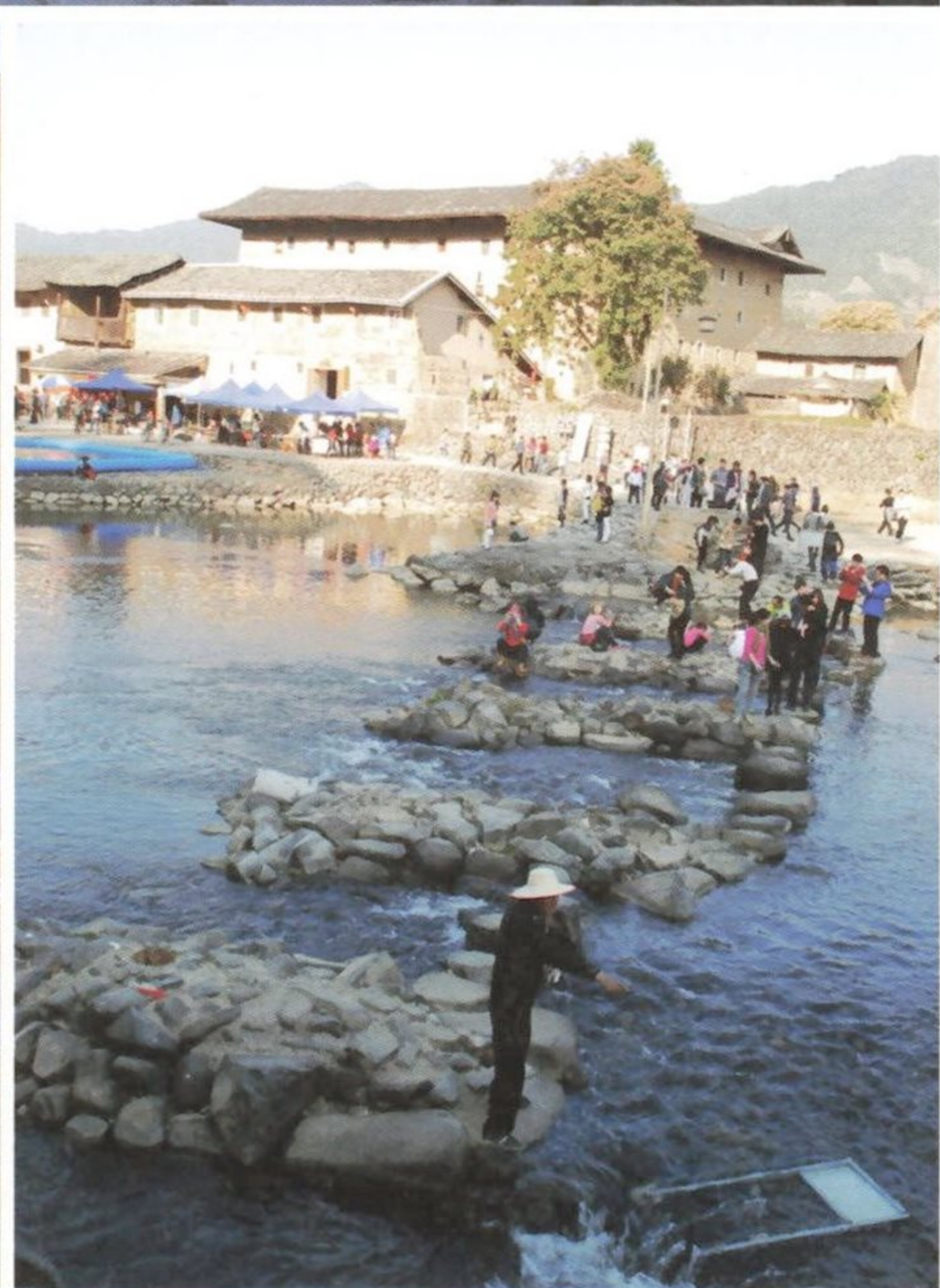
“연주자도 음악을 즐기는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러나 청중들 앞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해 연주자의 삶이 많이 힘듭니다. 그런 연주자의 삶이 힘들어 처음 아들의 선택에 반대를 했지만 내가 음악을 처음 시작했던 그 순간을 생각하다보니 그 설렘, 그 열정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6월로 정든 부산시립교향악단 무대를 떠나지만 연주자로 그의 열정은 변함없다.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무대에 오르고 싶다는 그는 앞으로 오케스트라 일정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자신만의 음악, 새로운 레퍼토리로 청중들과 만날 계획이다. 특히 내년 귀국하는 아들 준화 씨와 함께 연주회도 가질 계획이다.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며 정우영 씨는 후배들에게 ‘건강’ 관리를 제일 당부한다. 10여년 전 갑자기 찾아온 마비로 정우영 씨는 당시 음악을 그만둬야 할 정도로 심각하게 고민했던 시절이 있었다. 스트레스로 인해 관악파트 연주자들은 특히 손이나 입의 마비를 자주 겪지만 치료가 쉽지 않고, 치료를 마친다 하더라도 예전 기량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연습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 정우영 씨는 부산지역 클라리넷 음악의 융성을 이루어낸 부산 대표 클라리네티스트로 우뚝 설 수 있었다.

새로운 출발선에 선 클라리네티스트 정우영 씨. 그가 준비하는 인생 2악장이 궁금해진다.

푸젠성으로 떠난

객가 투러우 여행



“

베이징에서 버스를 타고
중국대륙 남쪽까지 왔다.
도로상 2000km 가 훨씬 넘는 거리.
50인승 버스를 타고
무려 43시간이 걸렸다.
이런 여정은 사실 장거리에
익숙한 중국사람들에게도
만만한 여정이 아니다.
당초 28시간을 예상했건만
새벽시간 고속도로 통제정책과
약간의 보슬비에
도합 10시간을 붙잡혔다.
거의 이틀을 버스와 휴게소에서
먹고 자고 하니 짜증이 폭발하는
일행들이 생긴다.
결국 한참동안 언쟁이 오간다.
그래도 대다수는 그냥 받아들인다.

나는? 그저 그렇다. 나는 이런 일들에 그들보다
더 익숙할지도 모른다. 3시간 산행을 위해 10시
간을 대중교통에 투자한 적이 어디 한두번인가.
교통대란 속에 베이징에서 푸젠성까지 버스를 타
고 여행을 갈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다.

이번 여행중 가장 기대를 가진 곳. 투러우(土樓).
동그란 흙담집이며 다세대 주택이다.
사실 네모난 집에 비해 비효율적이고 만들기도 귀
찮을 텐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대부분 외부
로 부터의 방어의 목적으로 지어졌다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까지 예쁘게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모르겠다. 투러우는 그 독특한 구조와 형태 등으
로 인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2008년)되어 있다.

예전에 투러우를 지칭할 때 대부분 객가족이 지은
객가투러우(客家土樓)라 불리웠는데, 자료를 보
니 객가투러우 외에도 민난지역 토박이들이 지은



투러우(闽南土楼, 민남투러우)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은 함께 푸젠투러우(福建土楼)로 부른다고 한다.

투러우는 대만과 마주한 중국 푸젠성 남부일대에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번에 찾게된 곳은 그중 규모면이나 지명도 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곳이다. 그리고 이곳의 투러우는 객가족이 살던 객가투러우로 분류된다. 영어로는 Hakka라고 불리우는 객가족은 4세기에서 18세기에 걸쳐 중국 북부에서 남부로 이주한 민족인데, 객가라는 말 자체가 이주민이라는 뜻을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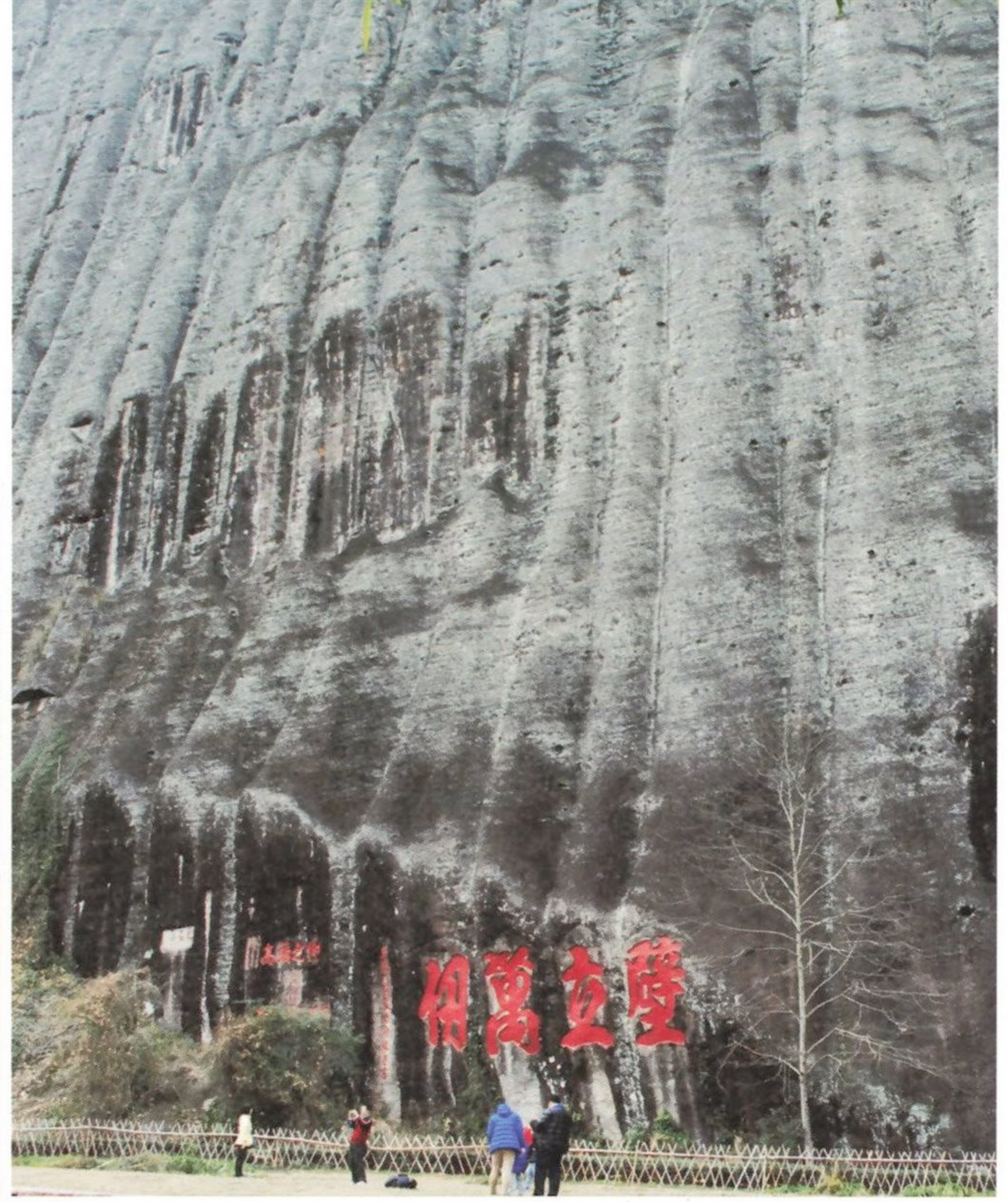
오늘의 할일은 가장 먼저 적합한 일행을 찾는 거다. 어제처럼 코드 안맞는 사람들을 피해 딱 맞는 팀을 찾았다. 바로 같은 방을 쓰게 된 라오양 형님과 그의 추종자들. 특히 라오양은 몇

해 전부터 온라인상으로 그 이름을 서로 알고 있던 사이였고, 실제로 동행을 하는건 이번이 두번째다.

그리고 이 형님은 중국공인 고급사진가다. 무슨 여권처럼 생긴 자격증 같은게 있는데 이걸 보여주니 모든 관광지가 환영한다. 보통 기자증의 경우 어떤 곳에서도 통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사진가 자격증도 그와 비슷한 권한이 있다.

텐뤄징 투러우(田螺坑土楼, 전라갱투러우) 코스는 이곳에선 쓰차이이탕(四菜一汤)으로도 부른다. 재미있는 표현이다. 동그란 투러우 네개와 네모난 투러우 하나의 모습을 보고 지은 말인 듯 싶다. 그걸 식탁의 음식과 비교를 하다니... 네개의 요리와 하나의 탕. 요즘 중국의 대부분 대형 관광지가 그러하듯 이곳도 입구에서 부터 내부셔틀을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승용차는 별도 요금을 지불하면 통과가 된다.

산 속에 펼쳐진 여러 투러우 군락들을 관람하기 좋게 해놓았다. 내부에 크게 세곳의 마을이 있으며 셔틀버스를 타면 각각 20분 내외로 이동이 가능하다. 순서로 보자면 쓰차이이탕 텐뤄징(四菜一汤 田螺坑) - 위창러우(裕昌楼) - 타샤춘(塔下



村)으로 모두 약 4-5시간 소요된다. 투러우는 입구가 하나고 중간에 우물과 작은 사당 등이 있으며 1, 2층은 창고나 식당으로 사용되며 실제 숙소는 3, 4층에 있다. 이곳의 투러우 마당은 모두 관광객들을 위한 음식점이나 특산품, 기념품 가게로 활용되고 있다.

텐워킹 코스를 끝내고 바로 근처의 두번째 코스 원수이야오(云水谣, 운수요) 마을 코스로 이동한다.

첫번째 코스 텐워킹코스가 투러우 건축을 보는 중심이라면 원수이야오 코스는 옛 전통 마을을 둘러보는 코스다. 소요시간은 왕복 약 2-3시간. 시원한 하천을 따라 예쁜 마을 풍경이 이어진다. 그리고 여기저기 아주 커다란 아름드리 나무들이 마을의 역사를 말해주는 듯 기품있게 서있다. 다만 하천가의 수상 놀이기구들이 눈에 거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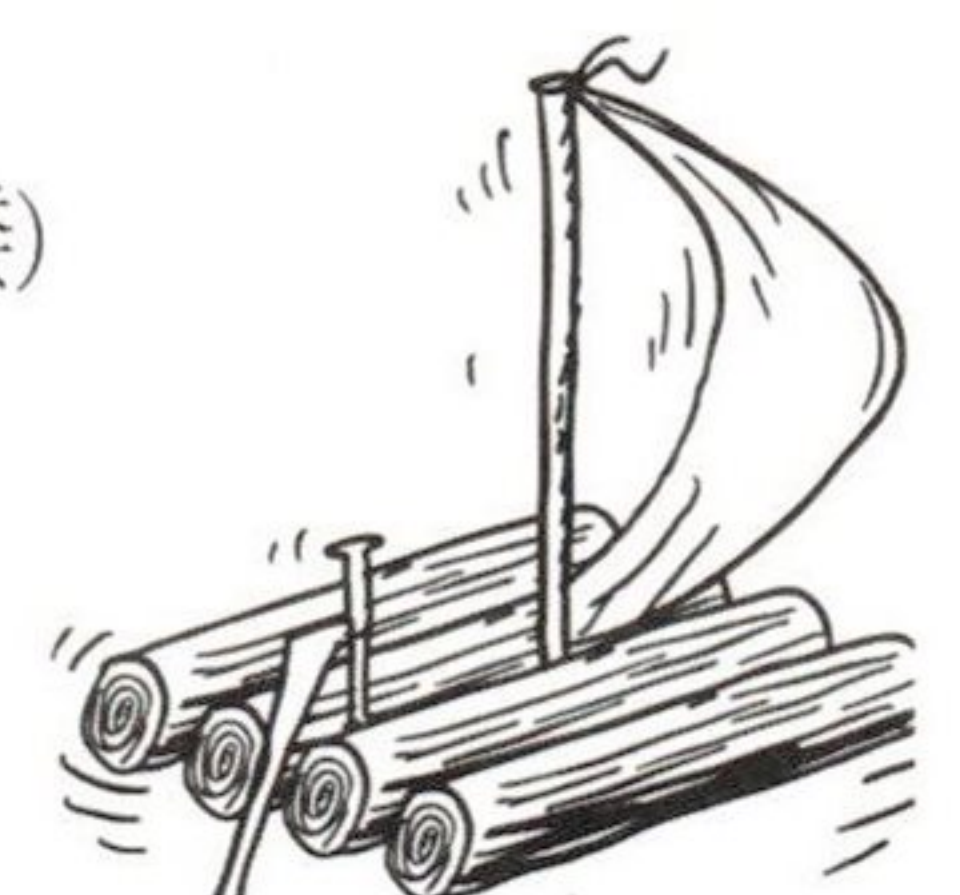
두 코스를 보는데 약 8시간이 걸린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이곳의 투러우에서 하루밤을 보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아쉽게도 우리 일행은 샤먼에서 이곳까지 와서 다시 샤먼 숙소로 돌아갔다. 샤먼에서 이곳까지는 약 200km, 세 시간 거리다.

A선 텐워킹 코스

입장료 100元 + 셔틀버스 20元(田螺坑土楼群~东倒西歪楼~塔下村)

B선 원수이야오 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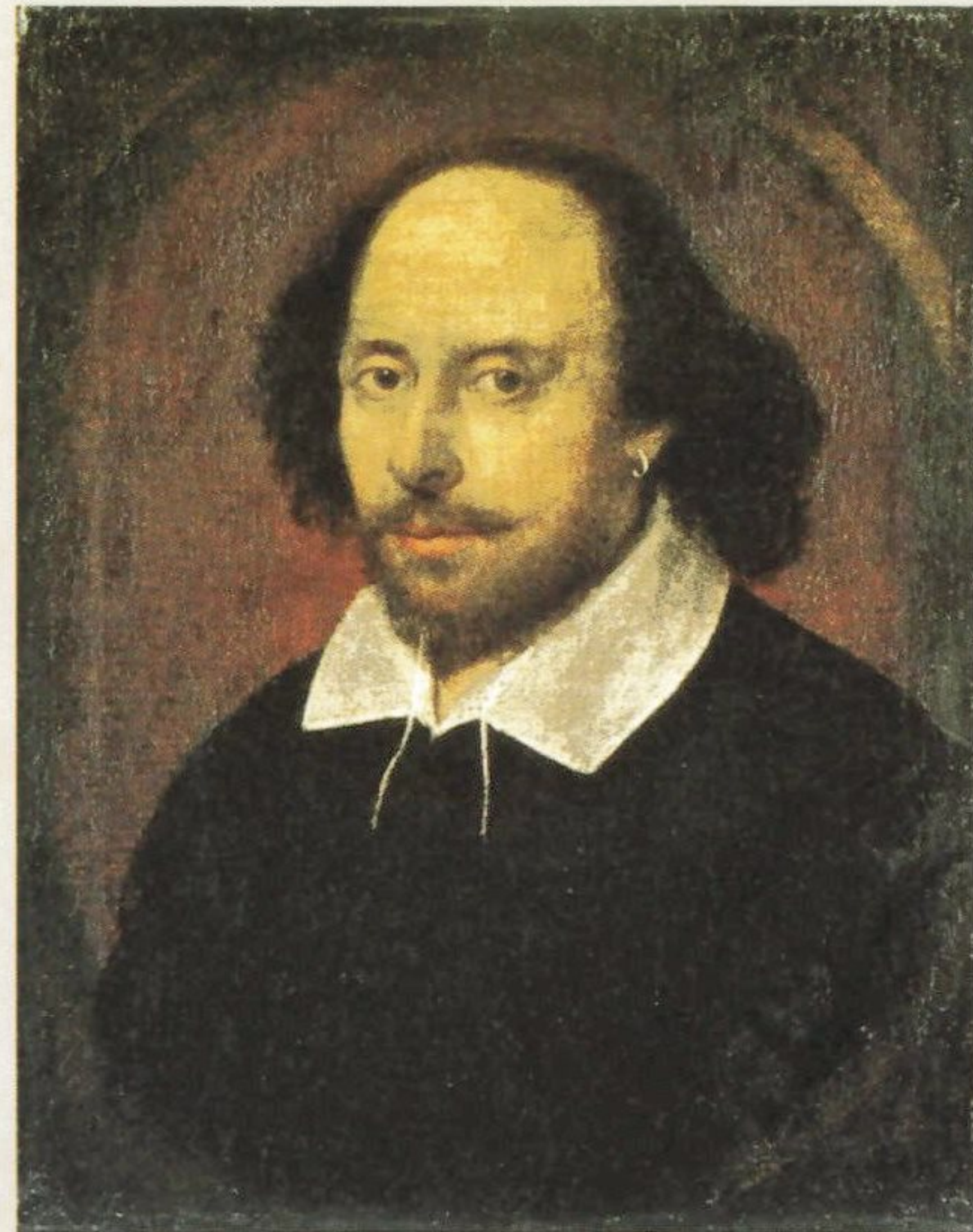
입장료 80元(和贵楼~云水谣古镇~怀远楼)



불멸의 거장
셰익스피어 ①

글
송홍한
동아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인간성의 창조자 셰익스피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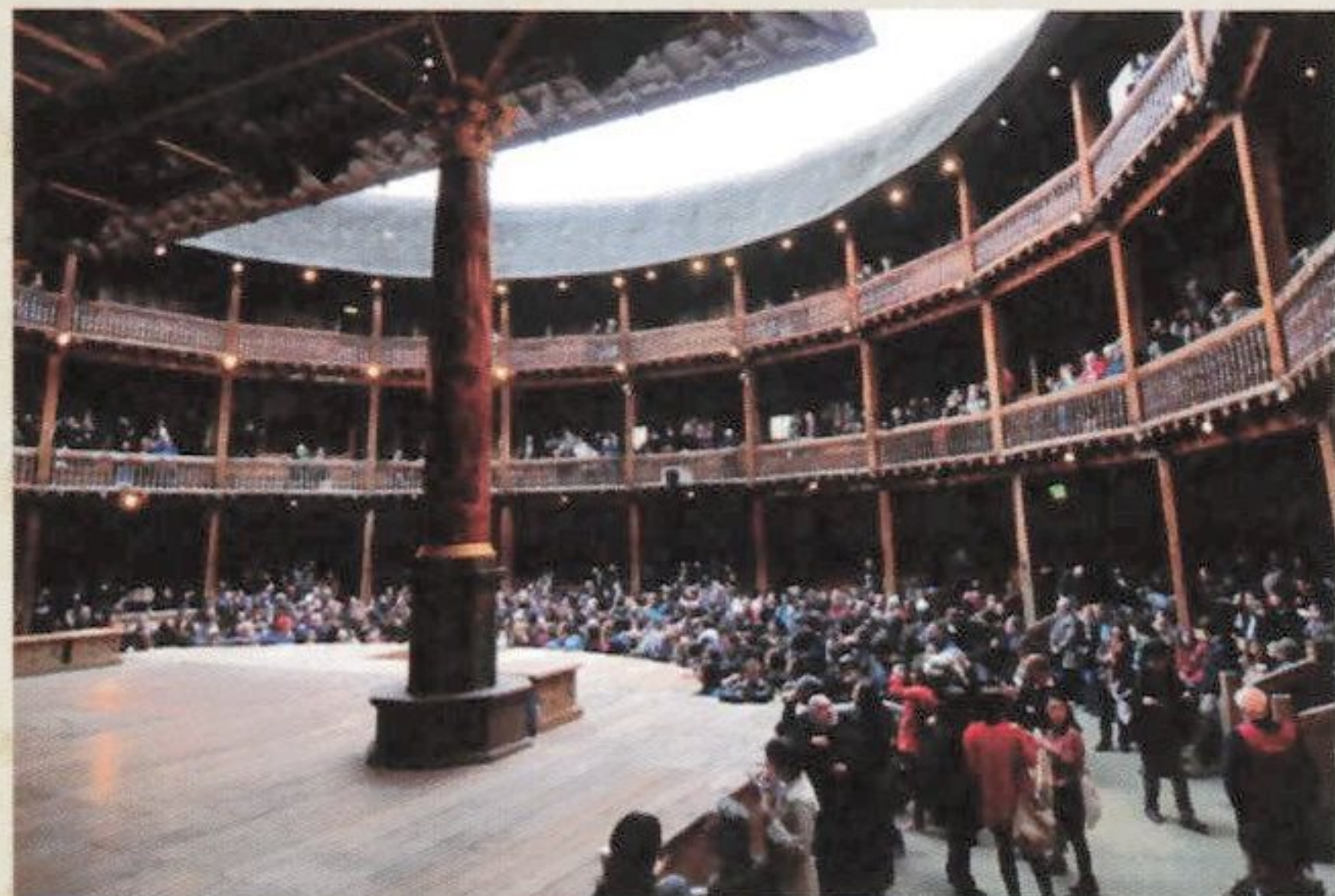


셰익스피어 초상화(1610년경 존 데일리가 그린 유화 초상화)

“

올해는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의 탄생 450주년이다.

수백 년의 역사가 흘렀지만 그의 문학적 천재성과 인간성에 대한 통찰력은 오늘날에도 그가 살던 시대 이상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경외심과 신비감을 더욱 자아내게 한다. 오늘날 지구상 어딘가에서 거의 매일 그의 연극이 공연되고 있을 정도로 공연극으로서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100여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면서 문학 작품으로서도 불멸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오늘날 셰익스피어 극이 공연되는 복원된 극장의 내부 모습

셰익스피어가 엘리자베스 여왕 치하의 영국 르네상스라는 문예적 부흥기에 창작활동을 했던 것도 그가 빛을 본 이유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그 시대에 그와 필적할 만한 작가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 시대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이나 그 이후에도 그와 필적할 만한 작가는 나오지 않았다. 그의 문학은 당대의 구체적인 상황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서도 시공을 초월한 보편성을 보여준다. 전무후무한 천재가 그의 재능을 맘껏 발휘할 수 있는 좋은 토양과 시대를 만났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간성의 다양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창조해낼 수 있었던 것이다.

셰익스피어의 극작품이 근본적으로 무대공연의 대본으로 쓰인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읽히는 문학작품으로서의 가치도 극작품으로서의 가치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오늘날의 산문체 극작품은 공연대본으로서의 가치에 더 치중한다고 하겠지만, 운문형식을 띠고 있는 그의 극작품은 르네상스 시대 극작품의 시적 특성에 따라 시적 상상력이 깊게 스며들어 있기도 하다. 상상력

이 스며든 시적인 표현들, 지체가 돋보이는 불멸의 격언들, 많은 것을 연상하게 하는 통합적인 감수성, 그리고 인간성에 대한 철학적인 인식력 등은 오늘날의 일반 대화체 극작품에서는 가히 찾아보기 힘든 특징들이다.

셰익스피어의 극작품은 무운시(blank verse) 형식으로 쓰였으며 배경설명이 라든가 하층민의 낮은 지적 수준을 표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산문을 사용한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운문으로 되어있다. 즉, 르네상스 당시에는 문학이 시요, 시가 문학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대 위에 오르는 대사를 시로써 표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깊은 상상력이 가미된 표현이라는 뜻이다. 시적 상상력이 가미된 그의 작품은 읽으면 읽을수록 그 오묘한 깊이에 경외심을 품게 한다. 이러한 시적 문학성이야말로 셰익스피어 학자나 독자가 그의 작품을 평생 연구하고 읽어도 작품에 대한 깨달음이 충분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셰익스피어는 깊이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셰익스피어를 읽는 것이 아니라 셰익스피어가 나를 읽는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오늘날 대중소설이나 극작품처럼 줄거리를 알고 나면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거나 그럴 필요성을 느낄 수도 없는 작품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하겠다.

어느 작가를 소개할 때 그의 삶을 먼저 소개하고 작품세계를 조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짧은 글에서 셰익스피어를 소개하면서 그의 삶을 얘기하는 것은 지면을 낭비하게 할 뿐이다. 그만큼 그의 삶이 베일에 가려진 부분이 많기도 하지만, 그의 문학세계가 어느 한 시대와 한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초월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의 성장이나 평범한 교육과정으로 미루어 볼 때, 그의 작품에 나타난 문학적 폭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그 깊이가 너무나 오묘하기 때문에 셰익스피어가 과연 그런 탁월한 작품들을 쓴 진짜 작가인가 하는 의구심이 끊이지 않게 제기되기도 한다. 그만큼 자신의 모습을 작품 속에 드러내지 않은 작가이기도 하다. 그러나 셰익스피어의 천재성은 높은 교육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그의 천재는 창조적인 천재이다.

셰익스피어를 가리켜 인간성의 창조자라고 부르는 것은 그의 문학적 묘사가 너무나도 영원한 보편성을 지니면서도 동시에 무한한 다양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38편의 극작품을 통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삶의 조건과 인간유형을 그려내고 우리의 인간성을 창조해내고 있다. 그는 최고의 시인으로서 천재적인 기지가 번뜩이는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고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인식능력과 지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천재적인 언어 재능은 신조어에

있지 않고 단어를 조합해 새로운 의미나 용도의 구절을 만드는데 있다. 단어 몇 개로 조합된 짧은 구절의 촌철살인 격인 대사가 배우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면 청중들은 무릎을 치며 감탄하게 되고 그 대사들은 청중의 뇌리에 꽂히게 된다. 언어적 창조능력 못지않게 그가 보여주는 인간성과 인간관계에 대한 창조적 지혜의 보고는 값진 보석이 끊 없이 이어지는 광맥과도 같다.

오늘날 영미문학비평계의 최고 권위자이자 저명한 셰익스피어 학자인 해롤드 블룸(Harold Bloom)은 셰익스피어의 문학적 성취를 설파한 그의 방대한 저서, <셰익스피어: 인간성의 발명>에서 셰익스피어는 최고의 시와 산문을 썼으며, 이런 결실은 그의 인식능력과 분리될 수 없고, 나아가 인간성을 발명하였다고까지 표현하며 경외감을 표시한다. 셰익스피어의 극작품은 인간 성취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고 서양의 어느 작가도 셰익스피어의 지성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작가들 가운데 문학작가들 뿐만 아니라 철학자들, 종교적인 현인들, 심리학자들 등을 모두 포함해도 셰익스피어의 지성을 따를 자가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오늘날의 수많은 부류의 비평양식이나 문화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성적 우수성을 능가할 만한 발전은 없다고 본다. 셰익스피어의 문학이 지니는 이런 창조적인 보편성과 다양성 때문에 그는 오늘날의 수많은 독자들에게 인간성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혜안을 제공한다.

인간성의 창조자로서 셰익스피어는 시대가 흐를수록 더 많은 독자들을 상대로 다양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며 신화처럼 군림할 것이다. 영국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극작가라는 한계는 이미 그간의 세월이 흐르면서 벗어난 지 오래다. 그는 이제 우리 앞에 시대와 국가를 초월하는 불멸의 작가로 굳건하게 서있다. 올해가 그의 탄생 450주년이라고 기념하고 있지만 그 숫자는 무의미한 것이다. 그가 자신의 소넷 18번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아름다움에 영원성을 부여하면서, “인간이 숨 쉬고 눈으로 볼 수 있는 한, 이 시는 살아서 그대에게 생명을 부여하리라”고 노래한다. 그렇다! 셰익스피어의 문학은 인간이 이 지구상에 살아있고 글을 읽을 수 있고 무대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살아남아서 삶의 혜안을 제공하며 인간성을 끊임없이 창조할 것이다.



스트랫포드의 홀리 트리니티 교회에 있는 셰익스피어 무덤의 기념상

※ 글쓴이 송홍한 교수는 르네상스 영문학 전공 교수로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영문학 박사과정을 거쳐 서강대학교 영문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미국 하버드대학교와 UC 버클리대학교 등의 객원교수를 지낸 바 있습니다. 현재 동아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저역서로는 <문학과 종교적 상상력>(공저), <문학의 생명력>(공저), <끝이 좋으면 다 좋다>(셰익스피어 주석서), <리더십 3막11장>(역서;셰익스피어 리더십) 등이 있습니다.

건축으로 보는 부산, 부산 문화

글 강기표
건축가
건축사사무소 아체 ANP 대표
동명대학교 건축학과 외래교수



기술이 만드는 건축의 새로운 풍경

“

“뭘 보여주지?” 건축특강과 건축투어 행사를 종종 하는 나에게도 항상 고민거리로 와 닿는 질문이다. 건축특강, 건축투어나 글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건축의 문화를 소개하기도 하고, 때론 영화, 광고 등의 미디어를 통하여 그 속의 건축 문화를 이야기하기도 한다. 일반인에게 건축과 건축 문화를 소개하고 이해시키기 위하여 항상 내 눈과 귀의 안테나를 켜두고 있다. 건축을 직접적으로 소개하는 건 항상 부담으로 와 닿는다. 건축의 본질인 공간과 기술적 완성도, 나아가 일반인에 대한 건축에 대한 보편적 이해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건축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작년 우연히 찾게 된 조병수¹⁾ 건축가의 ‘키스와이어 센터(Kiswire Center)’는 “정말 보여 주고 싶다”라는 답이 바로 나온 몇 되지 않는 건축물 중의 하나이다. ‘키스와이어 센터’는 부산의 향토기업인 ‘고려제강’이 수영구 망미동 옛 공장 터에 ‘와이어’가 현대 문명과 산업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해 왔는지를

보여주고, 다가올 미래에 어떻게 창의적으로 응용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올해 5월에 개관한 ‘키스와이어 홍보관’, ‘와이어 뮤지엄’과 기업의 기술 교육과 연수를 위한 ‘연수원’, ‘생활관’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고, 연수원과 뮤지엄 사이에는 하늘과 자연을 품은 ‘수정원 (Water Garden)’이, 둔덕의 자연스러운 경사지에는 무대의 ‘반투명 와이어 스크린’이, ‘와이어 뮤지엄’을 투영하는 ‘야외공연장’이 자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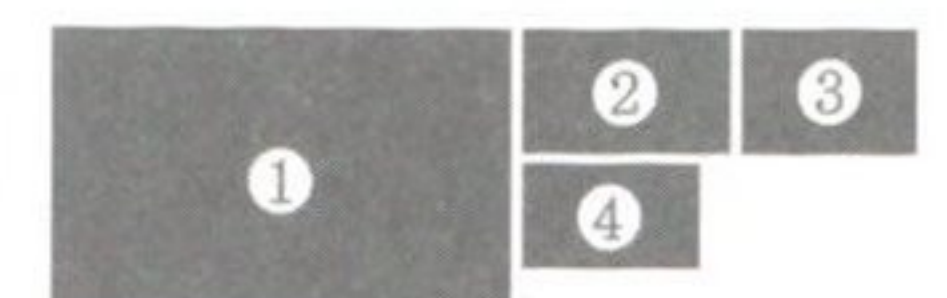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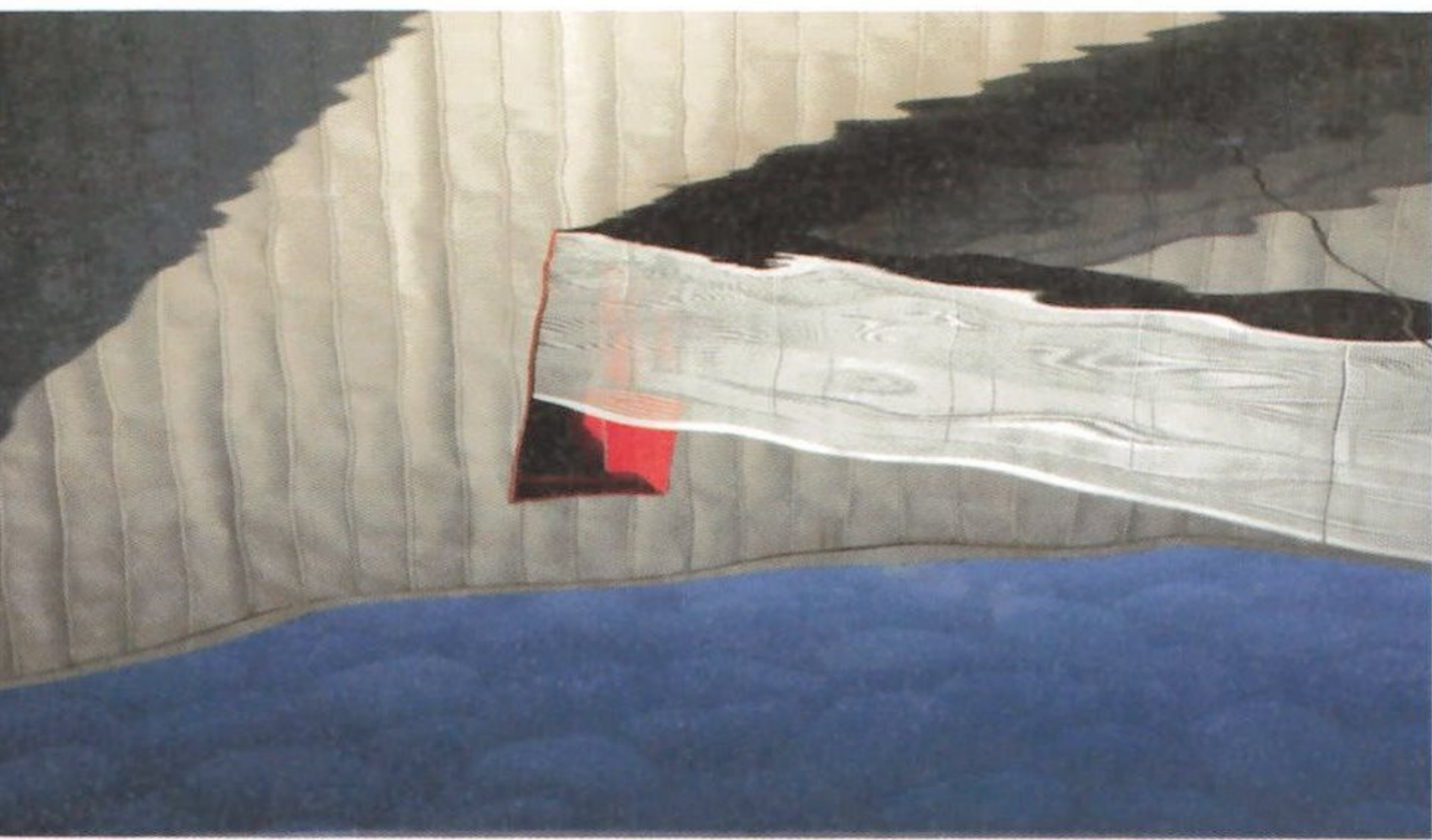
“벽 밖에 없네!”

‘수정원’이 내려 보이는 언덕에 자리 잡은 ‘키스와이어 센터’는 외부에서는 성벽과 같은 외벽과 그리고 외벽을 세로로 흐르는 와이어와 나무가 있는 둔덕 밖에 보이지 않는다. “벽 밖에 없네!” 그러나 비밀은 외벽과 둔덕에 있고, 와이어에 있다. 두꺼운 기둥이나 보 없이 와이어

로 당겨 넓은 실내공간을 확보하고, 와이어는 외벽을 힘을 받아 주는 어깨로 이용하며 타고 흘러 2층 바닥과 지붕을 지탱하고 있다. 부두 도로를 출발하여, 도시고속도로 ‘망미 램프’를 조금 가지 않아 보이는 ‘키스와이어 센터’의 외벽과 건물은 마치 산의 능선을 최대한 유지하며 자연스런 둔덕의 지형을 조성하고 그 둔덕의 지하에 건축물이 스며들어 있으며 나지막한 둔덕으로 건물은 위압적이지 않고 주위의 도시 환경과 어울리며,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용히 맞이한다.

와이어가 만들어내는 건축의 아름다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존재의 의미를 찾는 것, 그것은 새로운 재료의 아이디어이다.’²⁾ 건축이란 단어에는 ‘세우다’와 ‘쌓다’의 의미를 갖고 있다. 산업 혁명 이후 건축은 쌓다와 세우다의 의미에서 벗어나, 당기는 힘(인장강도,



- ① 수정원 위를 흐르는 와이어의 다리
_@강기표
- ② 수정원의 물에 투영된 뮤지엄과 와이어 다리
_@김도균
- ③ 와이어 스크린을 통해 보이는 야외 공연장
_@강기표
- ④ 외부전경 _@강기표



Tensile Strength)에 강한 철근과 누르는 힘(압축강도, Compressive Strength)에 강한 콘크리트가 상호 보완적으로 탄생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현대에서 가장 보편화 되어 있는 건축의 구축 방법이다.

당기는 힘에 강한 재료, 와이어를 주된 구축방법을 쓴 '키스와이어 센터'는 와이어가 만드는 가늘고 미세한 선의 섬세한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의 구조를 와이어의 장점과 특성으로 해결하고 있다. 기둥이나 보 없이 와이어로만 당겨서 바닥과 지붕이 지탱되고 있는 27×27m의 '와이어 뮤지엄'은 내부에 기둥이 없는 시원한 공간으로 와이어의 구조적 특징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공간 그 자체가 '뮤지엄'이 되고 있다. 현수교인 광안대교를 생각해 보면 이 건물의 구조를 쉽게 이해 할 수 있을 것 같다. 양쪽에서 당겨준 줄이 다리의 상판을 들고 있는 원리와 유사하다. '뮤지엄'의 공간을 가르며 외부와 연결되는 한 개의 기둥과 와이어로 떠 있는 유연한 선의 나선형 경사로는 구조적으로 뛰어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훌륭한 전시물이다. 탄성을

지닌 경사로는 공간을 타고 돌며, 드라 마틱한 공간적 체험을 선물하고 있다. 경사로의 '타공 벽판'은 빛과 그림자의 다양한 모습을 만들어 주기도, 공간 내부의 유일한 색채인 경사로 끝 벽면의 주황색은 '타공 벽판'에 반사되어 색과 그림자와 빛의 놀라움을 보여 주기도 한다. 나선형 경사로 아래의 스텐레이스는 공간의 전이적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반사하기도 한다.

연결, 만남, 소통

실내에서 벽체를 관통해 외부로 나온 경사로는 중정위의 연못인 '수정원'을 지나 건물을 덮고 있는 '땅'으로 연결된다. '수정원'의 뚫려진 벽은 자연과 도시를 받아들이며 주변 환경과 소통하며, 담겨져 있는 물은 조용한 바람 소리와 함께 잔물결을 일으키며 하늘과 건물을 투영하고 있다. 뮤지엄의 내부 경사로를 나와 '수정원' 위를 살며시 가로지르는 '와이어의 다리'는 '뮤지엄'의 경사진 지붕과 시원한 개방감의 '연수원'을 좌우로 두며, 땅으로 이어지고 있다. 땅의 쉼을 그대로 유지한 채 앉은 연수원은 '어린왕자'의 숨은 '코끼리'와같이 땅속과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있다. 각 실과 각 실의 사이는 도시를 향한 '틈'을 내어 자칫 답답할 수 있는 공간에 전망내어 주고, 바람을 불러 넣어주고 있다. 연수원은 외부의 마당과도 연결되지만 야외공연장 옆의 입구에서 시작되는 '터널 길(복도라고도 할 수 있지만 '길'에

가깝다)'과도 연결되며, '터널 길'은 또 다른 구조의 강직한 아름다움과 미묘한 공간적 체험을 갖게 한다.

조병수 건축가는 '키스와이어 센터'에 대하여 "최대한 자연을 보존하면서 건축과 대지를 결합하는 장소특정적 결합 방식에서 디자인의 기본방향으로 잡았다"³⁾라고 말하고 있고, 와이어의 특성과 장점을 반영하고, 와이어를 이용한 새로운 건축적 모험과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되새겨 볼만한 작품임에 틀림이 없다. 경성대학교 건축학과 강혁 교수는 조병수 건축가에 대하여 "건축으로 시를 쓰는 이(Poet-Architect)로서 한국에선 드문 유형의 건축가라고 생각해왔다. 그는 산문적인 상황함이 지배적인 이 시대에 간결하면서 함축적이고 침잠하는 집을 지어왔다."⁴⁾라고 하고 있다. '멋진 외형'이 난무하는 오늘의 건축 모습에서 '좋은 공간'이 갖는 감흥과 기술적 완성도를 보여준다는 건 나에게 건축으로부터 온 행복한 선물이다. 공사를 막 시작한 센터의 사무동이 완성되는 날 또 다른 공간적 감흥을 줄 것 같아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1) 조병수 1994년에 조병수건축연구소를 개소한 이후 '경험과 인식', '존재하는 것, 존재했던 것', '유기성과 추상성' 등을 주제로 건축 활동을 이어 왔다. 하버드대학교, 콜롬비아대학교, 연세대학교 등 여러대학에서 설계와 이론을 가르친 바 있다. 대표작으로 '파주 어유지 동산', '수곡리 모자 집', '트윈트리 타워', '남해 사우스케이프 오너스 클럽 이니 어 스위트' 등이 있다. 한국건축가협회상, 미국건축가협회상, AR House Award 등을 수상하였다.
2) 고려재강 'Kiswire Center' (홍보 책자), 2013, p. 17.
3) 공간 'SPACE' 556호(2014, 3월호), p. 33.
4) 공간 'SPACE' 556호(2014, 3월호), p. 44.

내 손으로 되살리는 나의 지구 부산기후변화체험교육관

“

동남권을 대표하는 기후변화 체험시설인
부산기후변화체험교육관이
7월부터 일반 시민들에게도 개방된다.
지난 2월 13일 북구 화명동 부산어촌민속관
인근에 문을 연 부산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상설전시관과 영상관, 그린스쿨교실,
하늘정원 등을 갖추고 기후변화 현상을
보여주는 전시시설과 에너지절약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시범운영기간인 6월까지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등 15명 이내의
단체관람만 가능했지만
7월부터는 일반인들도 자유관람이 가능하다.



“2000년대 들어 지구온난화로 태풍, 홍수, 가뭄, 한파 등 극한 기후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산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기후변화가 인류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는 만큼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홍보하고 생활 속에서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건립되었습니다.”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지금 지구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상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그 피해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상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50%를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로 충원하고 있다.

부산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관을 찾은 관람객들은 2층 전시관 입구에서 카드 등록을 한 후 영상관에서 ‘탄소 몸살, 지구가 열이 나요’라는 제목의 환경관련 영상물을 관람한다. 영상물 관람 후에는 기후 변화로 인한 홍수와 폭설 등 세계 각 나라의 실상을 보여주는 지구본과 황폐해진 현상을 자세하게 설명해놓은 조형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전시관람에 나선다. 상설전시관에서

지 사용실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부산기후변화체험교육관에서는 전시관 관람 외에도 에너지 및 생태 환경과 관련한 20여 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그린스쿨’을 개설해오고 있다. 태양광 진동자동차에서부터 뽀비우스 바람개비, 천연 모기퇴치제, EM발효액, 천연비누 등 만들기 체험과 화명생태공원 갈대체험, 대천천 생태 탐방, 낙동강 뱃길체험, 찾아가는 곤충체험 등 다양한 야외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한다. ‘그린스쿨’은 매월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데, 참가비는 대부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산 교육장으로, 부산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인천, 수원, 담양, 청주, 구미 등 다섯 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특히 미래의 주역이 될 초등학생과 유치원생들이 ‘기후 변화’라는 다소 어려운 주제를 게임, 놀이 등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어서 개관 전부터 주목을 받아왔다. 교육관 건물 자체가 빗물재활용 시설, 지열 활용시스템 등 에너지 자립형 친환경 건축물로 태양광, 태양열, 풍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실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험장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자체 소비전력의

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탄소를 발생시키는 요소와 생활 속 에너지 사용에 따른 탄소량, 에너지 낭비와 탄소, 지구 온난화로 인한 무서운 피해 등을 보여주는 전시물로 구성되어 있다.

전시 관람이 끝나면 재미있는 게임, 놀이를 통해 배운 지식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 ‘수도꼭지를 잠가요’ ‘코드 뽑기’ ‘탄소 팡팡’ ‘자전거 타기’ ‘재활용품을 찾아라’ ‘그린마켓’ 등 게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탄소를 줄이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다. 건물 옥상인 하늘정원에서는 태양광, 태양열, 풍력,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 등 신재생에너지

무료이며 태양광 진동자동차 만들기 등 몇몇 프로그램만 재료비 1천원을 받는다.

부산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2월 개관 후 단체관람이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4천4백여명이 이곳을 다녀갔다. 일반인들의 자유관람이 허용되는 7월부터는 관람객 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20여명의 기후해설사들이 상주하고 있어 오전 10시, 11시, 오후 2시, 3시, 4시 등 하루 다섯 차례는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면 전시관을 둘러볼 수 있다.

문의 부산기후변화체험교육관
309-6290~6, cce.bsukgu.go.kr

우리는 문화가족



기장청소년리코더합주단

“

소박하면서도 신비한 음색의 악기 리코더. 18세기 바흐, 비발디 등 클래식 거장들도 연주곡을 작곡했을 정도로 음악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지만 18세기 후반 들어 플루트에게 그 자리를 넘겨주면서 오늘날에는 초등학생들의 음악교구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 때문에 '어린이 학습용 악기'라는 편견으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나 호흡이나 운지(運指)에 따라 수천 가지 다양한 음색을 내는 리코더 연주를 접하면 누구도 쉽게 그 매력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지난 2003년 첫 발을 내딛은 기장청소년리코더합주단은 이런 리코더 음악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왔다. 올해로 창단 11년째, 기장청소년리코더합주단은 리코더 연주단체로서는 오래된 역사만큼이나 수준높은 연주실력으로 유명하다. 지금까지 무대에 함께 섰던 연주단체만 꼽더라도 프랑스 파리나무십자가소년합창단을 비롯해 시카고 칠드런스콰이어, 모스크바소년소녀합창단, 빈소년합창단, 러시아 국립볼쇼이합창단, 유라시안챔버오케스트라, 모나코 왕립소년합창단 등 그 면모가 화려하기만 하다.

기장청소년리코더합주단은 현재 기장청소년리코더합주단 지휘를 맡고 있는 울산신정초등학교 교사 김지원 씨가 2002년 결성했던 기장초등학교 리코더합주단에서 출발했다. 이듬해 졸업을 앞둔 6학년 단원들이 합주단 활동을 계속 할 수 없게 되자 뜻을 같이하는 학생들, 학부모들과 함께 기장청소년리코더합주단을 새롭게 결성했다. 현재 기장청소년리코더합주단의 단원은 모두 95명, 기장 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매년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오디션을 통해 입단한 단원들은 수습, 예비단원을 거쳐 전문연주 단원으로 활동한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중학교 3학년들은 명예단원으로 활동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기장청소년리코더합주단을 거쳐간 명예단원만도 200여 명이 넘는다. 지금도 30여 명의 명예단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연습을 겸한 모임을 갖고 있다.

매주 토요일은 기장청소년리코더합주단 연습이 있는 날. 5년 전부터 기장군청의 도움을 받아 기장군청 강당에서 연습을 갖고 있다.

기장청소년리코더합주단 지도는 지휘자 김지원 씨를 비롯해 구포초등학교 교사 한경민 씨, 신도초등학교 교사 석은희 씨가 맡고 있다. 매주 토요일 기장군청으로 출근(?)해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결석없이 매주 참석하는 단원들의 열정에 절로 힘이 난다.

기장청소년리코더합주단의 오늘이 있기까지 '엄마부대' 운영위원회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단원들의 부모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기장청소년리코더합주단을 지탱하는 그야말로 든든한 버티목. 단원 모집에서부터 합주단 관리, 공연기획 및 추진까지 모든 일을 도맡아 한다. 단장을 맡고 있는 박승영 씨와 운영위원회의 이런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날 기장청소년리코더합주단의 이름이 더욱 빛날 수 있었다. 기장청소년리코더합주단은 매년 정기, 특별, 초청연주회 외에도 기장전국리코더페스티벌과 국제교류공연을 가져오고 있다. 올해로 5회를 맞는 기장전국리코더페스티벌은 기장청소년리코더합

주단이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리코더합주단의 교류를 통해 리코더의 저변확대와 리코더음악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올해는 7월 26일 차성아트홀에서 개최된다.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서로 음악으로 소통할 수 있는 국제교류공연 또한 기장청소년리코더합주단이 매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무대이다. 지난해 12월 대만 동문국민소학교에서 열렸던 대만문화교류음악회를 비롯해 그동안 일본 후쿠오카, 중국 상하이, 캄보디아 씨엠립 등에서 교류음악회를 가졌다. 이밖에도 기장청소년리코더합주단은 매년 여름,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해 전 단원이 참가하는 음악캠프를 갖는다. 음악캠프에는 합주단을 거쳐간 명예단원들도 함께 참여해 선배배간의 정을 나누며 연주실력을 쌓는다. 올해는 7월 24일부터 사흘간 여름캠프가 펼쳐진다.

현재 중앙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김소영은 장안초등학교 4년때부터 단원으로 활동해오고 있다. 리코더 외에도 피아노, 기타도 배우고 있는 소영이는 좋아하는 악기도 배우고 친구도 사귄 수 있어 합주단 활동이 즐겁다. 자신이 노력한 만큼 실력이 늘기에 리코더 연습이

하나도 힘들지 않다는 그는 학교에서 배우는 친구들의 리코더 소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자신만의 소리에 가끔은 어깨가 으쓱인다.

소영이와 함께 합주단에 가입한 장안중학교 2학년 신정민은 리코더 연주를 관람한 엄마의 권유로 가입했다. 교리초등학교 6학년인 동생 지민이도 2012년 입단해 지금 전문연주반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다. 정민이는 소프라노 리코더, 지민이는 베이스 리코더라 연습할 때 서로 도움이 된다는 정민이는 지난해 말이 통하지 않아도 서로 음악으로 소통했던 대만교류연주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기장초등학교 5학년인 오지영은 나이는 어리지만 기장청소년리코더합주단의 숨은 실력자이다. 초등학교 2학년 때 합주단에 입단, 수습단원을 거쳐 이듬해인 3학년 때 예비단원, 지난해 전문연주단원으로 승급하면서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그래서일까, 연습할 시간이 부족할 때 가장 속상하다는 지영이는 리코더 합주만의 매력도 충분히 있지만 다른 악기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무대도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문의 기장청소년리코더합주단 김영화
010-6768-5315, cafe.daum.net/gjrecor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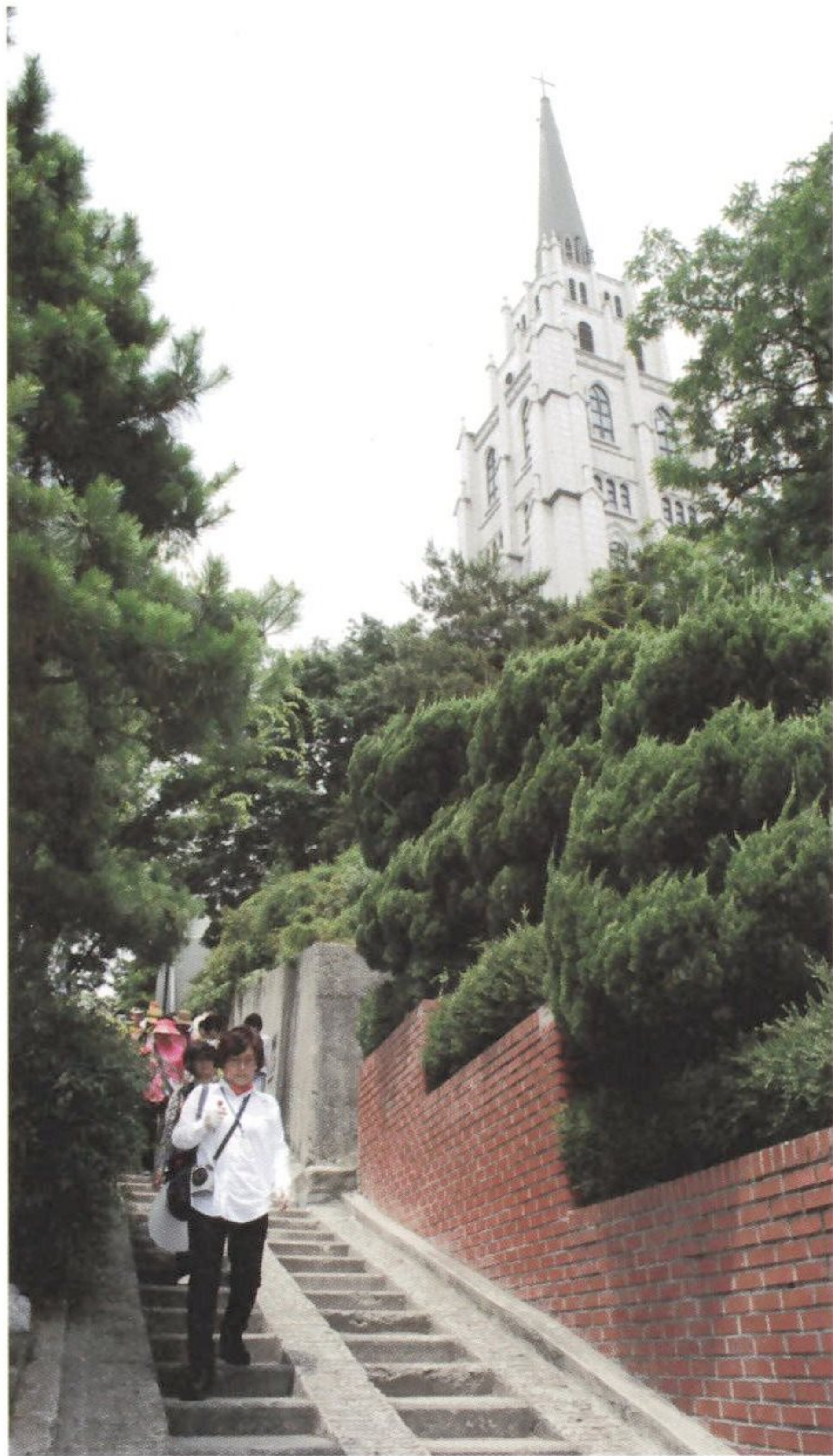
우리나라 근현대사 흔적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대구 근대문화골목 투어

싱그러운 초여름이 시작되는
6월의 둘째주 금요일인 6월 13일,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과 떠나는
98번째 테마여행이 펼쳐졌다.

6월의 테마여행지는 우리나라 근현대사 흔적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대구광역시. 그 중에서도 최근 대구의 대표적인 테마 관광상품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골목 투어'에 나섰다. 특히 대구 골목 투어는 지난 2012년 3월, 72번째 테마여행으로 진행되어 정기회원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번 테마여행 역시 다섯 개의 골목 투어 코스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제2코스 '근대문화 골목' 코스에 도전했다.



대구 근대문화 골목투어는 박태준의 동무생각의 무대가 된 '청리언덕'에서 부터 시작된다.



6월 테마여행에는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장용균, 김한별, 김수경 씨가 동행했다.

두 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곳은 바로 '근대문화골목' 코스의 첫 출발지인 청라언덕. '근대문화골목'은 청라언덕에서 진골목까지 이어지는 2km 가량 구간으로, 100여년 전 근대역사가 가장 잘 보존되어 있어 찾는 이들이 가장 많다. 이번 골목 투어를 이끌어줄 문화유산해설사 김경화 씨가 회원가족들을 반갑게 맞는다. 부산시립합창단 단원을 역임하기도 했던 김경화 해설사는 지난 골목 투어에서도 화려한 입담으로 회원들의 박수를 받았다.

청라언덕에는 1899년 문을 연 영남지역의 첫 서양 진료소인 제중원인 지금의 동산병원과 앞서 1898년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지어진 대구, 경북지역 최초의 교회인 제일교회, 그리고 선교사들이 살았던 3채의 선교사주택 등 100여년 전 근대역사의 흔적이 잘 보존되



어 있다. 그 정경 또한 아름다워 드라마 '사랑비', '각시탈', 영화 '오월의 신부' '모던보이' 등의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특히 푸를 청(靑), 담쟁이 라(蘿), '푸른 담쟁이로 덮힌 언덕'이라는 뜻의 청라언덕은 '봄의 교향악이 울려퍼지는 청라언덕 위에 백합 필적에~'로 시작하는 가곡 '동무생각'에 등장하는 바로 그 언덕으로, 1910년대 계성고교를 다녔던 작곡가 박태준이 당시 짝사랑했던 여고생을 생각하며 작곡한 곡으로 알려져 있다. 아련한 첫사랑의 추억을 떠올리는 가운데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장용균, 김한별, 김수경 씨가 부르는 '동무생각'이 청라언덕에 울려 퍼졌다.

이어 발길을 옮긴 곳은 인근에 자리한 '3·1만세운동길'. 90계단길이라고도 불리는 '3·1만세운동길'은 3·1운동 당시 만세운동을 준비하던 학생들이 일본군의 감시를 피해 몰래 지나다니면서 붙여진 이름으로 지금은 3·1운동 당시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골목길 벽에 부착되어 그날을 생생하게 증언해주고 있다.

'3·1만세운동길'에서 부산시립합창단 단원들의 작은 음악회가 다시 펼쳐졌다. '보리밭', '청산에 살리라', '강건너 봄이 오듯' 등 우리 가곡을 부르는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장용균, 김한별, 김수경 씨의 청아한 목소리에 길가던 대구시민들까지 잠시 멈춰서서 귀를 기울인다.

'3·1만세운동길'을 내려와 횡단보도를 건너면 서울 명동성당, 전주 전동성당과 함께 한국의 3대 성당으로 손꼽히는 계산성당을 만날 수 있다. 대구 최초의 서양식 건물로, 100



7월 당첨자

엽서 신청하신 분

김경희(부산진구 국악로)
남미선(서구 대신로)
박은희(부산진구 새싹로)
양혜련(북구 금곡대로)
윤선경(수영구 황령산로)
이무형(북구 모분재로)
이인옥(금정구 부산대학교로)
정기모(기장군 차성로)
진일남(부산진구 양정로)
하윤정(금정구 금샘로)

신규 가입하신 분

김귀삼(연제구 거제천로)
박상원(연제구 거제대로)
송수경(부산진구 중앙대로)
이윤용(사하구 낙동대로)
조민희(남구 유엔로)
채정호(수영구 남천동로)
최경재(남구 유엔로)
최정화(남구 유엔로)
황찬욱(금정구 금샘로)
홍정순(사상구 장인로)

년 전통을 자랑하는 계산성당은 故 김수환 추기경이 사제서품을 받은 곳이자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가 6·25전쟁 중이던 1950년 결혼식을 올린 곳으로도 유명하다. 계산성당을 나와 민족시인 이상화의 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가 새겨진 보도를 따라 가다보면 이상화 선생의 고택을 만날 수 있다. 이 곳은 1939년부터 임종때까지 약 4년간 머물며 작품활동을 했던 곳으로, 이상화 선생의 유품이 전시되고 있다. 이상화고택은 인근지역 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었지만 대구시민들이 고택보존운동본부를 만들어 지켜낸 대구시민의 자존심과 같은 곳이다. 바로 옆에는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을 주창한 서상돈 선생의 고택도 자리하고 있어 함께 둘러볼 수 있다.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서둘러 진골목으로 향했다. 경상도 방언 '질다'에서 유래해 '긴골목'이란 뜻을 가진 진골목은 인근 변화가와와는 다른 대구의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현존하는 대구 최초의 양옥건물인 '정소아과'와 이제는 전국적인 명소가 된 미도다방을 만날 수 있다. 점심식사를 마친 회원가족들은 삼삼오오 진골목을 둘러보거나 미도다방 쌍화차로 옛 추억을 만끽했다.

오후 일정은 약령시한의약박물관에서 시작했다. 약령시의 역사와 인근 약전골목의 유래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약령시한의약박물관은 지난 1985년 '한약재 상설전시관'으로 건립된 후 2009년 지금의 약령시한의약박물관으로 변모했다. 특히 약령시한의약박물관에서는 다양한 한의약 관련 전시품과 함께 한의약을 이용한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이날 회원가족들은 로즈워터와 황금추출물, 올리브리퀴드, 그레이프플룻, 트루라벤더를 이용한 한방미스트 만들기에 도전했다.

약령시한의약박물관 야외에 조성된 한방족욕탕에서 피로까지 말끔히 풀 정기회원 가족들은 아쉬움을 뒤로 하고 부산으로 향했다. 도심 속 골목길에서 만났던 우리나라 근대 역사의 현장. 면면히 이어오는 그곳처럼 대구 테마여행 역시 회원들의 가슴에 오랫동안 좋은 추억으로 기억될 것이다.

부산녹색지원센터와 함께하는 에코투어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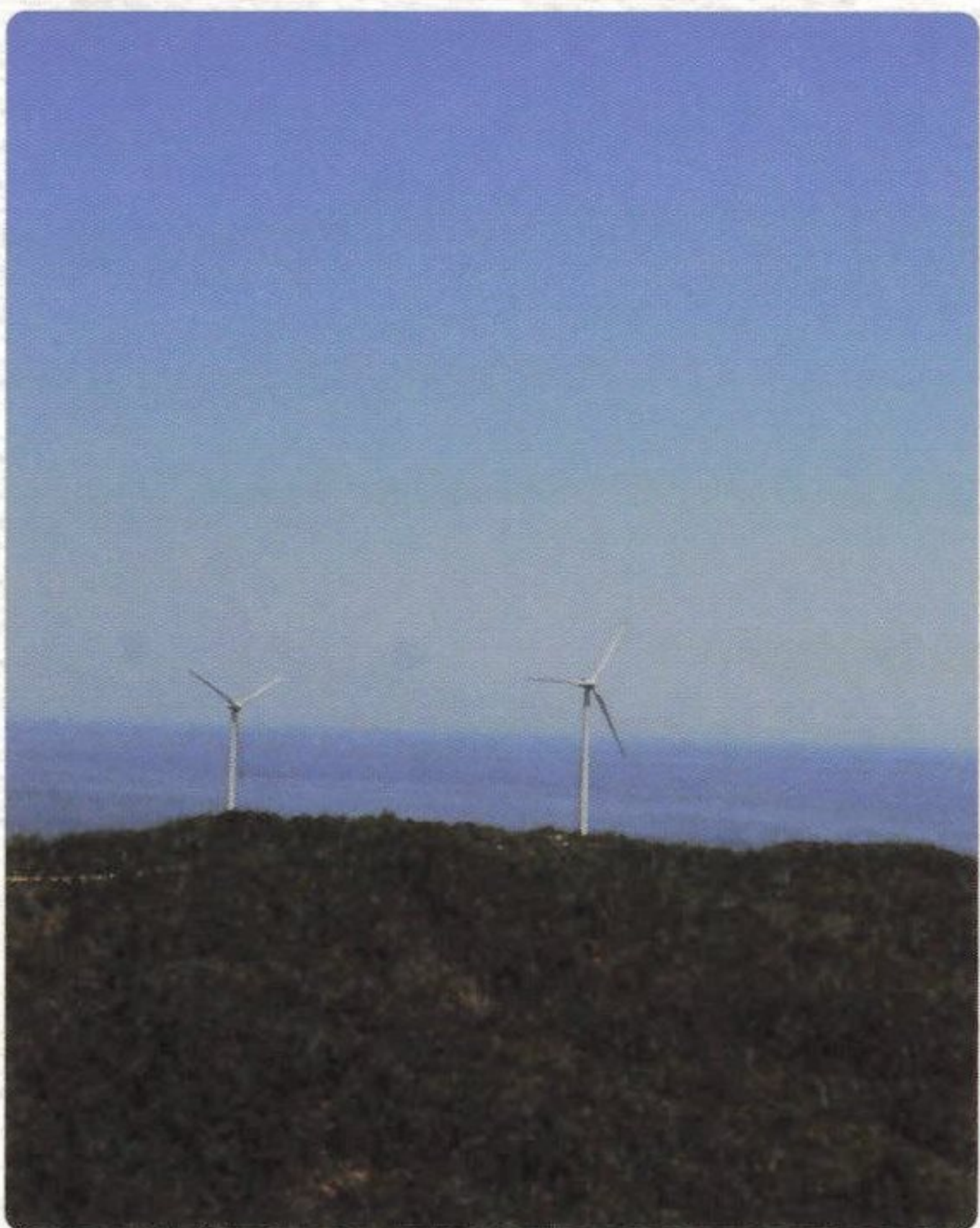
우포늪

8월 8일(금) 테마여행 100회 특집

자연의 보고 창녕 우포늪 자연생태교육

원시적 저층 늪이 그대로 간직된 우포늪, 약 2백31만㎡(70만여 평)에 이르는 천연 늪 속에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며 동식물의 천국을 이루고 있는 자연의 보고 우포 여행. 이른 아침 우포늪 독을 걸어보며 환경의 소중함, 위대한 자연의 가치를 함께 배워본다.

- 08:00 부산문화회관 집결
- 10:00 창녕 도착, 우포늪 생태탐방(수생식물 직접 만져보고 관찰하기, 모듬별 미션으로 풀어보는 나무 이야기, 벌레 타면서 늪에서 신나게 놀기)
- 12:30 중식
- 14:0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우포생태음악회
- 15:00 비화가야의 역사가 깃든 창녕박물관
- 16:00 부산으로 출발



영덕 블루로드길

9월 12일(금)

영덕 블루로드길에서 배우는 신재생 에너지

대부분의 에너지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현황을 배울 수 있는 영덕 블루로드길 여행. 영덕의 명물 풍력발전소는 바람이 많은 영덕 창포리 지역의 사계절 바람을 활용한 명소로 미래 대체에너지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곳. 영덕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블루로드길을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배워본다.

- 07:00 부산문화회관 집결
- 10:00 풍력발전소, 신재생에너지전시관, 해맞이공원
- 12:00 중식
- 13:0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14:00 죽도산 블루로드 다리, 죽도산 전망대, 어촌 체험
- 16:00 부산으로 출발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에 응모하세요!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를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로 보내주십시오.
당첨되신 회원은 동반 1인과 함께 여행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체험비는 회원 부담)

| 신청방법 | 엽 서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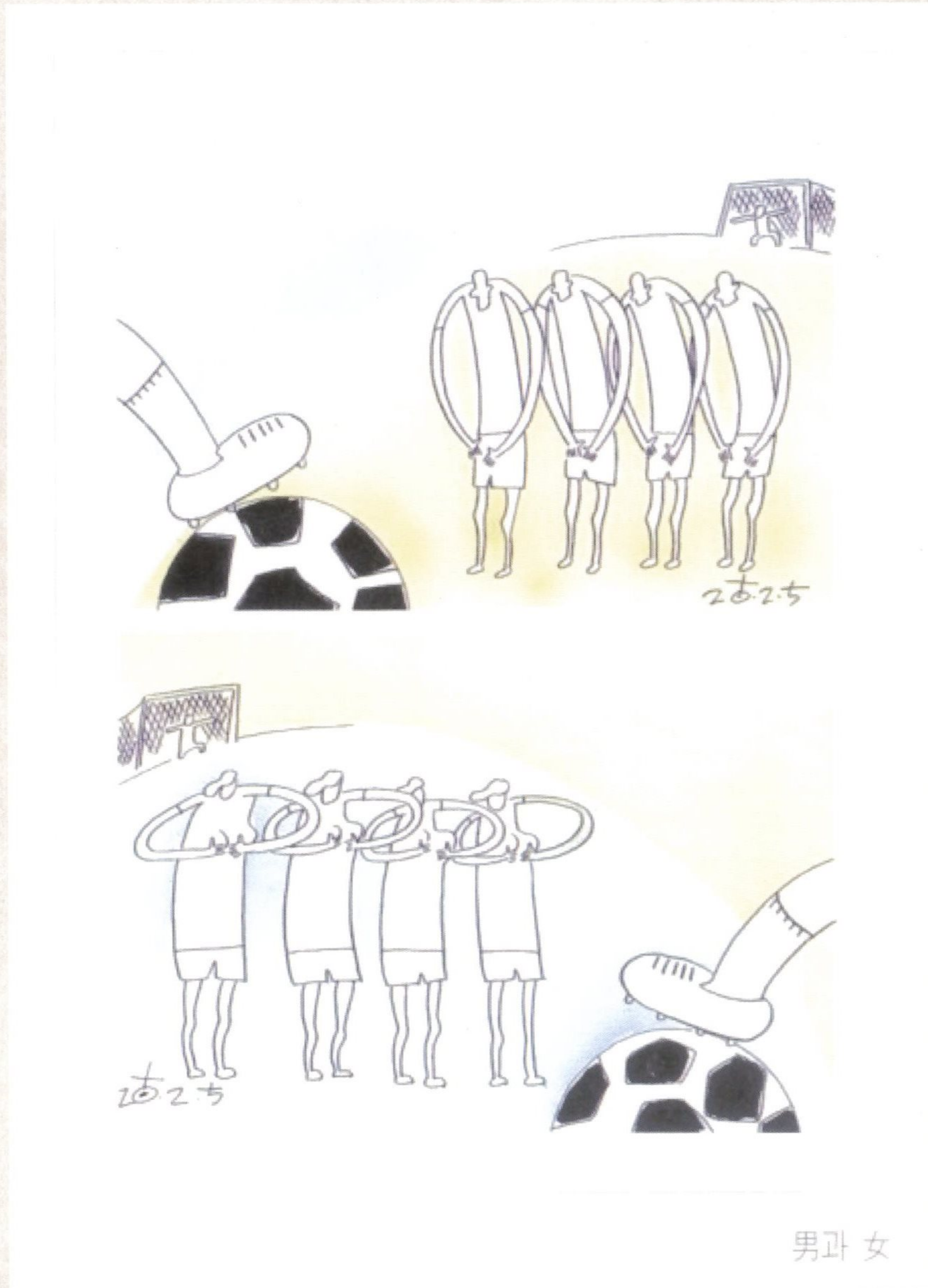
| 마감일자 | 7월 16일

| 문 의 |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607-3100)



남녀 월드컵

월드컵이 한창이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밤샘 응원을 하는 우리는 여전히 행복하다.



男과 女

Culture Life

부산시주요공연장안내

국립부산국악원 | 811-0040
금정문화회관 | 519-5651
동래문화회관 | 550-6611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 366-8114
부산문화회관 | 1607-6051~5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 309-4087
부산시민회관 | 630-5200
부산예술회관 | 612-1372
부산햇살가득한날에 | 1899-3253
영도문화예술회관 | 419-5571~3
영화의전당 | 780-6000
을숙도문화회관 | 220-5812~3
해운대문화회관 | 749-7651
가온아트홀 |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663-5363
공간소극장 | 611-8518
글로벌아트홀 | 505-5995
디코소극장 | 464-1996
레몬트리소극장 | 626-0116
무대공감 | 623-0678
무지크바움 | 070-7692-0747
미리내소극장 | 504-2544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 1544-1555
소극장 6번출구 | 625-2117
수아트홀 | 744-1415
숨사탕아트홀 | 922-4545
신명천지소극장 | 515-7314
아트카페 움 | 557-3369
액터스소극장 | 611-6616
에저또소극장 | 852-9161
열린아트홀 | 527-0123
용천지랄소극장 | 612-4312
일터소극장 | 635-5370
자유바다소극장 | 441-2733
차성아트홀 | 723-7203
청춘나비소극장 |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 621-4005
한결아트홀(구. 가마골소극장) | 1588-9155
AN아트홀 | 758-9035
BEXCO 오디토리움 | 740-7300
BS부산은행조은극장 | 1588-2757
KBS부산홀 | 620-7181
LIG아트홀 | 1544-3922
MBC롯데아트홀 | 1688-8998
SM아트홀 | 1600-1602

- 32 프리뷰
- 38 리뷰
- 40 프로그램 가이드
- 56 새로 나온 음반
- 57 새로 나온 책
- 58 스페셜 이벤트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02회 정기연주회 거장 유베르트 수당 초청 '명작, 러시아 II'



지휘 유베르트 수당



피아노 이브게니 이조토프

6월 라흐마니노프와 차이코프스키로 문을 연 부산시립교향악단의 '명작, 러시아' 시리즈의 두 번째 무대는 거장 유베르트 수당의 객원지휘로 러시아 음악의 향연을 펼친다.

이번 무대를 지휘하는 거장 유베르트 수당은 카리안 지휘 콩쿠르, 칸텔리 콩쿠르, 브장송 콩쿠르 등에서 입상한 세계적인 지휘자이다. 뮐러른 심포니의 수석 객원지휘자를 역임하고 2004년 10월부터 일본 도쿄 심포니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베르트 수당은 2006년 도쿄 신국립극장에서 지휘한 '티토 황제의 자비'로 그해 최고의 오페라 공연으로 찬사 받는데 이어 2008/09시즌에는 슈베르트 사이클을 연주, 2009년 일본 제21회 음악 팬클럽상에서 '일본 연주자 최고 연주상'을 수상하며 찬사를 받았다. 도쿄 심포니와의 브루크너 교향곡 7번 녹음은 제22회 음악 팬클럽상에서 '최고의 일본 연주자 음반'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유베르트 수당이 선택한 7월의 러시아 작곡가는 무소르그스키와 라흐마니노프, 립스키-코르사코프. 첫 무대를 장식하는 무소르그스키곡 '코반쉬나' 중 '서주:모스크바 강의 새벽'은 무소르그스키가 1872년과 1880년 사이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쓴 5막 6장의 오페라이다. 이번에 연주되는 립스키-코르사코프 편곡의 이 서주는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을 배경으로 한 제1막이 오르며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 모스크바 강의 아침이 밝아오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어지는 라흐마니노프 피아노협주곡 제2번은 2008년부터 신라대학교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예브게니 이조토프(Evgeny Izotov)가 들려준다. 예브게니 이조토프는 일본 다카사키예고 국제콩쿠르 1등상 및 특별상, 이탈리아 레이크코모 국제콩쿠르 1등상,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의 조지에네스쿠 국제콩쿠르 2등상, 포르투갈 세르난시엘리 국제콩쿠르와 프랑스 미쉬흐센느 국제콩쿠르에서 각 1등상을 수상하며 세계 음악계의 주목을 받았다. 예브게니 이조토프가 들려주는 라흐마니노프 피아노협주곡 제2

번은 20세기 최고의 피아노협주곡이라 불릴 만큼 널리 연주되고 있는 라흐마니노프 최대의 걸작이다. 전곡을 통해 흐르는 낭만적인 가락과 우울한 정서, 깊고 섬세한 선율로 가득한 악상들은 피아노 특유의 느낌과 기교를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게 한다.

마지막 곡인 립스키-코르사코프 교향적 모음곡 '세헤라자데'는 호화로운 멜로디와 흡잡을 데 없이 완벽한 색채감으로 오늘날까지 인기와 명성을 누리고 있다. 이 곡은 '아라비안 나이트'의 에피소드를 소재로 하고 있지만 음악 그 자체는 서사적 어법이 강하지 않고, 풍부한 선율과 화려한 음색으로 이국적인 분위기를 묘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일 시 | 7월 4일 금요일 오후 7:30

장 소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Preview

2014 부산무용제



부산 지역 춤꾼들이 펼치는 최고의 무용축제인 부산무용제 2014년 축제가 7월 7일부터 3일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화려한 춤 나래를 펼친다.

올해는 한국무용과 현대무용 2개 부분 4개팀이 참가, 9월 인천에서 열리는 전국무용제에 참가할 부산대표팀을 선발하기 위한 경연과 축하무대로 흥겨운 무대를 열어 준다.

7일 개막식에 이어 부산시립무용단의 축하공연 '천고'로 흥을 돋우고 첫 참가작 판댄스 씨어터의 허종원이 안무한 '발 없는 말'로 본격적인 경연이 시작된다. 제21회 부산무용제 우수상, 남자연기상을 수상하고 현재 판댄스씨어터 단원, 양산시립합창단 안무자로 활동하고 있는 허종원의 신작 '발 없는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세치 혀를 춤의 소재로 선택, 창검도 무색하게 하고, 다툼과 사랑도 맺어지게 하는 말을 감각적인 춤 언어로 표현해낸다.

다음날인 8일에는 현대무용단 주-□ 대표 최정화와 정신혜무용단 단원 박미향이 새로운 창작작품으로 경연에 도전한다. (주)경성청년문화예술원 이사 및 무용단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최정화는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고 인연을 맺고 끊고 표류를 반복 하는 섬을 통해 '나'를 반추해보는 'I,sland'로 무용애호가들과 만난다. 제27회 KBS부산무용콩쿠르 전통부문 은상, 제28회 KBS부산무용콩쿠르 창작부문 금상을 수상한 정신혜무용단 단원 박미향은 숨길 수 없는 감정의 표상인 눈을 춤언어로 풀어낸 '굴절·N'으로 2014년 부산무용제에 도전한다.

마지막 날인 9일은 제28회 KBS부산무용콩쿠르 '대상'을 수상한 바 있는 현대무용단 자유단원 조현배의 창작 작품 '직사광선을 피하고 얼지 않도록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관심'이 무대에 오른다. 서울발레시어터 단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조현배

는 우리는 지금 몇 도의 관심을 받고, 몇 도의 관심일 때 따뜻함과 추위를 느낄 것인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춤으로 담아낸다.

시상식에 앞서 마지막 축하무대는 2013년 대상팀 축하공연으로 M-note 'برا보다'(안무/신승민)가, 폐막축하공연으로 '부산시민대동춤'이 무대에 올라 3일간의 열기를 식혀준다.

일 시 | 7월 7일 월요일-9일 수요일 오후 7:30
장 소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학생 5천원
문 의 | 부산무용협회(632-5116)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74회 정기연주회

풍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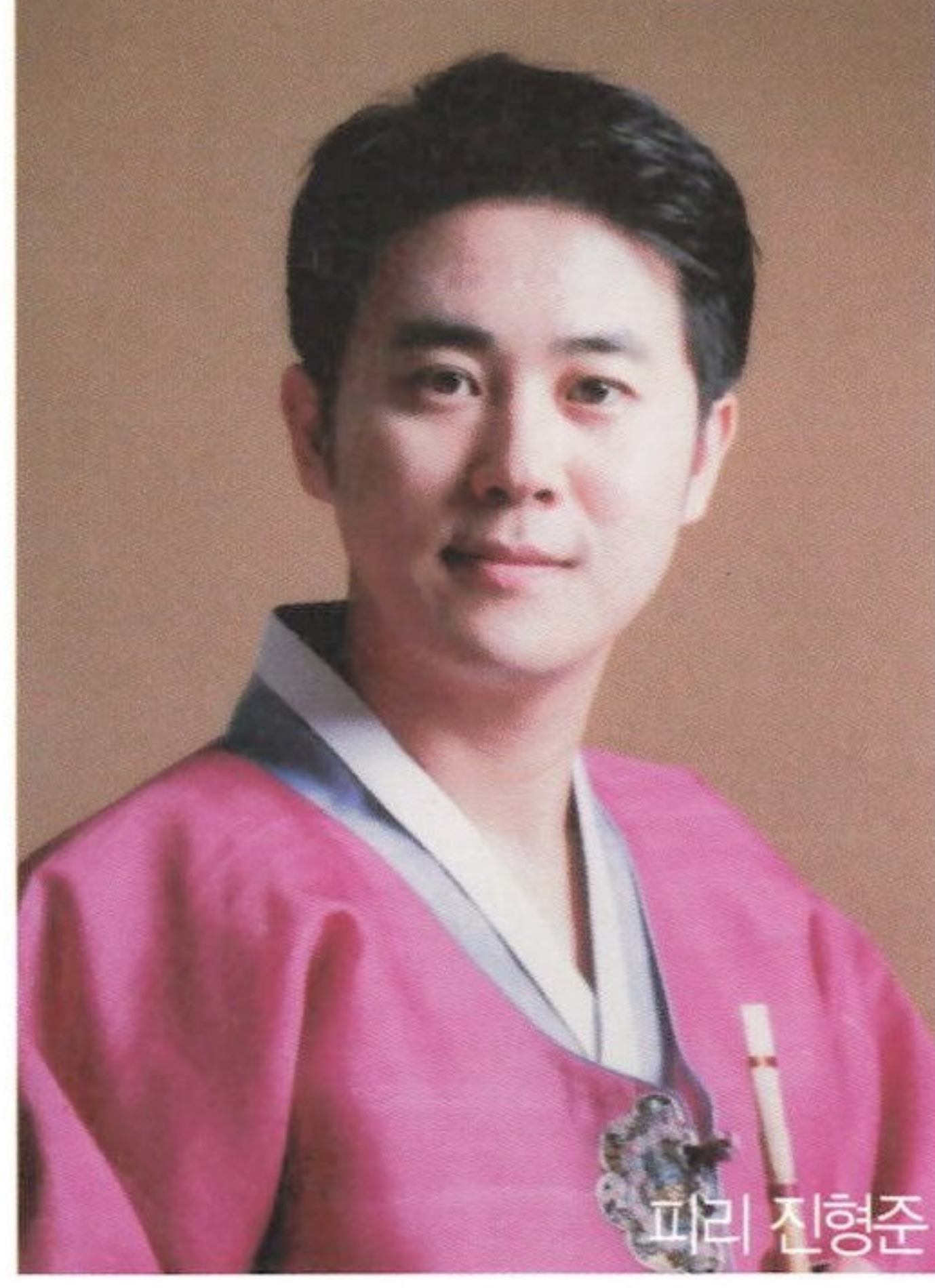
객원지휘 노부영



가야금 이슬기



생황 강효선



피리 진형준

1984년 시립단체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창단, 지난 30년간 우리 음악의 전승, 보급과 함께 현대적인 창작 국악관현악을 선사해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창단 30주년 기념 연주회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바쁜 연주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7월은 강원도립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를 역임한 노부영의 객원지휘로 싱그러운 여름을 담은 선율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다시 만난다. 이번 무대는 가야금병창 및 산조이수자 이슬기의 25현 가야금, 피리정악 및 대취타 이수자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강효선의 생황,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TODA 동인 진형준의 피리 협연으로 우리 악기의 새로운 매력을 담은 특별한 무대를 열어준다.

객원지휘자 노부영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1987년부터 국립국악원에서 대금연주가, 작곡가로 활동했다. 현대적 해석에 탁월해 지휘로 영역을 넓힌 노부영은 그동안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상임지휘자와 강원도립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를 역임하면서 연주자들의 기량을 이끌어 내는 능력을 가진 지휘자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무대에서 노부영 지휘자가 선곡한 레퍼토리는 조원행 국악관현악 '대지'와 이상규 피리협주곡 '자진한잎', 이진용 25현 가야금협주곡 '한오백년', 이준호 생황협주곡 '풍향', 원일 국악관현악 '천장'. 특히 조원행 '대지'와 원일 '천장'은 부산초연 무대로 기대가 크다.

첫 무대는 국악관현악 '대지'로 연다. 이 곡은 인간의 젖줄인 소중한 대지 위에서 즐거움과 슬픔, 때론 지키기 위한 선조들의 숭고한 희생을 생각하며 세 개의 악장으로 표현한 곡으로 2005년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연주회에서 초연되었다. 이어지는 무대는 정악피리의 대표곡 중 하나인 자진한잎을 협주곡의 형태로 옮긴 이상규 곡 피리협주곡 '자진한잎'과 이진용 곡 25현 가야금협주곡 '한오백년'. 25현가야금을 들

려줄 이슬기는 국립국악원 주최 전국국악경연대회 일반부 대통령상 수상과 KBS 국악대상 현악부문을 수상하고 가야금병창 및 산조 이수자, 아시아금교류회, 죽파가야금산조보존회 회원으로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이번 연주회의 메인타이틀 곡인 이준호 생황협주곡 '풍향'은 반복되는 그 바람의 향기를 느끼면서 24개의 죽관에서 뿜어나오는 소리의 조화, 자연 친화적인 악기들과 대화가 애기꽃을 피우는 듯한 리듬을 느끼게 해주는 3악장의 작품이다. 마지막 곡인 원일의 국악관현악 천장은 티벳의 정신이 담긴 죽음의 의식 '천장'을 담은 처절하고도 장엄한 사진집의 이미지들을 국악관현악의 음향에 담은 작품이다.

일 시 | 7월 16일 수요일 오후 7:30

장 소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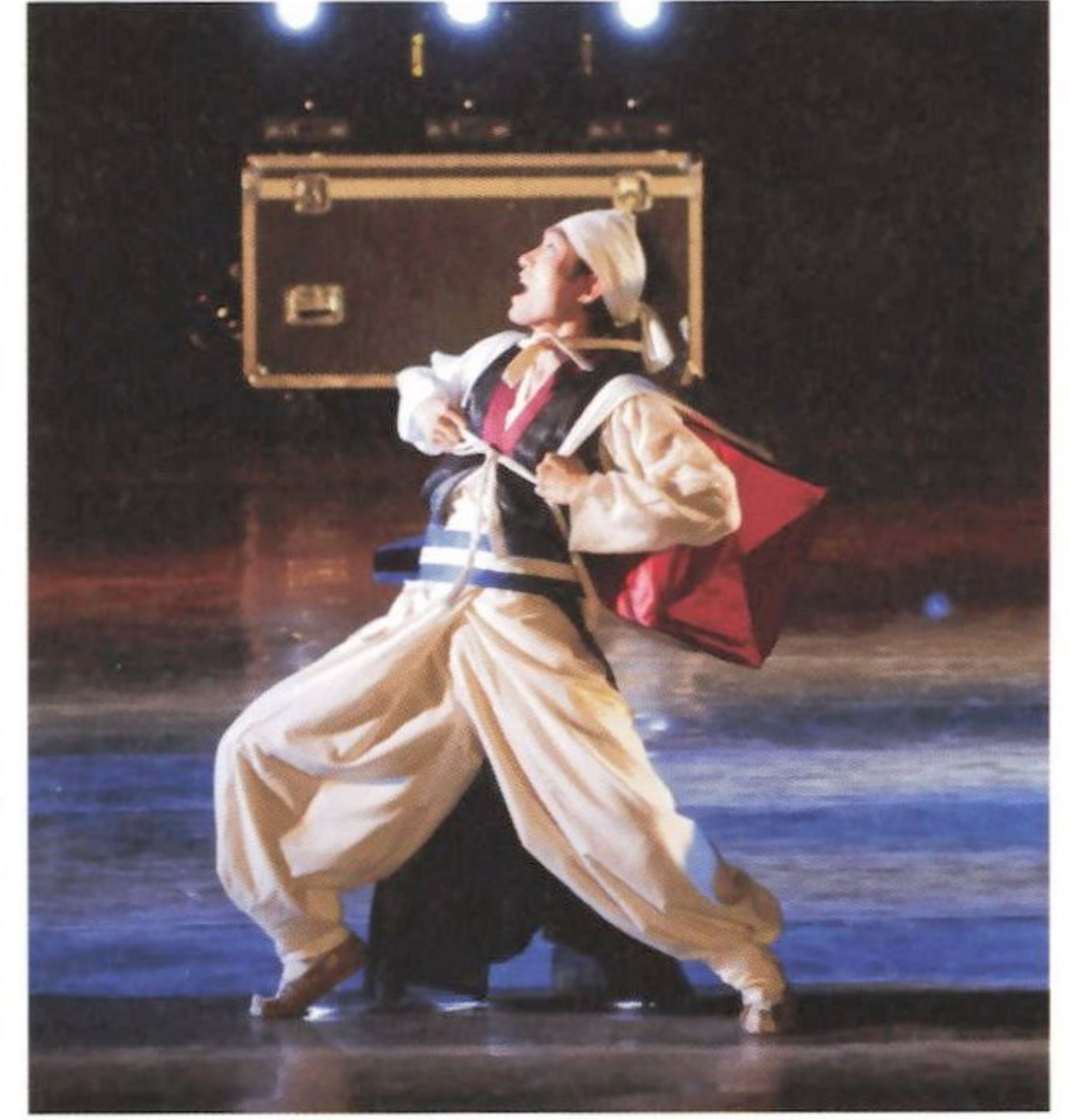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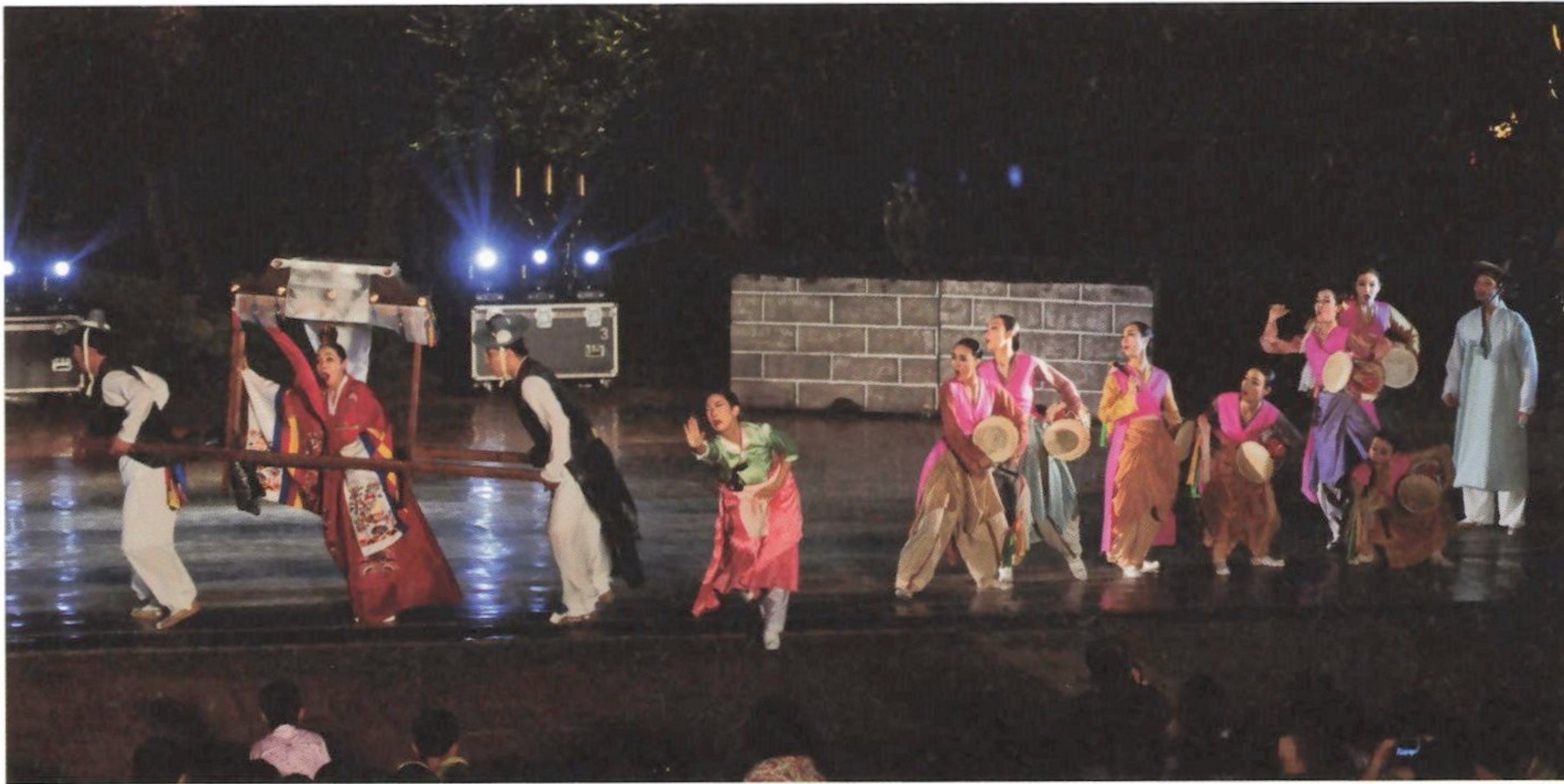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3)

Preview

2014 부산시립무용단 여름마당춤판

7월의 크리스마스-클라라와 호두이야기



2003년부터 한국의 전통적인 소재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해 해학과 신명, 감동이 살아있는 흥겨운 여름마당춤판을 선보여온 부산시립무용단이 2014년 새로운 작품으로 뜨거운 여름의 추억을 선사한다.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작품은 '7월의 크리스마스-클라라와 호두이야기'. '7월의 크리스마스-클라라와 호두이야기'는 그동안 우리 전통 설화에 재미를 더한 기존의 작품과 달리 동양과 서양의 스토리를 재미있게 구성한 새로운 형식의 작품으로 세계적인 명작 발레 '호두까기인형'이 모티브다.

마당춤판을 이끌어갈 주요 등장인물은 컴퓨터에 빠져 가족과 함께 해야 할 크리스마스의 의미도 외면한 채 모니터에만 얼굴을 파묻고 있는 클라라와 컴퓨터 게임 속 캐릭터 호두까기인형. 가족들이 모두 잠자리로 돌아간 크리스마스 이브날밤 어두운 거실에서 클라라는 밤이 깊은 것도 모르고 모니터 속 세상을 헤매다 우연히 게임 속 호두까기 인형 캐릭터를 만나면서 낯선 사이버 세상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다. 호두까기 인형에 의해 휩쓸려 들어가게 된 사이버 세상 속에서 소녀는 다양한 미디어 전래동화 캐릭터들을 만나게 된다.

클라라는 태어난지 7일 만에 어머니를 여의고, 눈먼 아버지 심봉사를 위해 공양미 삼백석에 자신의 몸을 팔아 인당수에 몸을 던진 효녀심청과 말 안 듣는 청개구리, 흑부리영감 등 호두까기 인형이 안내한 전래동화 캐릭터들의 사연을 직접 체험하거나 다양한 이야기 상황을 겪으면서 가족의 의미와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짧은 여행 뒤 찾아오는 이별, 클라라는 사이버 공간에서 만난 호두까기인형과 이별을 하게 된다. 호두까기인형과의 여행을 통해 클라라는 비록 컴퓨터가 새롭고 신비한 즐거움을 주기는 하지만 가족 간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드는 하나의 장벽이었음을 인

정하게 된다.

크리스마스날 아침, 컴퓨터 세상에서 현실로 돌아온 소녀는 그 동안 소원했던 가족들과 다시금 따뜻한 사랑을 확인하고 많은 사람들의 기쁨 속에서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된다.

지난해 해학과 유쾌한 군무로 더위를 날려준 '구렁덩덩 신선비'를 선보인 부산시립무용단 홍경희 예술감독이 대본과 안무를, 단원 장래훈이 연출을 맡아 2014년 여름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일 시 | 7월 17일 목요일-18일 금요일 오후 8:00
장 소 | 부산문화회관 야외공연장
입장료 | 무료(우천시 중극장)
문 의 | 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제9회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발칙하게 생각하고, 당차게 말하며, 영상을 통해 거침없이 표현하는 전 세계 어린이들의 영화축제 '제9회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BIKI)'가 7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영화의전당과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부산디자인센터에서 펼쳐진다.

올해로 9회를 맞는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는 어린이가 만드는 국내 유일의 어린이 영화제로, 그동안 어린이들이 영상을 통해 소통하고 스스로 주체가 되어 만들어가는 참여형 영상문화축제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이번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는 '동화랑, 영화랑(Your Dreams on the Shelf)'이라는 주제로 전세계 70여 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재미있는 영화이야기가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져왔던 동화나 소설에서 나왔다는 것을 어린이들에게 알리기 위한 자리로, 동화나 소설에서 영상으로 옮겨진 작품들을 상영할 예정이다.

올해 영화제는 어린이들을 새로운 감성의 세계로 안내할 큰나라모음(장편초청작)과 기발한 상상력과 참신함이 돋보이는 작은나라 모음(단편초청작),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직접 제작한 영화를 상영하는 '레디~액션!' 등 3개의 섹션별로 구성되어 있다. 상영작 중 가장 기대를 모으는 작품은 '피들스틱스(Fiddlesticks)'와 '더포트(Killa The Fort)'. 독일 감독 바이트 헬머의 '피들스틱스'은 알록달록 어린이 모험 영화으로, 칸영화제에서 선보인 바 있다. 제64회 베를린국제영화제 수상작인 '더포트'는 주인공 소년 치누(Chinu)가 아버지의 죽음 이후 시골로 이사오면서 적응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으로, 한 소년의 인생에서 어려운 시기를 잘 묘사한 영화이다.

올해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는 상영되는 영화만큼이나 어린이 참여프로그램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어린이가 직접 참여하는 영상제작 프로그램인 '하루만에 영화 만들기! -시네마 스포츠', 영화 속 인상적인 장면을 역할극, 가면극을 통해 표현

이로 재현해보는 '필름앤편', 실제 성우가 되어 목소리 연기를 하고, 그 영상을 직접 관람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더빙체험 프로그램 '나도 성우다!' 등이 부대행사로 펼쳐진다.

또한, 제9회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슬로건인 '동화랑, 영화랑'주제로 진행된 포스터 공모전에서는 당선된 20점을 재구성, 올해 영화제 공식 포스터로 제작했으며, 출품된 작품 620여 점은 영화제 기간동안 부산디자인센터에서 전시된다. 이밖에 영화제 전야제 행사로 부산메트로폴리탄팝스오케스트라가 진행하는 '애니메이션 음악회'가 7월 22일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펼쳐진다.

일 시 | 7월 23일 수요일-27일 일요일
장 소 | 영화의전당,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부산디자인센터
문 의 |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사무국
(743-7652, www.biki.or.kr)

Preview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2014 웰빙콘서트시리즈 '11시에 만나요!'

오페라 하이라이트 III - 코지 판 투테



저녁 시간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청중들을 위한 한낮의 음악선물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 기획연주회 웰빙콘서트 시리즈 '11시에 만나요!' 오페라 하이라이트 2014년의 세 번째 무대 '코지 판 투테'가 8월 1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오페라 '코지 판 투테(Cosi fan tutte)'는 모차르트가 로렌초 다 폰테(Lorenzo Da Ponte)의 대본을 바탕으로 1790년 발표한 오페라 부파이다. 오페라 제목인 '코지 판 투테'는 이탈리아어로 '여자란 모두 똑같이 행동한다'는 의미로, 우리나라에서는 '여자는 다 그래'라는 제목으로 공연되고 있다.

이야기의 배경은 18세기 후반, 이탈리아 나폴리. 자매간인 피오르달리지와 도라벨라는 젊은 장교 굴리엘모, 페란도와 약혼한 사이이다. 굴리엘모와 페란도가 나이트 철학자 친구 돈 알폰소 앞에서 자기 약혼녀의 미모와 정숙함을 자랑하자 돈 알폰소가 '여자들의 신의란 믿을 게 못된다'며 내기를 제안하면서 예측불허의 내기가 진행되는 희극 오페라이다.

이동신 지휘자의 해설, 오페라뮤지컬 연출자로 활동 중인 유철우의 연출로 오페라를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이번 무대는 오페라 세트를 최소화해 음악중심으로 감상할 수 있다. 이번 무대를 위해 소프라노 김현애, 신민원, 김혜영, 테너 김기태, 베이스 박상진, 양재원이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서울대학교 성악과와 독일 베를린 Hanns Eisler 국립음대에서 음악수업을 하고 귀국, 현재 울산현대오페라단 음악감독으로 있는 소프라노 김현애가 피오르달리지 역을, 서울대학교 성악과와 미국 맨해튼음대 석사 및 전문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뉴욕타임즈로부터 '미래가 기대되는 젊은 소프라노'라는 호평을 받은 소프라노 신민원이 도라벨라 역을, 동아대학교 음악과와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글린카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국립오페라발레극장 상임 솔로이스트로 활동한 바 있는 베이스 박상진이 굴리엘모역을, 경북대학교 음악과와 독일 쾰른-부퍼탈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벨리시모 오페라앙상블 단원, 대구 독일가곡 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테너 김기태가 페란도역을, 고신대학교 교회음악과와 독일 데트몰트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 및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크레펠트 뮌헨글라트바흐 시립극장 정단원으로 있는 베이스 양재원이 돈 알폰소역을, 계명대학교 성악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우봉아트홀 주최 콩쿠르에서 금상을 수상한 소프라노 김혜영이 하녀역을 맡아 열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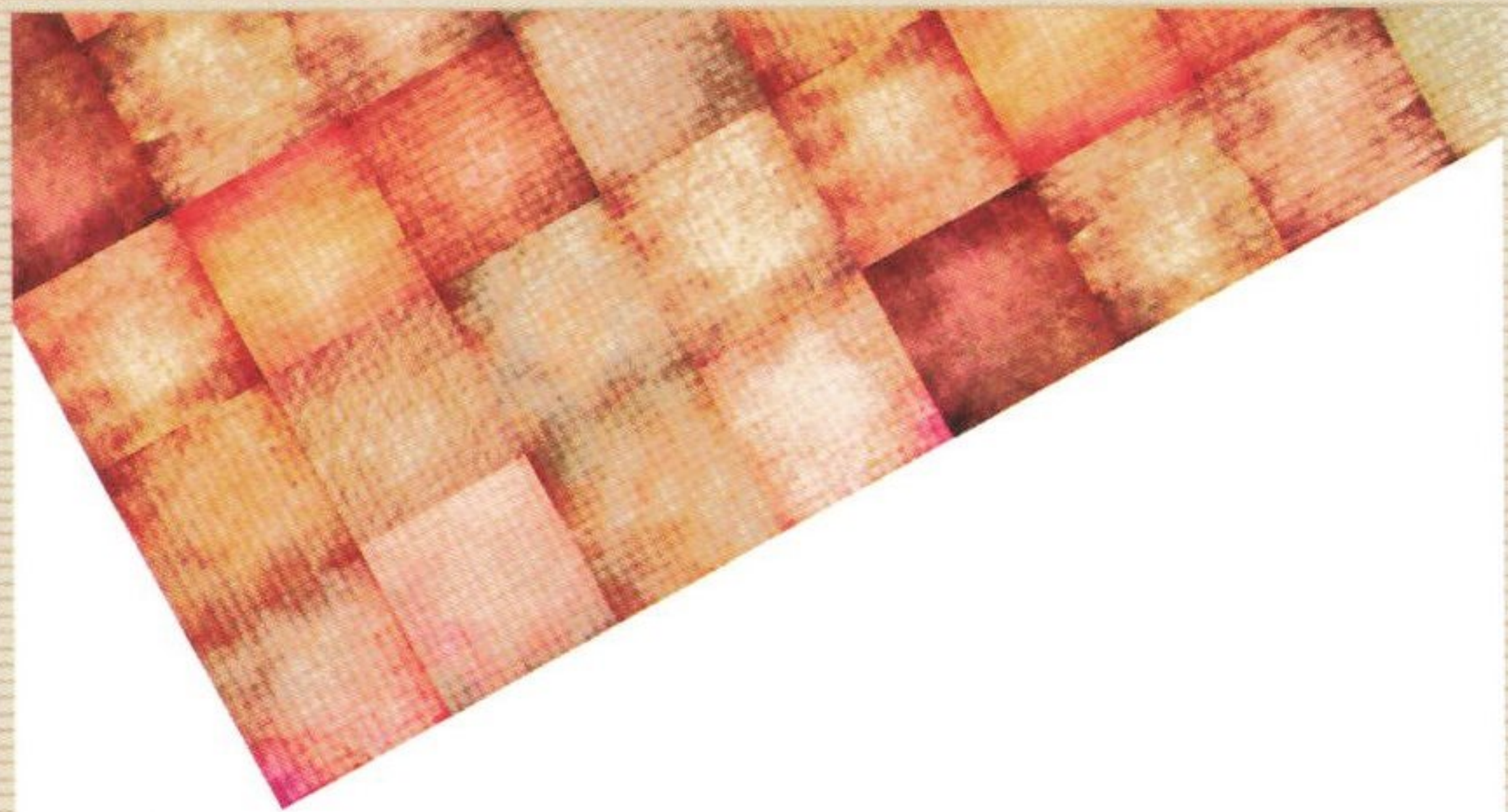
일 시 | 8월 1일 금요일 오전 11:00

장 소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모차르트를 가진 비엔나 챔버 오케스트라

음악평론가 신설령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을 향하면서 모차르트를 가진 <비엔나 챔버 오케스트라>를 부러워했다. 모차르트 나이 10대 중반에 작곡한 디베르티멘토부터 그의 말년에 작곡한 교향곡 41번까지 그 삶의 궤적을 따라가며 음악을 듣는 것도 특별한 음악적 경험이겠다. 모차르트가 잘츠부르크 시절 썼던 <디베르티멘토> D장조의 시작은 경쾌하고 유려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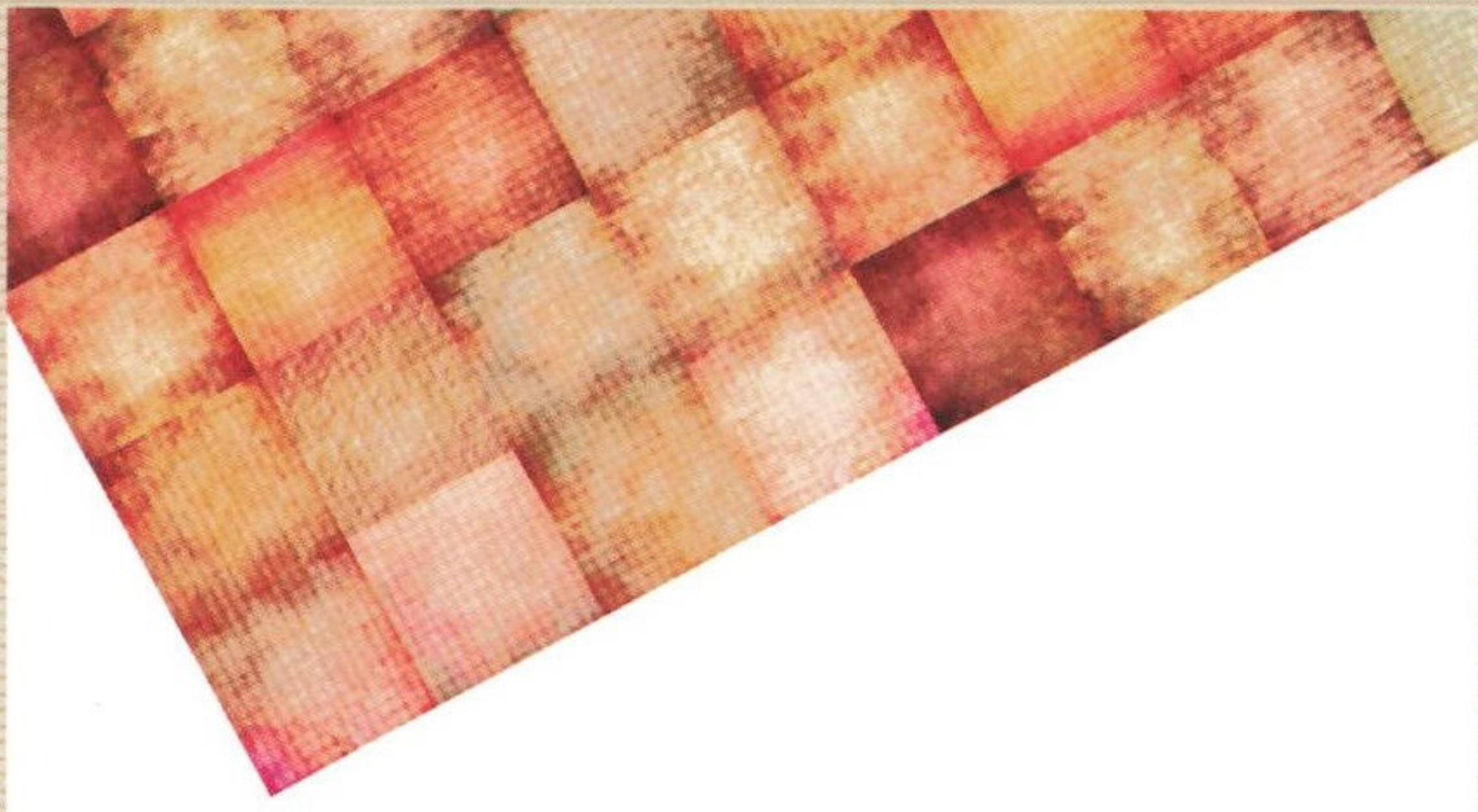
2악장으로 넘어가니 현악 주자들은 비단결 같은 음색으로 격조 높은 아름다움을 뽐낸다. 3악장은 재기 발랄함으로 가득하다. <비엔나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는 모차르트 곡을 가장 잘 연주할 수 있고, 모차르트 음악 특유의 음색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음을 증명하듯 하다.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신포니아 콘체르탄테>는 클라라 주미 강과 리처드 용재 오닐이 협연자로 나섰다. 바이올린 연주자 클라라 주미 강은 모차르트 음악에 딱 맞춘 듯 가볍고 예쁜 음색으로 날렵하게 연주한다. 거기에 덧붙여 비올라는 연주곡의 무게 중심도 잡아주고, 감정도 팍팍 잡아주며 포르르 날아가는 새를 감싸듯이 연주한다. 모차르트는 이 곡을 20대 초반에 썼으나 인생을 압축하여 살려고 걱정했는지 더욱 깊어진 음악성과 보다 커진 규모의 악기편성에 풍부해진 음량으로 음악을 이끌고, 바이올린 연주자는 선율을 타고, 리듬을 타고 온 몸으로 모차르트를 노래한다. 카덴짜 부분에서는 두 연주자가 마치 오페라에서 두 주인공이 절묘한 호흡으로 2중창을 노래하듯 하다. 2악장에서 슬픔인 듯, 안타까움인 듯 빛어내는 아름다운 노래는 모차르트의 것일까? 아니면 연주자들 내면의 것일까? 음악학자 아도르노는 20세기를 바라보며 더 이상 달콤한 멜로디의 음악은 낯설다며 평가절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예술의 목적 중 하나는 치유라고 보았던 알랭 드 보통의 시각은 모차르트의 이 곡을 들으며 수긍하게 된다. <비엔나 챔버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모차르트를 들으려 했는데 클라라 주미 강과 리처드 용재 오닐의 연주에 흠뻑 빠져들고, 그렇게 연주하는 이들이 예쁘고 자랑스러워 어느새 <비엔나 챔버 오케스트라>를 들러리로 보게 된다.

휴식 후의 곡은 임동혁이 협연하는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0번>이다. 모차르트 나이 29세 즈음에 쓴 곡이다. 1악장은 어둡고 격렬하다. 왜 그럴까? 모차르트는 이보다 앞의 피아노 협주곡을 쓰면서 청중의 반응을 고려하면서 곡을 쓴다고 편지에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 곡은 피아노 협주곡 19번과는 전혀 다른 양식의 곡이다. 청중보다 자기 내면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면서 쓴 곡일까? 임동혁의 다양한 표현이 돋보인다. 어둡고 격렬한 1악장을 지나가며 카덴짜에 이르면 한없이 투명하고 아름다우며 우수어린 장면을 연출하지만 곧 이어 다시 격렬한 음악으로 변화시켜 나간다. 이젠 그들의 모차르트가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의 모차르트로 보게 된다.

마지막 곡은 교향곡 41번 주피터. 모차르트는 이 곡에서 이제까지의 음악과는 다른, 18세기를 뛰어 넘어 19세기를 향하는 음악어법을 보여준다. 때로는 웅장하게, 때로는 현악기들이 긴밀하게 서로 대화하듯 섬세하게, 그렇게 모차르트는 기악에 의미를 불어넣고 있었고 <비엔나 챔버 오케스트라>는 그 의미를 풀어내고 있었다. 지휘자 슈테판 블라더는 이 곡이야말로 가장 익숙한 곡인 것처럼 암보로 세밀하게 모차르트의 음악, 그리고 그들의 음악을 불러내었다.

Review



정도전, 이상 국가를 꿈꾸었던 의회민주주의자

부경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남인용

〈정도전〉은 KBS 1 텔레비전에서 방송된 50부작의 주말 연속극이다. 주인공 정도전은 조선의 건국이라는 대업을 이루기 위해 이성계를 주군으로 모시고 이인임, 최영, 정몽주 등의 반대 세력을 제거한다. 조선 건국 후, 신하가 정치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정치체제를 주장하다 왕권 강화를 앞세우는 이방원에 의해 죽음을 맞게 되는 정도전의 일대기는 현재의 정치상황에도 커다란 시사점을 제시한다.



드라마의 제목이 〈정도전〉이지만, 전체 50부작 중에서 초반부는 고려 말기의 정치를 주도하는 이인임이, 중반부는 고려의 패망과 조선의 건국을 저지하려는 정몽주가, 종반부는 조선의 통치 방향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갖는 이성계와 이방원이 주인공이라고 여겨질 만큼 정도전의 중심 역할은 부족한 편이었다. 정도전은 다른 배역의 역할을 부각시키는 보조적인 존재로 그려지며, 이인임, 정몽주, 이성계, 이방원의 강렬한 인상이 극을 지배해왔다.

사극 〈정도전〉에서 정도전이 꿈꾸었던 세상은 미약하나마 의회민주주의가 구현된 세상이었다. 동양이 서양에 뒤처져 있었다거나 한국 사람은 안 된다는 비하적인 견해에 반기를 드는 정도전의 이상 국가가 조선시대 내내 우리 정치 체제의 이정표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상기하면, 상대적으로 왜소해 보이는 정도전의 입지는 타인과 상호 교감하면서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는 정치의 본질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임금이나 대통령과 같은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을 다루는 대표적인 드라마로 7시즌 동안 방송된 미국 드라마 시리즈 〈웨스트 윙〉을 들 수 있다. 〈웨스트 윙〉에서 조사이아 바틀렛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선 후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는 리오 맥게리는 조사이아 바틀렛을 대통령 후보로 영입할 의사를 전하면서 '선한 사람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자신의 친구가 선한 사람이며, 이제까지의 대통령들은 선한 사람이 아니었으며, 자신의 친구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선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정도전은 이성계에게 임금의 역할을 '듣는 것이다, 참는 것이다, 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웨스트 윙〉에서 말하는 선한 대통령이란 바로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존중하며 상대방의 단점을 포용하여 자신과 하나가 될 수 있게 하는 대통령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동서양의 리더십에 대한 견해는 크게 다르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을 오랜 세월을 걸쳐 익혀온 문명국이라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서구의 의회민주주의 제도를 빌려와서 적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의회민주주의를 구현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점을 〈정도전〉은 보여준다.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더라도 구성원들은 각자 맡은 일을 하면서 평온하게 살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 짐 콜린스는 리더의 두드러진 활약 덕분에 구성원들이 행복해진 것으로 보이는 수많은 조직들 중 상당수는 그 리더가 조직을 떠난 후에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뛰어난 리더가 조직을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떠난 리더가 조직을 운영할 때 그 조직의 영속적인 발전을 가져올 적합한 제도를 마련해 두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리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과장된 몸짓의 할리우드 액션에 속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진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 거대한 뿌리를 갖고 존재한다. 우리의 역사 드라마는 거대한 뿌리를 진지하게 조명하여 갈수록 살기 어려워져가는 우리 사회에 어떤 리더가 필요한지에 대한 해답을 명쾌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프로그램
가이드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4 부산 ITU 전국회의 성공개최 D-100 행사기념
오페라 갈라 콘서트
금난새와 떠나는 오페라 여행 I
'라 트라비아타'

일 시 | 7월 1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부산문화회관 607-6058

클래식은 어렵다, 오페라는 어렵다는 초보들을 위한 친절함 클래식 음악회 금난새와 떠나는 오페라 여행 I '라 트라비아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으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는 어렵다고 느끼는 오페라에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지휘자 금난새가 재미있고 친절한 작품 해설로 오페라의 세계로 안내하는 특별 기획 프로그램으로 세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

비아타'와 푸치니 오페라 '라 보엠'을 7월과 11월에 차례로 선보인다.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는 파리 사교계에 빛나는 무희 비올레타와 프로방스 출신인 귀족 청년 알프레도와의 비극적인 사랑을 그린 것으로 알렉산더 뒤마의 아들이 쓴 '춘희'를 원작으로 하고 있다.

이번 오페라 여행에서는 지휘자 금난새가 이끄는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소프라노 서활란, 테너 이재욱, 바리톤 박정섭 등 유명 성악가들과 함께 작품의 줄거리를 따라가며 주요 연주곡과 아리아를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베르디/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전주곡, 축배의 노래, 아! 그이인가, 지난 나날들이여 안녕, 피날레
비제/오페라 '카르멘'-투우사의 노래, 꽃노래
구노/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줄리엣의 왈츠
로시니/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나는야 이 거리
의 해결사



제8회 테너 주종식, 바리톤 최성규
Duo Concreto

일 시 | 7월 1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최성규 010-3564-3439

경성대학교 동문으로 함께해 온 음악 친구 주종식, 최성규가 들려주는 Duo Concreto. 테너 주종식은 현재 워싱턴 감리교회 음악감독, 워싱턴 내셔널 오페라단 단원으로, 바리톤 최성규는 부산시립합창단 단원으로 활동하며 교류 연주를 이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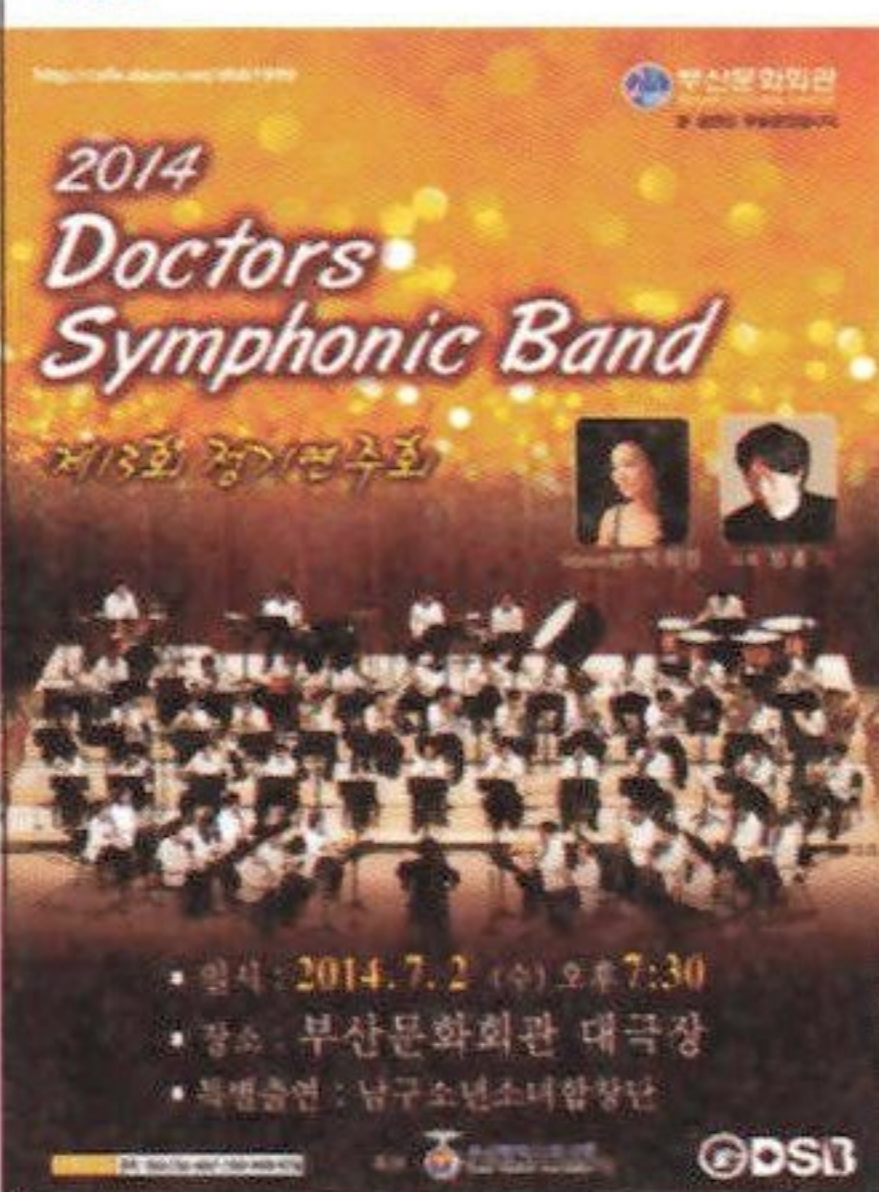
[프로그램]

Musica proibita, Occhi di fata, Parlami d'amore mariu, 강건너 봄이 오듯이, Aria 'La dolcissima effige' from Adriana Lecouvreur
Du bist dei Ruh, Ganymed 등 수곡
• 피아노/이승윤 • 해설/오동주



닥터스심포닉밴드
제13회 정기연주회

일 시 | 7월 2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정흥기 010-2561-6047



1999년 음악을 좋아하는 부산지역 의사들로 출발한 닥터스심포닉밴드의 제13회 정기연주회.

닥터스심포닉밴드는 2000년 대동밴드 발표회에 찬조 출연한 것을 시작으로 온천천 환경문화축제 초청연주, 자갈치 축제, 부산대학교 병원 환자를 위한 초청음악회, 부산어머니오케스트라 정기공연 등 부산 지역의 크고 작은 다양한 무대에서 음악 사랑을 펼쳐왔다.

[프로그램]

B Rossette, Concerto D'Amore
Samba di Janeiro, Tequila
Disco Party II, Alvarm Overture
남구소년소녀합창단 '사계(봄, 여름, 가을, 겨울)'
소프라노 박희정 '아름다운 나라'
• 지휘/정흥기 • 협연/박희정
• 특별출연/남구소년소녀합창단

제25회 이건음악회
베를린필하모닉 윈드퀸텟 초청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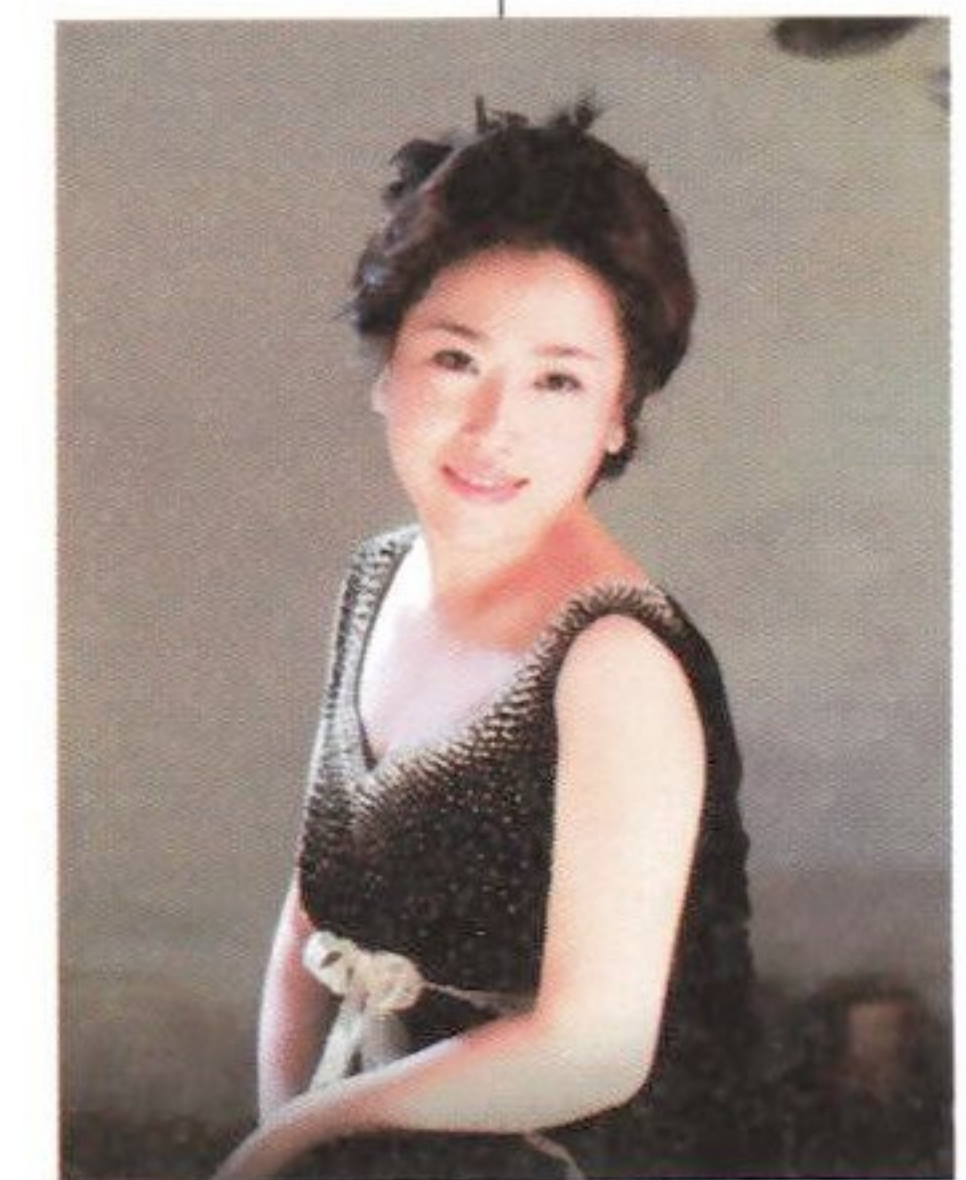
일 시 | 7월 3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초대(초대권 신청은 이건음악회 블로그 : www.eagonblog.com)
문의 | 이건창호 032-760-0898



1990년 가을,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실력파 해외 뮤지션을 발굴하여 수준 높은 무대를 열어온 이건창호의 메세나 음악회 '이건음악회' 2014년 무대.

올해는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시대에 국제적 명성을 얻은 베를린필하모닉 내의 첫 번째 상설연주단체로 1988년에 설립된 베를린필하모닉 윈드퀸텟이 7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부산, 고양, 서울, 인천, 광주 등 5개 도시를 무대로 전국 무료 순회공연을 펼친다.

베를린필하모닉 5중주 앙상블 특유의 음악적 표현력과 넓은 스펙트럼으로 전세계 클래식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 베를린필하모닉 윈드퀸텟은 많은 청중들과 비평가로부터 클래식 5중주 연주를 재해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Program Guide >>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제13회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일 시 | 7월 3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단원들의 기량 향상을 위해 단원 내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우수 단원들에게 협연기회를 제공하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 연주회 제13회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화려한 기교를 바탕으로 한 협연자들의 뛰어난 기량을 통해 이동신이 지휘하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연주로 청소년 관객들에게 클래식음악에 대한 이해를 돕는 다양한 악기군의 협주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모차르트/호른 협주곡 제4번
브루흐/스쿠틀랜드 환상곡
하이든/오보에 협주곡
피에르네/하프 협주곡
다비드/트롬본 소협주곡
브루흐/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라이네케/플루트협주곡

- 지휘/이동신(수석지휘자)
- 협연/조우태(바이올린, 경성대 2학년), 박소라(바이올린, 부산예고 3학년), 이주형(플루트, 인제대 3학년), 허근영(오보에, 경성대 3학년), 조성현(호른, 부산대 4학년), 박미리(트롬본, 동아대 2학년), 정주희(하프, 부산예고 2학년)

극단 해미소 뮤지컬 '벌거벗은 임금님'

일 시 | 7월 3일 목요일 오전 10:15, 11:2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단체 5천원)
문 의 | 키즈샘
070-8281-6593, 010-6358-5449

...
서정적인 감성과 환상적인 상상의 세계, 휴머니즘이 살아 숨 쉬는 어린이를 위한 가족 뮤지컬 '벌거벗은 임금님'. 위대한 동화의 할아버지 안데르센 원작 '벌거벗은 임금님'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구성, 부산어린이들에게 선보인다.
• 연출/고도일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02회 정기연주회 거장 유베르트 수당 초청 '명작, 러시아 II'

일 시 | 7월 4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 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
6월 라흐마니노프와 차이코프스키로 문을 연 부산시립교향악단의 '명작, 러시아' 시리즈 두 번째 무대. 거장 유베르트 수당의 객원 지휘, 신라대학교 교수 예브게니 이조토프의 지휘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는 러시아 작곡가 무소르그스키와 라흐마니노프,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최고 걸작을 만나는 러시아 음악의 밤이다.

객원지휘자 유베르트 수당은 카라얀 지휘 콩쿠르, 칸텔리 콩쿠르, 브장송 콩쿠르 등에서 입상한 세계적인 지휘자로 2004년 10월부터 일본 도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을 맡고 있다.
협연자 예브게니 이조토프는 이탈리아 레이크 코모 국제콩쿠르 1등상,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의 조지 에네스쿠 국제콩쿠르 2등상, 포르투갈 세르난시엘리 국제콩쿠르와 프랑스 미쉬흐센느 국제콩쿠르에서 1등상을 수상하며 국제대회 우승자로서 세계 음악계의 주목을 받았다.

|프로그램|

무소르그스키/코반쉬나' 중 '서주
라흐마니노프/피아노 협주곡 제2번
림스키-코르사코프/교향적 모음곡 '세헤라자데'
• 지휘/유베르트 수당
• 피아노/예브게니 이조토프

송강수 장단 발표회

일 시 | 7월 4일 금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송강수 010-4576-9117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 단원을 역임하고 현재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실내악단 산바다 해 대표로 우리 음악을 전승하고 있는 송강수의 장단 발표회.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8호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와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6호 박대성류 아쟁 산조,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47호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 명인들과 서로 다른 산조의 특징을 감상하며 우리 장단의 정수를 맛볼 수 있다.

- 특별출연/신명숙(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8호 예능보유자)
- 박대성(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6호 예능보유자)
- 김남순(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교수)



프로그램
가이드

김은경 클라리넷 리사이틀 V

일 시 | 7월 6일 일요일 오후 5:0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학생 1만원)
문의 | 김은경 후원회 02-2143-0044



'브람스가 살아있었다면 무척이나 사랑했을 낭만적인 감수성과 음색을 가진 영리한 연주자' (전 베를린 필 클라리넷 수석 칼 라이스터), '한계를 넘은 뉘앙스와 비할데 없이 아름답고 부드러운 발성을 지닌 클라리네티스트'(독일신문

바디세 짜이팅)로 극찬 받은 클라리네티스트 김은경의 부산연주회.

서울대학교와 독일 Hochschule für Musik Hanns Eisler Berlin(Diplom, KA), Hochschule für Musik Freiburg(AD)에서 음악수업을 한 김은경은 Hanns Eisler Preis 3위를 수상하며 실력을 인정받았다.

프로그램

- 베에르네/칸초네타 작품19
- 바르톡/루마니아 민속무곡
- 모차르트/클라리넷 3중주 KV 498
- 'Kegelstatt-Trio' 등 수곡

2014 부산무용제

일 시 | 7월 7일-9일 월-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 학생 5천원
문의 | 부산무용협회 632-5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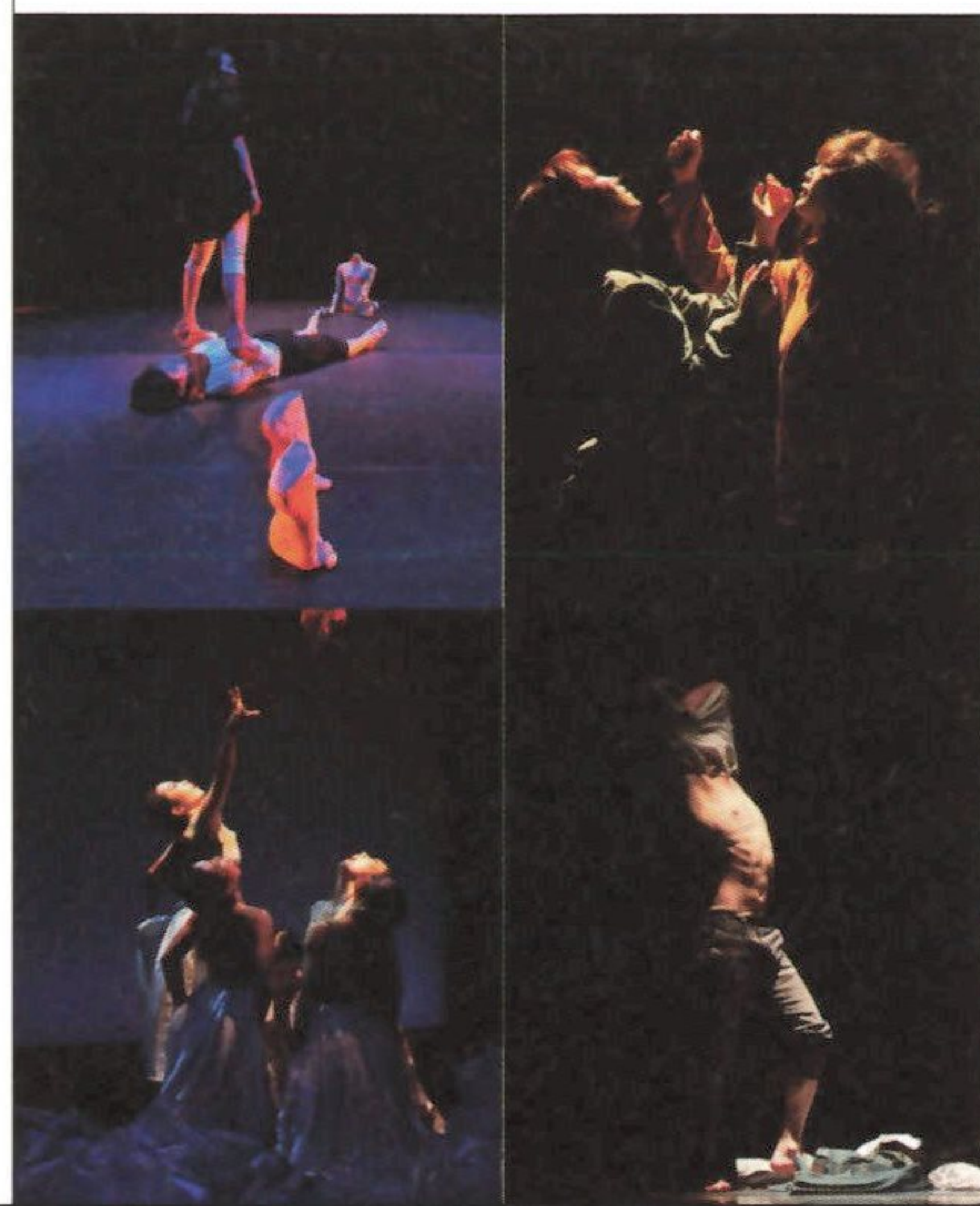
부산 지역 춤꾼들이 펼치는 최고의 무용축제 부산무용제 2014년 무대. 올해는 7월 7일 개막식과 부산시립무용단의 개막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3일간 4개 팀이 경연을 펼친다. 올해는 제21회 부산무용제 우수상, 남자연기상을 수상한 판댄스씨어터의 허종원,

현대무용단 주-□ 대표 최정화, 제27회 KBS부산무용콩쿠르 전통부문 은상, 제28회 KBS부산무용콩쿠르 창작부문 금상을 수상한 정신혜무용단 단원 박미향, 제28회 KBS부산무용콩쿠르 '대상'을 수상한 현대무용단 '자유' 단원 조현배가 창작 작품을 선보인다.

일정

- 7월 7일(월) 개막식
- 개막축하공연 부산시립무용단 '천고'
- 경연참가작 판댄스씨어터 '발 없는 말'(안무/허종원)
- 7월 8일(화)

경연참가작 현대무용단 주-□ 'Island'(안무/최정화)
경연참가작 정신혜무용단 '굴절·N'(안무/박미향)
7월 9일 수요일
경연참가작 현대무용단 자유 '관심' (안무/조현배)
2013년 대상팀 축하공연팀 M-note 현대무용단 '부라보다' (안무/신승민)
폐막식
시상식 및 폐막축하공연 '부산시민대동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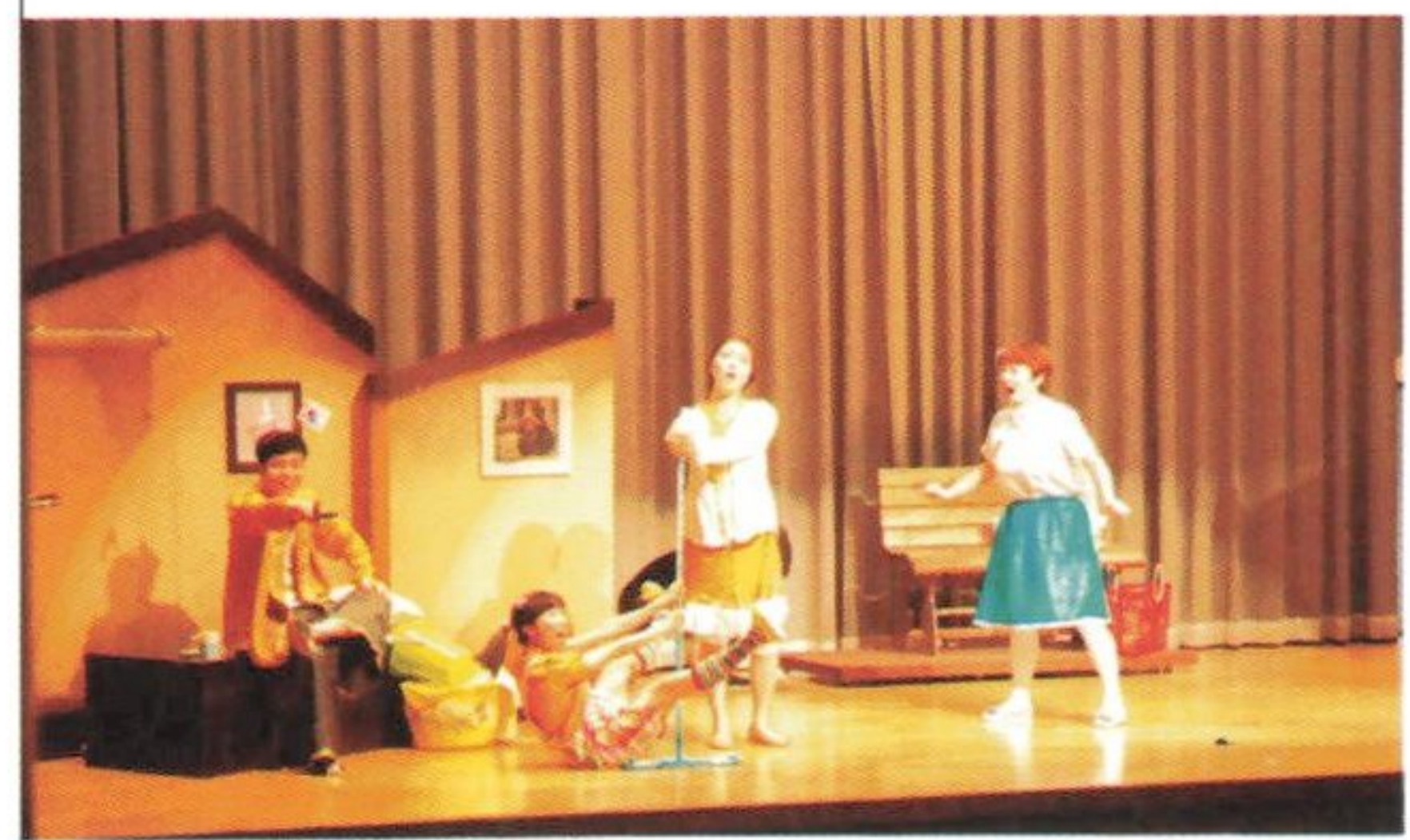


끼리프로젝트 출산장려 가족 창작뮤지컬 '아빠 함께해요!'

일 시 | 7월 12일 토요일 오후 7:30, 7월 13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끼리프로젝트 759-7112, 010-4784-7721

가사와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부산시에서 끼리프로젝트와 함께 특별 제작한 창작뮤지컬 '아빠 함께해요!'. 가정적이고 자상한 아빠 흥부는 아내의 가사일 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에도 아주 적극적이다. 가사와 육아에는 전혀 관심 없는 놀부를 변화시키기 위해 흥부와 흥부 처는 '몰라카메라-놀부 편'을 계획, 함께 하는 가사와 육아의 중요성을 재미있게 알려준다.

- 작/홍선주 • 연출/변진호
- 출연/홍선주, 오세윤, 이사라, 안수빈, 김관의



김영희 Dance Company 정기공연 W-Members 프로젝트 공연

일 시 | 7월 13일 일요일 오후 5:00 소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의 | 김영희재즈무용단 808-6550

1999년 컨템포러리 재즈무용단으로 창단된 김영희무용단의 2014년 정기공연. 김영희무용단은 국제무용제, 해변무용제 등 부산의 대표적 공연행사에 참여하며 현대적 감성과 대중적 움직임으로 컨템포러리 재즈, 얼반, 펑크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여 왔다.

작품

- Keep Holding Me, Settle Down
- 아모르파티(Amor fati)
- 안무/김영희, 채현정, 남유진
- 춤/김영희, 채현정, 남유진, 권화수, 이새영
- 특별출연/최준호, 이호정, 김영태



이성은 피아노 독주회 베토벤 피아노소나타 전곡 연주시리즈 I

일 시 | 7월 14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이성은 010-9716-0717

전남대학교 음악과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이성은 독주회. 피아니스트 이성은은 신광중학교 재학 중 오스트리아로 유학, 오스트리아 요제프 하이든 콘서바토리움, 빈 시립음악대학교, 체코 오스트라바 국립음악대학교에서 음악수업을 하고 귀국, 국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성은은 빈 유학시절 하이든 우수연주자 선정 CD 레코딩, Concorso Europeo dei Duchi d'Acquaviva 콩쿠르 특별상 수상, Fidelio Wettbewerb 콩쿠르 입상, Hugo Breitner-Gesellschaft Foerderstipendium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그 실력을 인정받았으며, Best of Fidelio로 오스트리아 국영 라디오방송에 소개되기도 했다.

프로그램

- 베토벤/피아노소나타 제11번 내림나장조 작품22
- 피아노소나타 제31번 내림가장조 작품110
- 피아노소나타 제26번 내림마장조 작품81 '고별'

Program Guide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74회 정기연주회 '풍향'

일 시 | 7월 16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R석 1만원, S석 천원, A석 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23

...
 지난 5월 창단 30주년 기념연주회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다짐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제174회 정기연주회 '풍향'.
 강원도립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를 역임한 노부영의 객원지휘로 펼쳐질 이번 무대는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병창 및 산조이수자 이슬기의 25현 가야금, 중요무형문화재 제46호 피리정악 및 대취타 이수자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강효선의

의 생황,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TODA 동인 진형준의 피리 협연으로 싱그러운 여름을 담은 무대를 열어준다.
 한국 전통음악에 대한 이해가 깊고, 현대적 해석에 탁월한 노부영은 연주자 뿐만 아니라 작곡가, 지휘자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프로그램|
 조원행/국악관현악 '대지'(부산초연)
 이상규/피리협주곡 '자진한잎'
 이건용/25현 가야금협주곡 '한오백년'
 이준호/생황협주곡 '풍향'
 원일/국악관현악 '천장'(부산초연)
 • 객원지휘/노부영
 • 협연/이슬기(25현 가야금), 강효선(생황), 진형준(피리)

소년소녀가장 돕기 사랑음악회 국제청소년 교류음악제

일 시 | 7월 19일 토요일 오후 2:0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부산음악교육협의회
 637-0580, 010-2840-0580

...
 부산음악교육협의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국제청소년 교류음악제.
 세계 각국 아티스트들의 무대 연주, 경연대회 대상 수상을 중심으로 한 한국 청소년과 각국의 아티스트들 20명의 피아노 독주, 다문화학교 아시아공동체 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연주, 부산의 청소년 아티스트들이 들려주는 드럼, 성악, 50명의 난타 연주 등 다양한 무대와 함께 부산의 최우수 예술원을 방문하여 한국의 음악예술문화 활동을 알리고 직접 소개하면서 음악교육의 공유를 통한 바람직한 교육에 대한 심포지움 시간을 갖는다.



이일세 첼로 독주회

일 시 | 7월 20일 일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2014년 부산시립교향악단 첼로 수석으로 국내활동을 시작한 첼리스트 이일세 독주회.

1993년 빈 국립음대에 최연소 입학기록을 세우며 홀로 오스트리아 유학길에 올랐던 이일세는 빈 국립음대 석사과정 최우수 졸업에 이어 빈 국립음대 지휘과, 빈 국립대학 철학박사, 음악학박사 과정, 빈 시립음악원(Konservatorium Wien) Postgradual 과정을 마치고 오스트리아 빈 프라이너음악원(Prayer Konservatorium Wien)교수, 오스트리아 구스타프 말러음악원(Gustav Mahler Konservatorium Wien) 교수 및 부학장을 역임하는 등 유럽 무대에서 폭넓은 활동을 펼쳤다.

|프로그램|
 페르골레지/Sinfonia in fa maggiore
 베토벤/Sonate für Violoncello und Klavier
 심은영/'Die Öffnung'(개방) 등
 • 피아노/박지은

2014년 부산시립무용단 마당춤판 7월의 크리스마스 -클라라와 호두이야기

일 시 | 7월 17일-18일 목-금요일 오후 8:00
 야외공연장(우천시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시립무용단 607-3131~2

...
 2003년부터 한국의 전통적인 소재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 해학과 신명, 감동이 살아있는 야외 마당춤판을 선보여온 부산시립무용단이 2014년 새롭게 선보이는 신작 '7월의 크리스마스'.
 우리전통에서 벗어나 세계적인 명작 발레 '호두까기 인형'을 우리 정서에 맞게 재구성한 '7월의 크리스마스'는 클라라와 호두, 전래동화를 꾸러갈 심청과 말안 듣는 청개구리, 흑부리 영감 등이 등장, 컴퓨터

에 빠져 가족과 함께 해야 할 크리스마스의 의미도 외면한 채 모니터에만 얼굴을 파묻고 있는 소녀 클라라가 게임 속 호두까기 인형 캐릭터를 만나면서 낯선 사이버 세상 속으로 빨려 들어가 다양한 미디어 전래동화 캐릭터들을 만나며 가족의 의미와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는 내용.

|프로그램|
 1장 크리스마스 이브 가정풍경
 2장 어두운 거실(모니터 속 세상)
 3장 미디어 전래동화 월드-호녀심청, 말안 듣는 청개구리(소리의 나라), 흑부리 영감(환영의 나라)
 4장 이별
 에필로그-크리스마스날 아침
 • 안무, 대본/홍경희(예술감독)
 • 연출/장래훈



프로그램
가이드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2014 악기가족 이야기 종합편
악기마을 한마음 음악회

일 시 | 7월 24일-25일 목-금요일
오전 10:30, 오후 3: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천원(30명 이상 단체 1천원)
문의 |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어린이들을 위한 눈높이 음악회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악기가족 이야기 종합편 '악기마을 한마음 음악회'. 각 파트별 악기들의 특성을 잘 살린 시나리오를 통해 악기들의 모양과 특징을 이해하고 극의 흐름에 맞추어 선곡된 오케스트라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악기가족 이야기 종합편은 지난 4년간 탄탄한 구성으로 학부모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프로그램|
슈트라우스/트리치 트라치 폴카
차이코프스키/호두까기 인형 중 '행진곡'
무소그스키/전람회의 그림 중 '껍질 붙은 병아리의 발레' 등
• 지휘/이동신 • 연출/변진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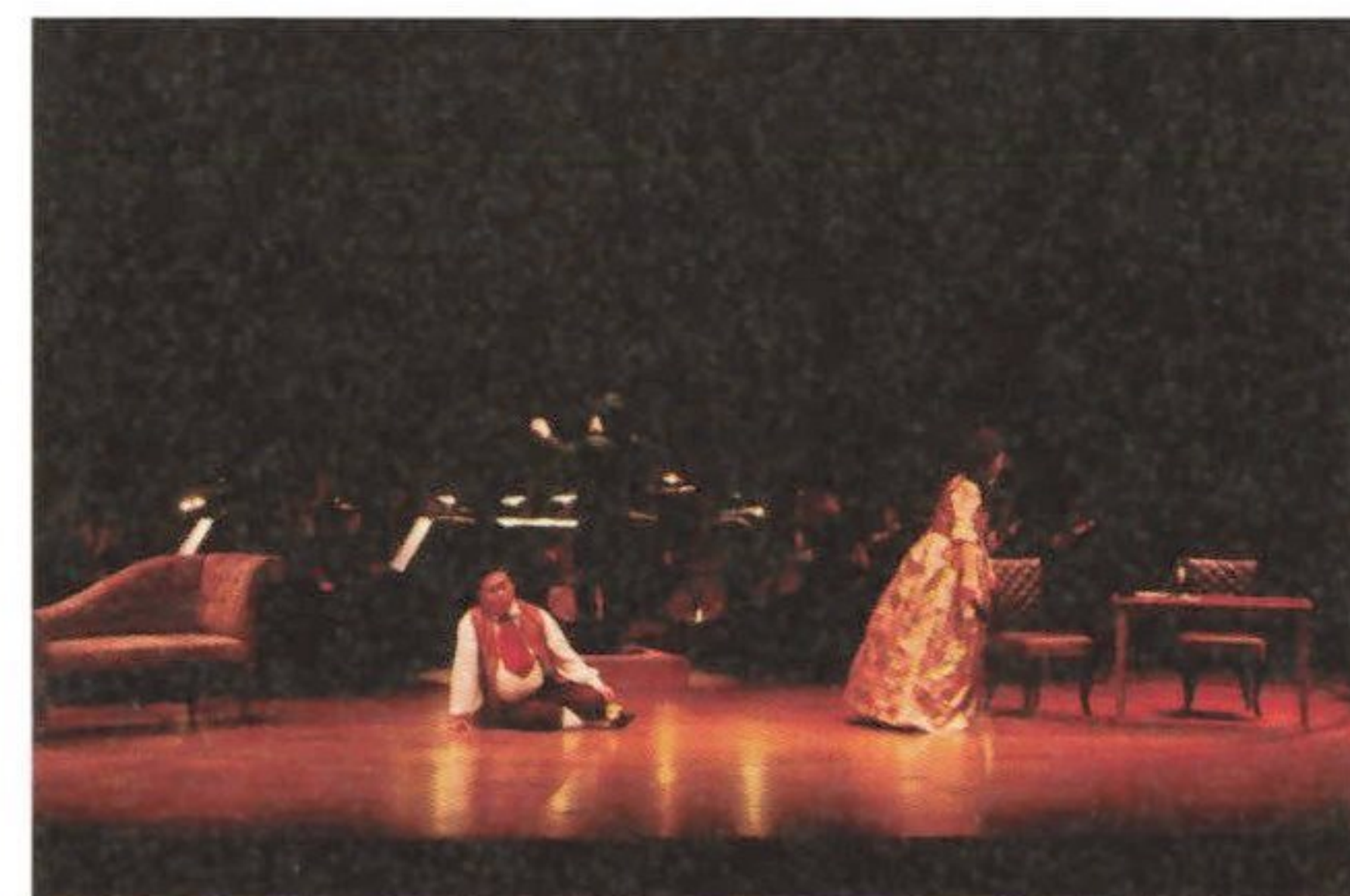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2014
웰빙콘서트시리즈 "11시에 만나요!"
오페라 하이라이트 III - 코지 판 투테

일 시 | 8월 1일 금요일 오전 11:0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전하는 한낮의 음악선물 부산 시민과 함께하는 2014 웰빙콘서트시리즈 "11시에 만나요!" 오페라 하이라이트 세번째 무대 '코지 판 투테'. 이동신의 지휘, 해설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는 오페라 전문연출가 유철우의 특화된 연출로 모차르트 오페라 '코지 판 투테'를 들려준다. 코지 판 투테(Così fan tutte)는 모차르트가 로렌초 다 폰테(Lorenzo Da Ponte)의 대본을 바탕으로 1790년 발표한 오페라 부파로 모차르트 생존 당시 빈에서 실제 일어났던 일을 오페라로 작곡, 1790년 1월 26일 빈 부르크 극장에서 초연되었다. '코지 판 투테'는 이탈리아어로 '여자란 모두 똑같이 행동한다'는 의미로 '여자는 다 그래', '여자는 똑같이'로 번역되기도 한다. 이야기의 배경은 18세기 후반, 이탈리아 나폴리. 피오르딜리자와 도라벨라 자매는 굴리엘모와 페란도와 약혼한 사이다. '여자들의 신의란 믿을 게 못된다'는 나이든 철학자 친구 돈 알폰소의 제안으로 24

시간 안에 약혼녀들이 다른 남자에게 넘어가면 페란도와 굴리엘모가 알폰소에게 돈을 주고, 유혹에 고떡없으면 반대로 알폰소가 두 사람에게 돈을 준다는 내기를 진행한다는 내용. 소프라노 김현애(피오르딜리지), 신민원(도라벨라), 김혜영(데스피나), 테너 김기태(페란도), 베이스 박상진(굴리엘모), 양재원(돈 알폰소)이 재미있는 내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프로그램|
모차르트/코지 판 투테 하이라이트
• 지휘, 해설/이동신
• 연출/유철우
• 소프라노/김현애(피오르딜리지), 신민원(도라벨라), 김혜영(데스피나)
• 테너/김기태(페란도)
• 베이스/박상진(굴리엘모), 양재원(돈 알폰소)



오페라 '버섯피자' 한 장면

토요상설무대

일 시 | 토요일 오후 4:00 **소극장**
입장료 | 선착순 무료
(공연 30분전 입장, 미취학 아동 입장 불가)
문의 | 부산문화회관 607-60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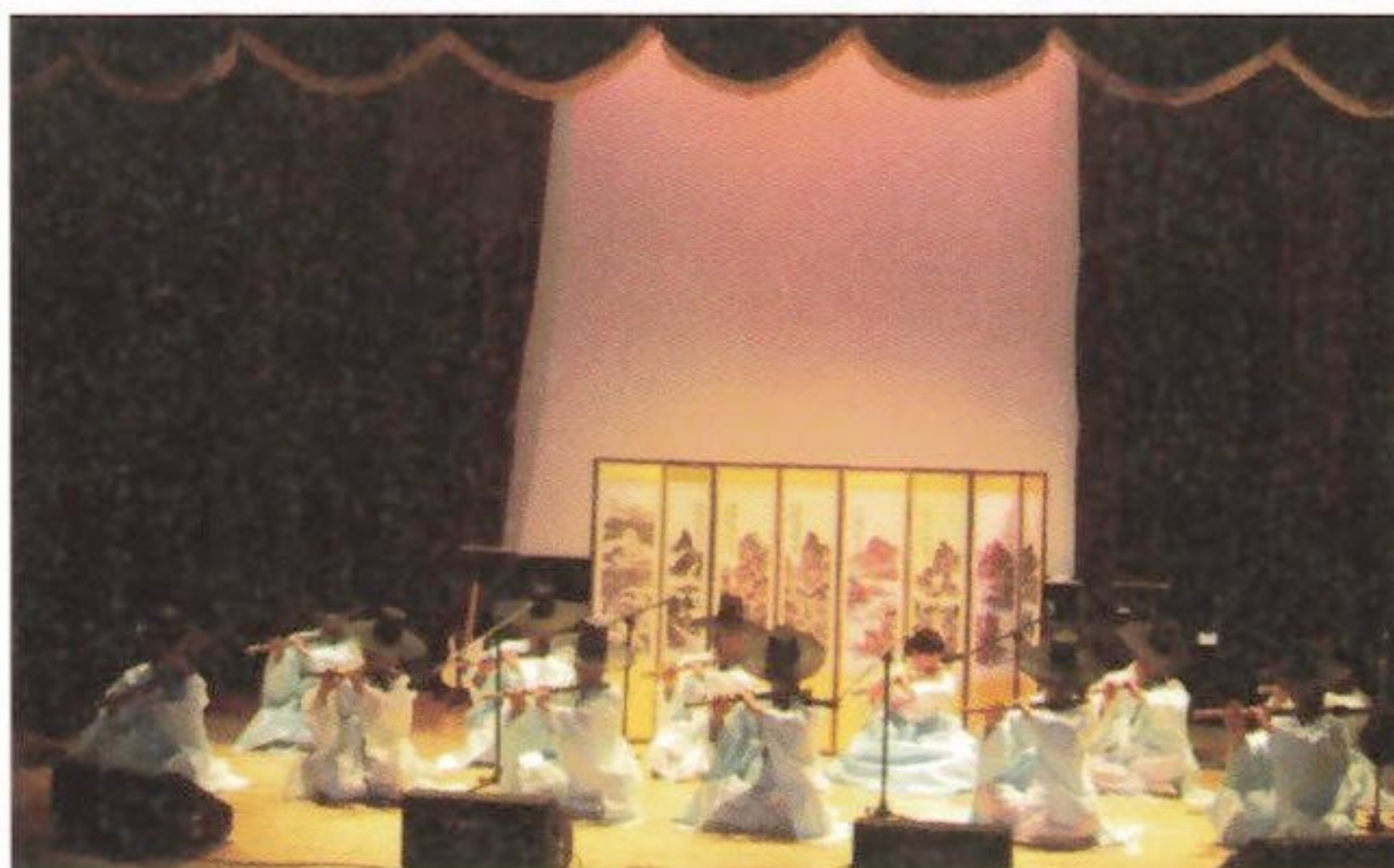
7월 5일
김현숙의 우리춤 '동행(同行)'

|프로그램|
춘앵전(출연/김현숙)
처용무(출연/최의옥)
판소리 쑥대머리(출연/이하나)
원향지무, 승무(출연/김현숙)
선비춤(출연/김완수, 김문현, 손준모)
• 해설/조봉권



7월 12일
조철현대금연구소
'대금소리 사랑소리'

|프로그램|
밴드와 함께하는 올드팝 대금
Over Valley and Mountain, La Novia, El Condor Pasa
즉흥음악과 입춤
밴드와 함께하는 7080대금 바람 같은 사람, 광화문 연가, 부산갈매기
아리랑 메들리 연주 아리랑, 밀양아리랑, 진도아리랑, 강원도아리랑
조철현의 대금산조 중요무형문화재 제45호 강백천류대금산조
무술과 춤, 서예가 있는 퍼포먼스 대전부르스, 봄날은 간다, 추억의 소야곡, 빈대떡 신사 등 수곡
• 해설/조철현(중요무형문화재 제45호 강백천류대금산조 전수조교)



• 특별출연/철부지밴드(알토색소폰/김재이, 테너색소폰/이덕진, 트럼펫/박광수, 베이스기타/김동길, 퍼커션/강욱만, 키보드/민판기)
• 연주/조철현, 석동호, 김덕상, 장수간, 김형우, 김기주, 변정섭, 김준오, 공정희, 김옥천
• 춤/장경화

7월 19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

|프로그램|
관악영산회상 중 상령산(집박/채수만 · 대금/최재호, 강영진, 엄익준 · 소금/조은경 · 피리/박춘석, 강영현, 권미정 · 해금/최윤정, 정수경, 이은주 · 아쟁/홍영혜 · 장구/이장우 · 좌고/장미진)
가야금 산조 '김병호 류'(가야금/이명일, 장구/박재현)
거문고 중주 '출강'(거문고/이유진, 박하혜, 오상훈, 전현진)
판소리(판소리/박성희, 고수/송강수)
산조합주(대금/한영길, 피리/김경수, 해금/방병원, 아쟁/최영훈, 가야금/윤경선, 거문고/이대하, 장구/전학수)
사물놀이-삼도풍물(팽과리/이경희, 장구/전학수, 북/송강수, 징/박재현)
• 해설/백규진(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음악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학생 5천원
문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2~3

2일 이음트리오 창단음악회



EUM Trio
The 1st Concert
이음트리오 창단음악회

2014. 7. 2 (수)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브니엘예술중학교 동문인 피아니스트 최영민, 바이올리니스트 이영주, 첼리스트 현리사로 구성된 이음트리오 창단음악회.

최영민은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칸타빌레 솔리스트 앙상블 전속반주자로, 이영주는 러시아 노보시비리스크 중앙음악학교와 모스크바 국립차이코프스키음악원 석,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경남심포니오케스트라 악장으로, 현리사는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독일 트로싱엔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 중이다.

[프로그램]

모차르트/피아노 트리오 사장조 제2번 K.496
슈만/피아노 트리오 제1번

9일 박기나 바이올린 독주회



2014. 7. 9 (수)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바르톡/랩소디 제2번
포레/바이올린 소나타
• 피아노/김미현

16일 4인 음악회



4인 음악회

2014. 7. 16 (수)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서울대학교 음악학과와 미국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석사), 보스턴음대(박사)를 졸업하고 현재 미국 Haffner Sinfonietta 악장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박기나 독주회.

[프로그램]

모차르트/바이올린 소나타 K.378

테너 이철성, 바리톤 조현수, 소프라노 김경희, 박현정이 들려주는 가곡과 아리아의 밤.

이철성은 현재 아미치 세펠레 대표로, 조현수는 솔 오페라단 상임음악감독으로, 김경희는 동서대학교, 창원대학교, 부산대학교 외래교수로, 박현정

은 부산성악아카데미 회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프로그램]

첫사랑(김효근 곡), 동심초(김성태 곡), 그리움(이수인 곡), 스페인 세레나데(비제 곡), 나는 이 거리의 만능일꾼(로시니 곡), 별은 빛나건만(푸치니 곡), 내 마음처럼 화창한 날(벨리니 곡) 등 수록

• 피아노/최영민

23일 이지선의 스토리텔링 콘서트 '피아노로 듣는 동화이야기'



추계예술대학교와 프랑스 Ecole Normale de Musique de Paris 최고연주자과정 및 실내악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이지선 뮤직아카데미 대표, 콩비연구소 대표, 뮤직스토리움 대표로 있는 피아니스트 이지선의 피아노로 듣는 동화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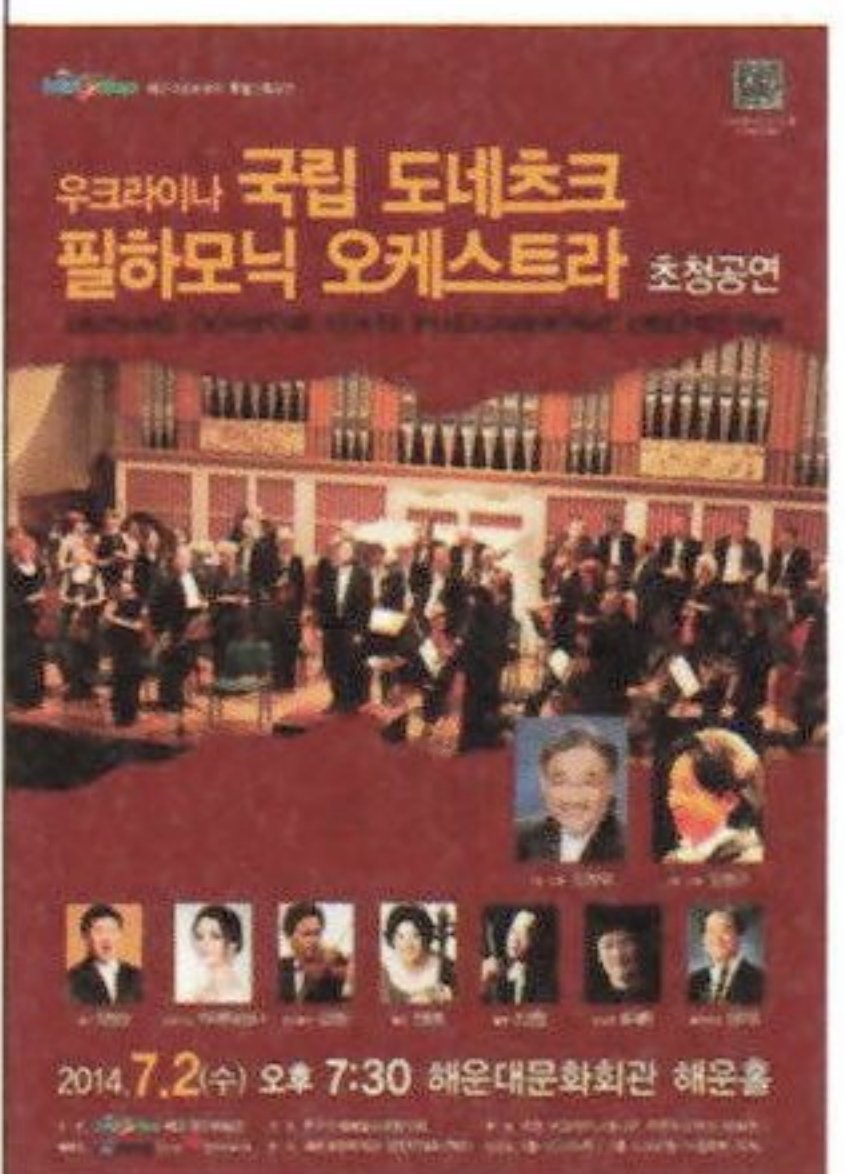
30일 나진주 재즈퀸텟 with Lunar Sury 'Jazz It Up'

나진주 트리오 리더, 부산예술대학교 교수로 있는 재즈피아니스트 나진주와 기타리스트 이광현, 트럼펫터 김일환, 드럼주자 박성진, 베이스리스트 변재갑으로 구성된 나진주 재즈퀸텟의 무대.

• 게스트/보컬 Lunar Sury

우크라이나 국립도네츠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초청공연

일 시 | 7월 2일 수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1층 1만원, 2층 5천원
문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1937년 창단된 오랜 전통의 우크라이나 국립도네츠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초청공연.

동유럽 음악계를 이끌어가는 우크라이나 국립도네츠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지난 2002년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영예로운 예술원'이라는 칭호를 받았으며, 우크라이나 국민음악가인 'S. Prokofiev'의 이름을 딴 '프로코피에프' 심포니 오케스트라로 불리기도 한다.

- 지휘/김정덕(1부), 김영근(2부)
- 협연/장원상(테너), 카차투로브나(소프라노), 김성현(바이올린), 전명희(첼로), 조성철(플루트), 류재환(오보에), 정우영(클라리넷)

스페이스 음 '차가 있는 음악회' 7월, 싱그러움을 담다

일 시 | 매주 목요일 오후 8:00
스페이스 음
입장료 | 균일 1만원(음료포함, 17일 공연은 균일 2만원)
문의 | 스페이스 음 557-3369

복합문화공간 Space UM이 매주 목요일 저녁 마련하는 '차가 있는 음악회' 7월 무대.

3일 클레다 앙상블 '무도회로의 초대'



'Classic never dies!(클래식은 죽지 않는다)' 라는 모토로, 자극적인 전자음과 화려한 조명에 지쳐있는 청중의 귀와 눈을 순수 음악으로 되돌리고자 모인 젊은 현악 사중주단 클레다(CLEDA)의 무대. 바이올리니스트 김혜진, 탁서연, 비올리스트 성정인, 첼리스트 박준현 등 부산예술고등학교 선, 후배 동문들로 결성된 클레다는 학창시절을 함께 해 온 유대감을 바탕으로 탄탄한 앙상블을 들려준다.

10일 탁경주 트리오 'Jazz Guitar Classics'

기타리스트 탁경주의 2집 음반 'JAZZ GUITAR CLASSICS'의 수록곡을 중심으로 다양한 재즈곡을 통해 재즈의 기원에서부터 진행과정을 해설과 함께 들려주는 특별한 무대.

- 연주/탁경주(기타), 고재규(베이스), 곽정민(피아노)
- 게스트/재즈 보컬 김주환

17일 와인과 함께 하는 하우스 콘서트 '기억하다, for friends'

플루티스트 박은아, 피아니스트 김나경, 박필은이 마련하는 우정의 무대. 공연 후에는 연주자들과 함께하는 와인파티가 펼쳐진다.

24일 뮤지컬 배우 이하경 '그녀가 사랑한 뮤지컬'

뮤지컬 배우 이하경이 우리 귀에 친숙한 뮤지컬 넘버를 들려준다.

31일 블루앙상블 '내겐 너무 친숙한 클래식 & OST'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음악을 선사하기 위해 클래식에서부터 영화음악, 팝송, 탱고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려주고 있는 퓨전 현악앙상블 블루앙상블의 무대.

1991년 도미넌트 앙상블로 첫 발을 내딛은 블루앙상블은 지난 2005년 바이올리니스트 박광식, 서은아, 베이스리스트 윤민우, 피아니스트 한경수로 재결성,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과 호흡해왔다.

프로그램
가이드

국립부산국악원 Beautiful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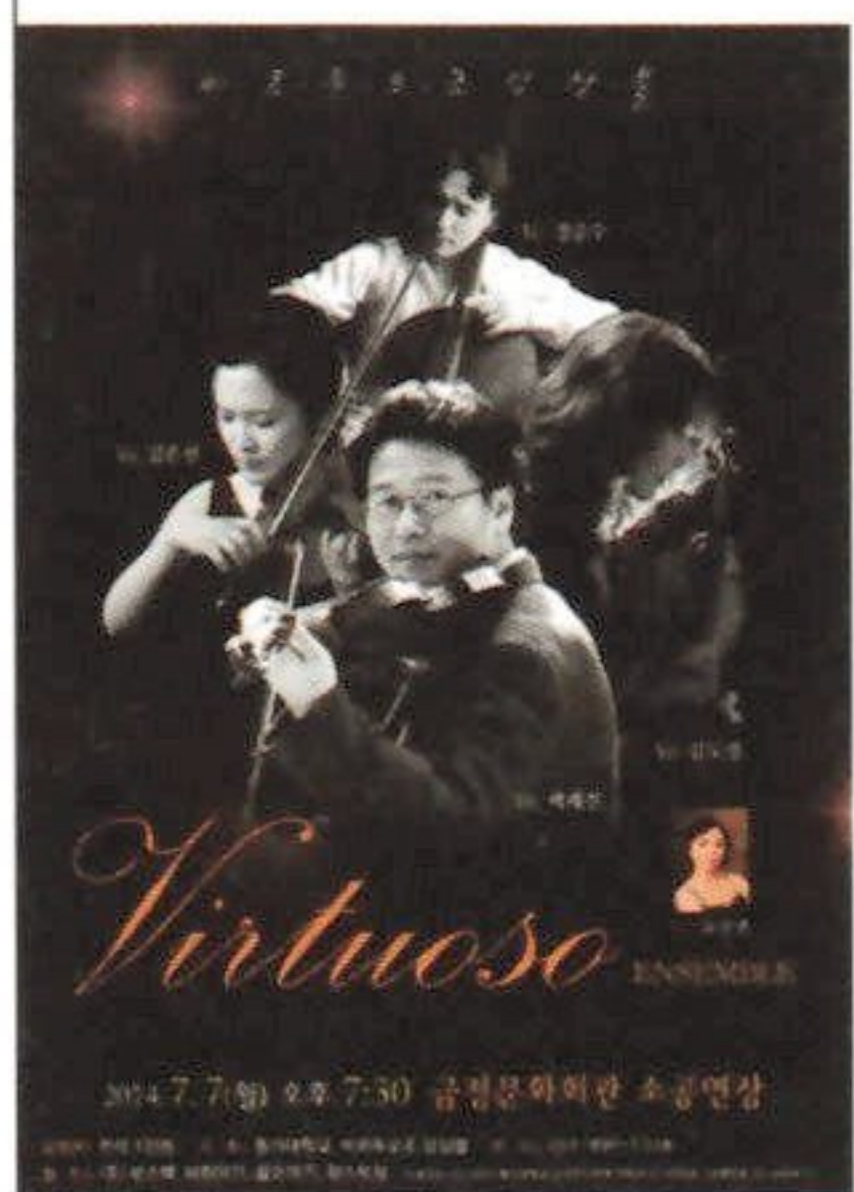
일 시 | 7월 5일(토), 23일(수) 오전 11: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국립부산국악원 811-0040

지난 2010년부터 크루즈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펼쳐온 국립부산국악원 특별공연 'Beautiful Korea'.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종묘제례악-전폐희문, 영관'을 비롯해 민요 '아리랑', 다이내믹한 타악기 리듬과 힘찬 군무가 어우러지는 '삼고무', 섬세한 한복의 그림을 만들어내는 '부채춤', 밀양백중놀이와 부산농악을 재구성한 '꽃나부풍장놀이' 등 국립부산국악원의 대표 작품들을 선보인다. 이번 무대는 크루즈 관광객 뿐 아니라 일반 외국인들과 지역민들도 관람이 가능하다.



비르투오조 앙상블 연주회

일 시 | 7월 7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비르투오조 앙상블 890-1318



1995년 동의대학교 백재진 교수를 주축으로 창단된 후 부산을 대표하는 실내악 단체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폭넓은 레퍼토리를 선보여온 비르투오조 앙상블의 무대. 비르투오조 앙상블은 그동안 일본 사가현 연주, 가람 화요음악회 100회 초청연주, 부산비엔날레 초청연주, 오주영 초청 비르투오조의 밤, 중국 심양국제교류음악회 초청연주 등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들과 만나왔다.

|프로그램|
베토벤/피아노 트리오 제7번
모차르트/케겔슈타트 트리오
도흐나니/피아노5중주 제1번
• 연주/리더 백재진(바이올린), 김도경(바이올린), 김은진(비올라), 정준수(첼로)
• 협연/김선영(피아노)

국립부산국악원 토요일명무대 행복한 국악나무

일 시 | 매주 토요일 오후 3:0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 균일 8천원
문 의 | 국립부산국악원 811-0040

전통예술에 대한 감수성 함양 및 국악 대중화를 목적으로 매주 토요일 마련해온 국립부산국악원의 대표 상설공연 '토요일명무대' 7월공연. 유네스코 지정 무형문화재, 성악, 민속춤, 민속악, 궁중 문화, 국악관현악 등 매주 다양한 프로그램이 무대에 오른다.

5일 열린마당의 풍요(들놀음과 연희)
밀양백중놀이, 수영야류 중 '영감·할미과장', 동래학춤, 판소리 입체창, 꽃나부풍장놀이

12일 신명의 울림 (타악)
비나리, 판소리 고법, 삼도설장구, 운우고천, 모듬북과 태평소(구성/이진희)

19일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무형문화유산 (유네스코 지정 무형문화재)
종묘제례악 '전폐희문, 영관', 처용무, 판소리, 가곡, 아리랑, 강강술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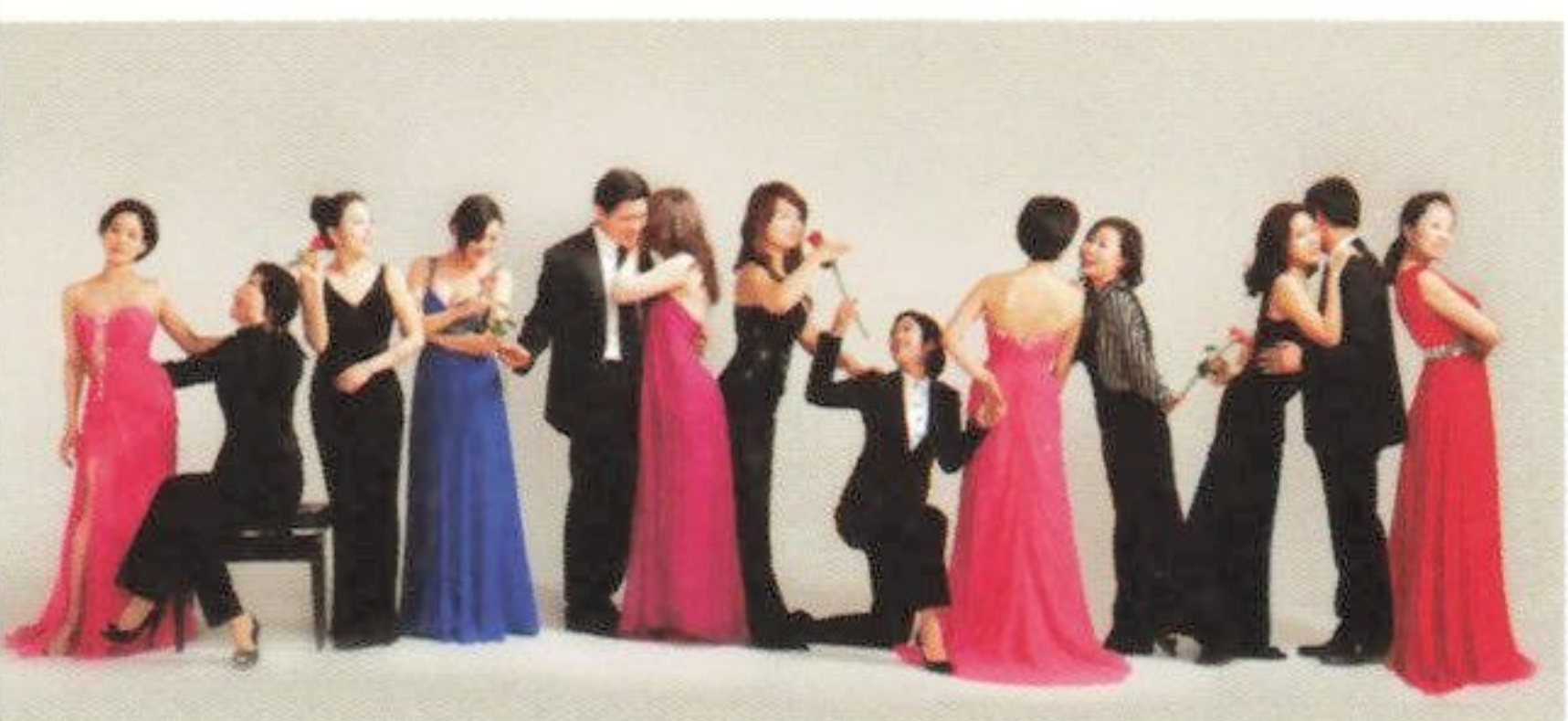
26일 함께하는 우리소리의 아름다움(성악)
회심곡, 가야금병창, 단가와 판소리, 사랑가춤, 시조와 가사, 경·서도 민요

영화의전당 마티네콘서트 장일범의 영화 속의 음악시리즈 6 영화속의실내악with 위슬로이스츠

일 시 | 7월 8일 화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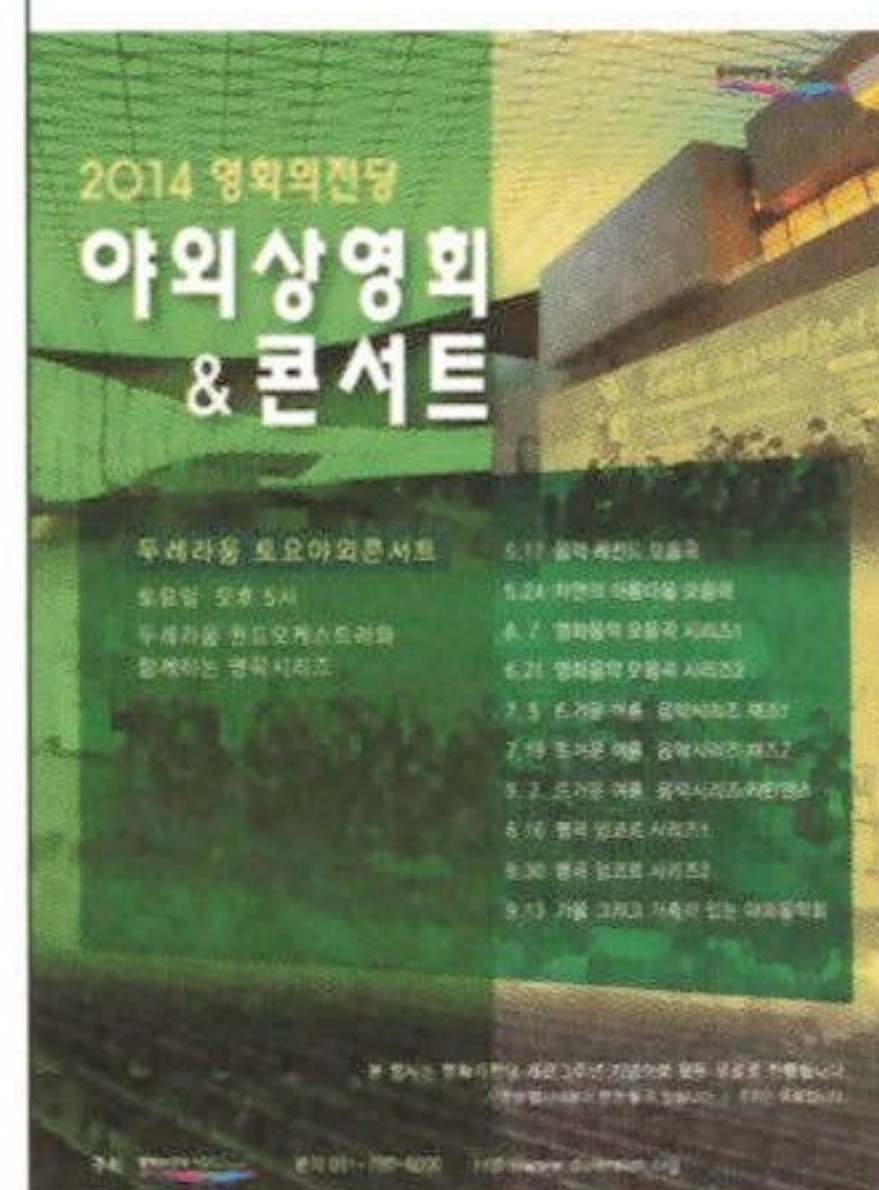
음악평론가 장일범과 함께 떠나는 영화 속 음악 여행 여섯 번째 무대로, 특정 장르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며 클래식 음악의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 '위슬로이스츠'가 영화 '양들의 침묵' '마지막 4중주' '식스센스' 등 영화 속에 등장하는 실내악 곡들을 직접 연주, 실내악의 묘미를 선사한다.

|프로그램|
바흐/골드베르크 변주곡 BMW 988(영화 '양들의 침묵')
베토벤/현악4중주 제14번(영화 '마지막 4중주')
슈베르트/피아노5중주 D.677(영화 '식스센스') 등
• 진행/장일범 • 연주/위슬로이스츠



2014 두레라움 토요일외 콘서트 뜨거운 여름, 음악시리즈 재즈

일 시 | 7월 5일(토), 19일(토) 오후 5:00
영화의전당 야외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영화의 전당 780-6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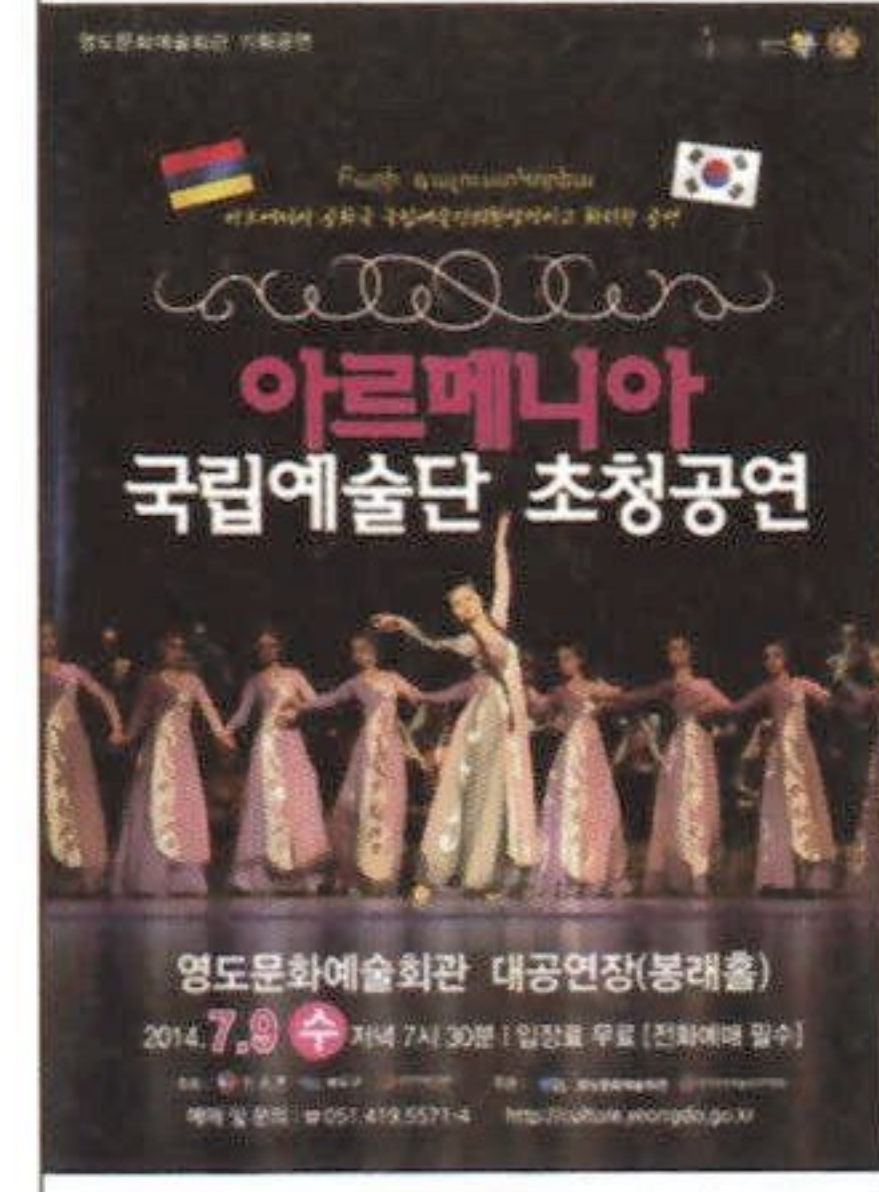
시원한 야외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선율의 향연 2014 두레라움 토요일외 콘서트 7월 무대. 지휘자 김성진이 이끄는 두레라움윈드오케스트라의 연주와 음악평론가 정두환의 해설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뜨거운 여름, 음악시리즈 재즈'

무대로, 한여름 무더위를 날려버릴 재즈명곡을 관객들에게 들려준다.

- 지휘/김성진
- 해설/정두환
- 연주/두레라움윈드오케스트라

아르메니아 국립예술단 초청공연

일 시 | 7월 9일 수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입장료 | 무료(전화예매 필수)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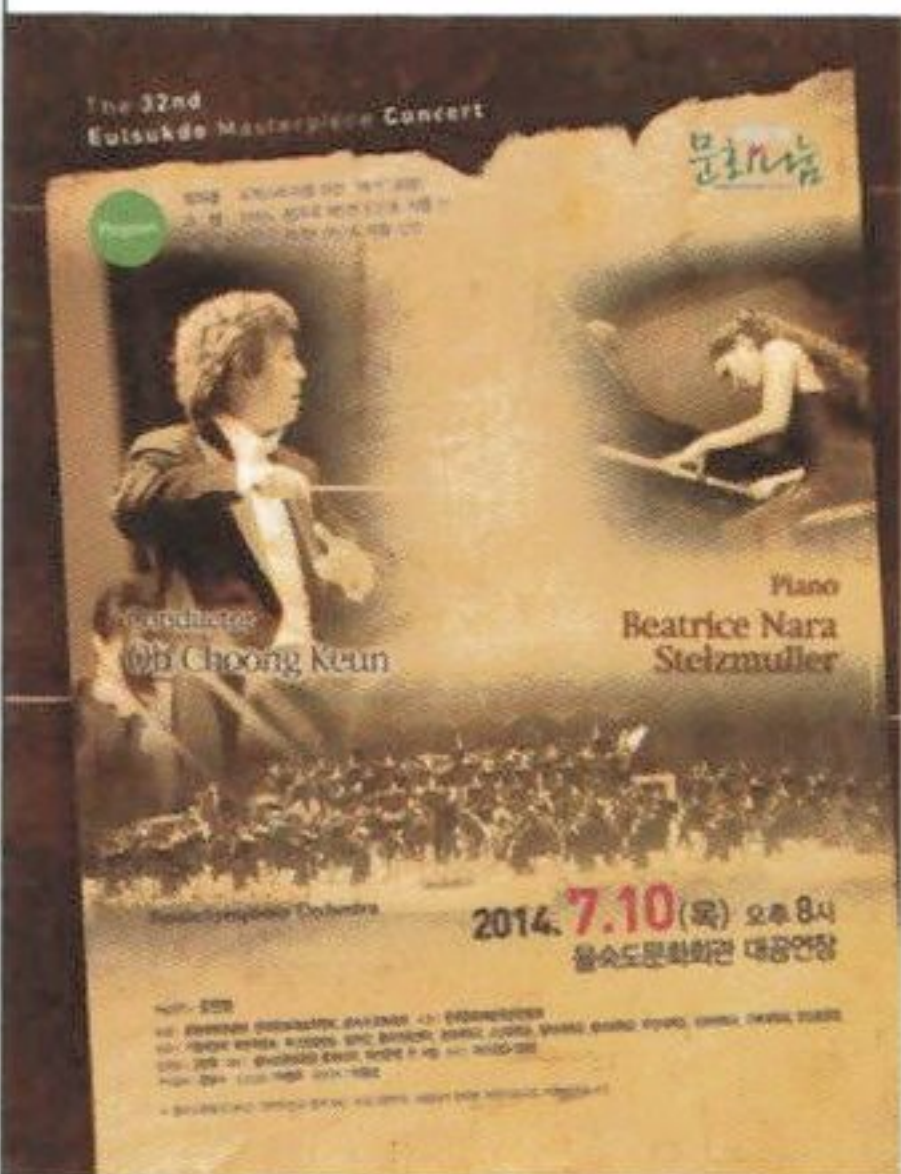


과거 소련을 구성했던 공화국 중 하나로, 서남아시아의 유서깊은 국가인 아르메니아 공화국의 환상적이면서도 화려한 무대를 만날 수 있는 아르메니아 국립예술단 초청공연.

1938년 인민예술가이자 교수인 Tatul Altunyan 이 설립한 아르메니아 대표 공연단인 아르메니아 국립종합예술공연단이 민족의 고통과 외세침략에 대비한 영웅적 용기를 찬양하는 전통춤을 선보이며, '타르'라 불리는 아르메니아 민속악기 연주자 Miqayel Voskanyan이 지난 2011년 결성한 재즈공연팀 '미카엘과 친구들'이 전통악기를 활용한 현대적 감성의 아르메니아 전통음악을 들려준다.

제32회 을숙도명품콘서트

일 시 | 7월 10일 목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지휘자 오충근이 지휘하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연주로, 2012년 Lagny-sur-marne 국제피아노콩쿠르에서 최연소 나이로 우승한 한국계 오스트리아 피아니스트 베아트리스 나라 스텔쯔윌러가 부산 관객과 만나는 을숙도

문화회관 명품콘서트 7월 무대.

피아니스트 베아트리스 나라 스텔쯔윌러는 세 살의 나이에 피아노를 처음 시작해 6살 때 첫 연주회를, 8살때는 시립교향악단 협연자로 무대에 섰다. 그동안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독주회를 가져온 스텔쯔윌러는 현재 영국 런던 Royal Academy of Music에서 장학생으로 음악수업을 받고 있다.

프로그램

임지훈/오케스트라를 위한 애가(哀歌)
 쇼팽/피아노협주곡 제1번 마단조 작품 11
 슈만/교향곡 제4번 라단조 작품 120

숙명가야금연주단 Favorite Gayageum Melodies

일 시 | 7월 10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학생예술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S석 1만 2천원, A석 8천원, B석 5천원
 문 의 | 부산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20, 8119

1999년 우리나라 최초의 가야금오케스트라로 창단한 후 다양한 레퍼토리와 완성도 높은 연주로 국내외 가야금 음악의 아름다움을 전파해온 숙명가야금연주단 초청무대.

특히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비틀즈 메들리와 파헬벨의 '캐논변주곡'으로 친숙한 숙명가야금연주단은 이번 무대에서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솔리스트의 다양한 협연무대와 더불어 가야금 연주에 맞춘 비보이 공연도 선보인다.

• 비보이 협연/리버스 크루



유니세프 아동 기금 음악회 제5회 with FRIENDS 여름 음악회

일 시 | 7월 11일 금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박민정 010-3069-9777



부산예술중학교 재학생들이 매년 여름과 겨울, 두 차례 마련하는 with FRIENDS의 다섯 번째 무대.

'with FRIENDS'는 1, 2회 연주회 당시 천마재활원 친구들을 초대해 뜻깊은 무대를 만든데 이어 3회 연주회부터는 유니세프 아동기금 모금을 위한 음악회로 거듭나면서 기아에 허덕이는 전 세계 어린이들을 위한 따뜻한 사랑의 음악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출연/박상현(3년), 김민지(3년), 박소영(1년, 이상 피아노), 김주연(3년), 천나은(3년, 이상 바이올린), 정유진(2년), 정원진(2년), 조소연(2년, 이상 성악), 양승연(1년, 첼로), 김한별(2년, 대금), 최경진(2년, 가야금)
- 그림찬조/임세영(2년), 정원정(1년)
- 초조출연/부산예중 어머니합창단, 부산예중 중창단

김한기 교수와 함께하는 행복콘서트

일 시 | 7월 11일 금요일 오후 7:30
 수아트홀
 문 의 | 수아트홀 744-1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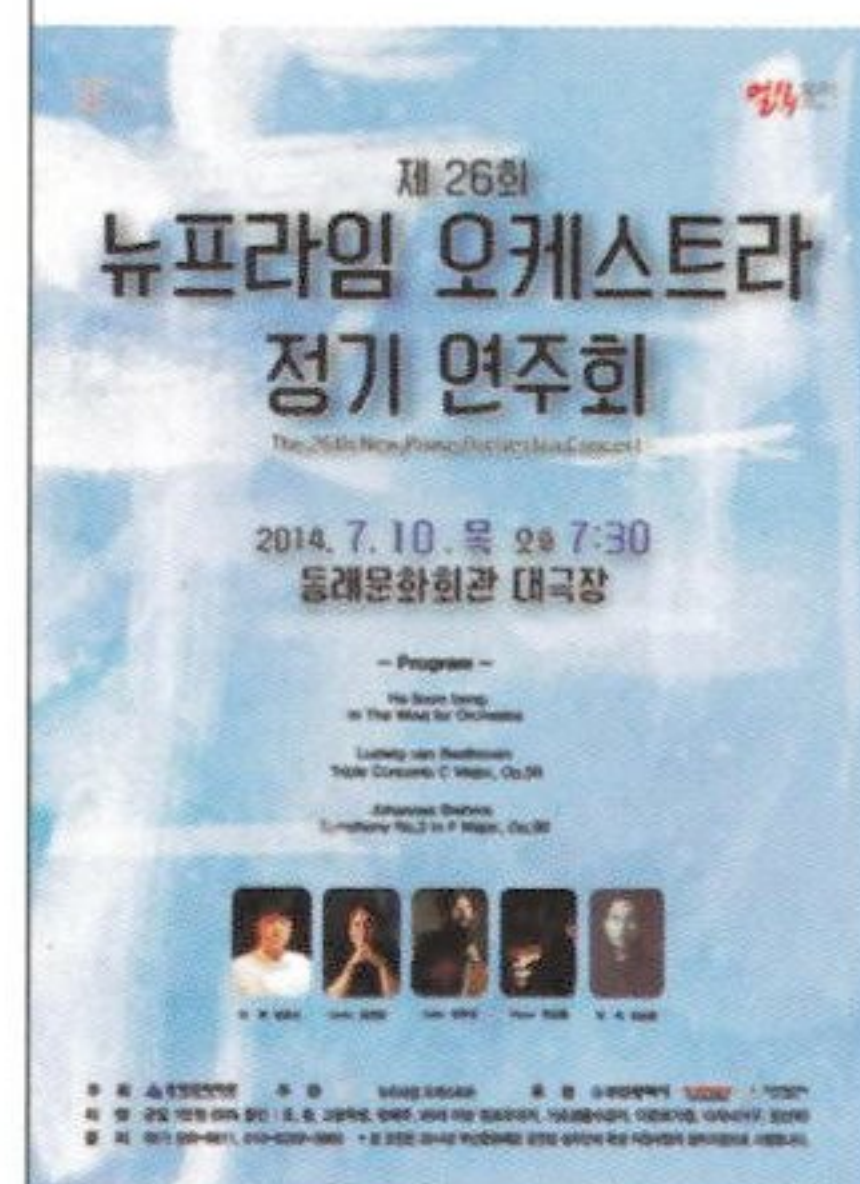


2012년 5월 개관 후 연주자와 청중이 가까워서 함께 호흡하는 무대를 꾸준히 열어온 해운대 수아트홀이 창원대학교 예술대학장, 대구스트링스현악합주단 악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한기 교수와 함께하는 행복콘서트.

카메라타 부산 악장, 아도르심포니오케스트라 악장,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객원악장으로 활동중인 바이올리니스트 김희정과 울산시립교향악단 단원, 센토 챔버 소사이어티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첼리스트 김기량, 창원시립교향악단 비올라 수석, 비르투오조앙상블 단원으로 활동중인 첼리스트 김은진이 김한기 교수와 함께 현악앙상블 연주를 들려준다.

제26회 뉴프라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일 시 | 7월 10일 목요일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초중고생 50% 할인)
 문 의 | 동래문화회관 550-6611



동래문화회관 상주단체로, 지난 2007년 결성된 후 다양한 무대에 서온 뉴프라임오케스트라의 26번째 정기연주회.

서울심포니에타 리더 겸 음악감독, 서울시립대학교 예술체육대학장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준, 인제대학교 교수,

IFB 음악감독, iTrio 단원으로 활동하는 첼리스트 양욱진, Iris앙상블, iTrio 단원으로 활동하는 피아니스트 정성흡이 협연한다.

프로그램

하순봉/In The Wind for Orchestra
 베토벤/트리플 콘체르토 작품 56
 브람스/교향곡 제3번 작품 90
 • 지휘/임준오
 • 협연/김영준(바이올린), 양욱진(첼로), 정성흡(피아노), 하순봉(작곡)

비르투오조 앙상블과 함께하는 실내악의 밤

일 시 | 7월 14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비르투오조 앙상블 890-1318



1995년 동의대학교 백재진 교수를 주축으로 창단된 후 부산을 대표하는 실내악 단체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폭넓은 레퍼토리를 선보여온 비르투오조 앙상블과 동의대학교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이동성이 함께하는 실내악의 밤.

이동성은 연세대학교와 미국 클리블랜드 음악원 석사과정, 워싱턴주립대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그동안 한국, 미국에서의 독주회를 비롯 클리블랜드음악원 교향악단, 부산시립교향악단, 체코 Oulamoch Orchestra 등과 협연무대를 가진 바 있다.

프로그램

헨델-할보르센/파사칼리아
 베토벤/피아노 트리오는 제3번 작품 1
 슈만/피아노4중주 작품 47

프로그램
가이드

브릴란떼 오페라먼트 제9회 정기연주회
Concerto Della Diva

일 시 | 7월 15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브릴란떼 오페라먼트 010-2962-0459



지난 2003년 브릴란떼 솔리스트 앙상블로 첫 걸음을 내딛은 후 다양한 무대에 서온 브릴란떼 오페라먼트의 9번째 정기연주회.

이태리 베르디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예르바국제성악콩쿠르 1위 및 최고의 목소리상을 수상한 김미정,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시립합창단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윤희, 이태리 Giuseppe Niccolini(Piacenza) 국립음악원, 이태리 Orfeo(Parma) 오페라 아카데미를 졸업한 박소영, 이태리 Ottorino Respighi 국립음악원, 로마 A.R.A.M Accademia 성악전문가과정을 졸업한 이수진 등 4인의 소프라노가 우리가곡 및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 피아노/안준희

동래문화회관 제27회 숲속의 열린음악회
**오카리나 여행-
마음의 소리를 찾아서**

일 시 | 7월 15일 화요일 오후 8:0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예매시 1만원)
문의 | 동래문화회관 550-6611

동래문화회관이 매월 다채로운 장르의 음악으로 관객과 만나는 숲속의 열린음악회 7월 무대로, 싱그러운 초여름과 어울리는 오카리나 세계로 음악여행을 떠난다.

2002년 전문 음악전공자들로 구성된 부산의 대표적인 오카리나 앙상블인 아인양상블과 마더아인양상블, 피아니스트 노은주, 기타리스트 홍광현이 출연해 영화, 드라마 OST, 가요, 팝송 등 우리 귀에 친숙한 연주곡을 들려준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오카리나 제작자 김일웅이 특별출연, 오카리나 제작과정을 무대에서 직접 시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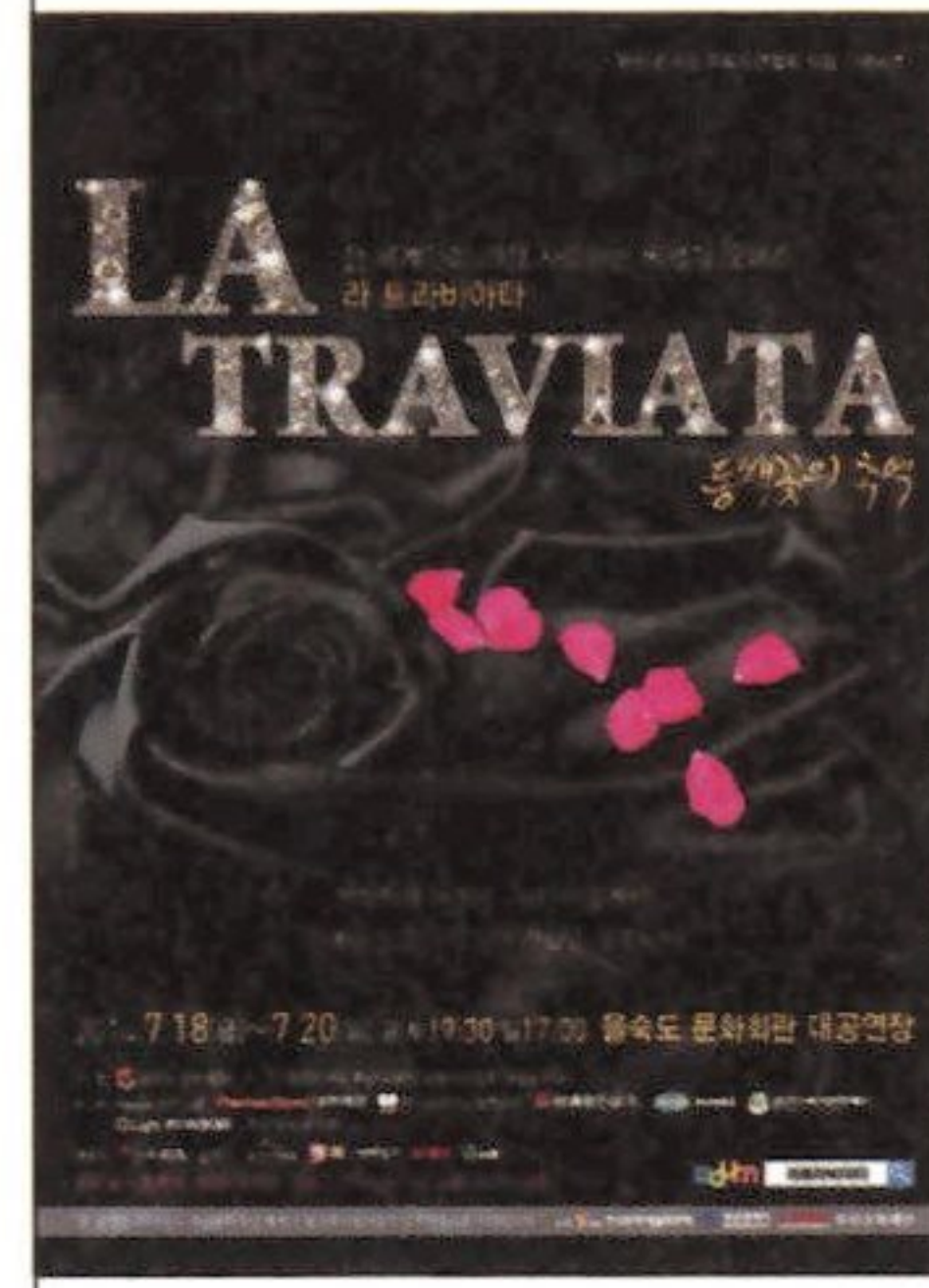
프로그램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 엔딩테마, 드라마 '모래시계' 중 '이연', '백학', 광화문연가, 제주도의 푸른밤, 사랑찾아 인생찾아, 에버그린, 자바 라이브, 젓가락 행진곡 등 수곡

• 세션연주/홍광현(기타), 김정태(베이스), 조오령(피아노), 정신구(드럼)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일 시 | 7월 18일-19일 금-토요일 오후 7:30
20일 일요일 오후 5:00
울속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1층 3만원, 2층 2만원, 중고생 1만원
문의 | 울속도문화회관 220-5812



서부산권의 문화중심지 울속도문화회관이 서부산권지역 주민들과 부산시민들을 위해 마련한 오페라 콘서트 '라 트라비아타'.

젊은 신진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이번 무대는 파리 사교계의 미모의 무희 비올레타와 프로방스 출신의 순정적인 청년 알프레도와의 비극적인 사랑을 그린 베르디 원작의 내용을 그대로 살리되, 오페라와 연극을 접목시킨 음악극 형식으로 관객들에게 새롭게 다가간다.

- 연출/양지웅
- 출연/소프라노 박상희, 왕귀현, 강민성, 테너 김기형, 홍지형, 바리톤 박대용, 연극인 박찬영, 이정비
- 연주/메트로폴리탄팝스오케스트라
- 합창/오페라컴퍼니합창단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클라리네티스트 황윤원 독주회

일 시 | 7월 19일 토요일 오후 5:0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고전음악감상실인 무지크바움이 2013년부터 진행해오고 있는 살롱음악회 7월 무대.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는 그동안 실력있는 연주자들의 실연을 눈앞에서 감상할 수 있어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네덜란드 아르헨헴음악원을 졸업하고 즈월레음악원 윈드 오케스트라 지휘과를 수료한 클라리네티스트 황윤원이 클래식 명곡에서부터 영화음악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모차르트/클라리넷 협주곡 K.622, 2악장(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 OST)
Carnevale di Venezia (capriccio variato)
영화 '신들러리스트' OST 등

부산예술가곡회 정기연주회

일 시 | 7월 19일 토요일 오후 7:00
글로벌아트홀
입장료 | 자율
문의 | 글로벌아트홀 505-5995

소프라노 조신미, 김연경, 박순정, 이경숙, 테너 채사무엘, 조창현, 문상준, 양수배 등이 주축이 되어 창작가곡 활성화에 주력하고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들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창단한 부산예술가곡회 7월 정기연주회.

• 사회/조신미 • 피아노/김정숙

'피아노가 좋아요' 첫 번째 이야기

일 시 | 7월 21일 월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권준 010-8717-7963

부산예술중학교와 부산예술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피아노 전공학생들이 꾸미는 무대.

피아노 음악을 사랑하는 차세대 유망주들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가슴 따뜻한 음악회로, 이번 무대에서는 베토벤, 쇼팽, 리스트 등 다양한 작품이 연주된다.

7월 한낮의 유U; 콘서트
**유쾌한 그 남자들,
Take-Out Ensemble**

일 시 | 7월 22일 화요일 오전 11:00
롯데호텔부산 아트홀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의 | 국제신문 문화사업국 500-5222

부산의 대표적인 브런치 콘서트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한낮의 유U; 콘서트 7월 무대.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악가 오동주, 김진영, 강웅태, 강은태, 김성, 임성규, 양승엽, 최광현, 성민기와 피아니스트 유영욱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남성 앙상블 Take-Out Ensemble이 뮤지컬과 팝페라, 대중가요, 오페라 아리아 등을 들려준다.

테너 9명의 음색으로 즐기는 쇼 콰이어(단순한 합창이 아닌 춤과 노래, 연기를 곁들인 음악공연) 무대로, 때로는 감미롭게, 때로는 웅장하게 변화하는 목소리로 감동의 무대를 펼친다.



Program Guide >>

제1회 벨라 무지카 정기연주회 피아노 듀오와 함께하는 즐거운 음악여행

일 시 | 7월 22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강현아 010-5520-8728



고신대학교 동문인 피아니스트 강현아, 전지혜, 조성희, 이은진으로 결성된 벨라 무지카의 첫 번째 정기연주회.

강현아는 고신대학교 음악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금정구 여성합창단, 수영구 소년소녀합창단 반주자로, 전지혜는 고신대학교 음악대학원을 졸업하고 마산 하나로교회 지휘, 반주자로, 조성희는 신라대학교 예술대학원을 졸업하고 클랑음악전문학원 원장으로, 고신대학교 일반대학원 음악과를 수료하고 부산복된교회 반주자로 활동하고 있다.

프로그램

포레/돌리 모음곡 작품 56
브람스/헝가리 무곡 제5번
드보르작/슬라브 무곡 작품 72 제2번 등

춘향이 바이올린에 빠지다

-소리꾼 조아라, 바이올리니스트 조수현

일 시 | 7월 23일 수요일 오후 7:30
부산대학교 음악관 콘서트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조수현 010-5662-32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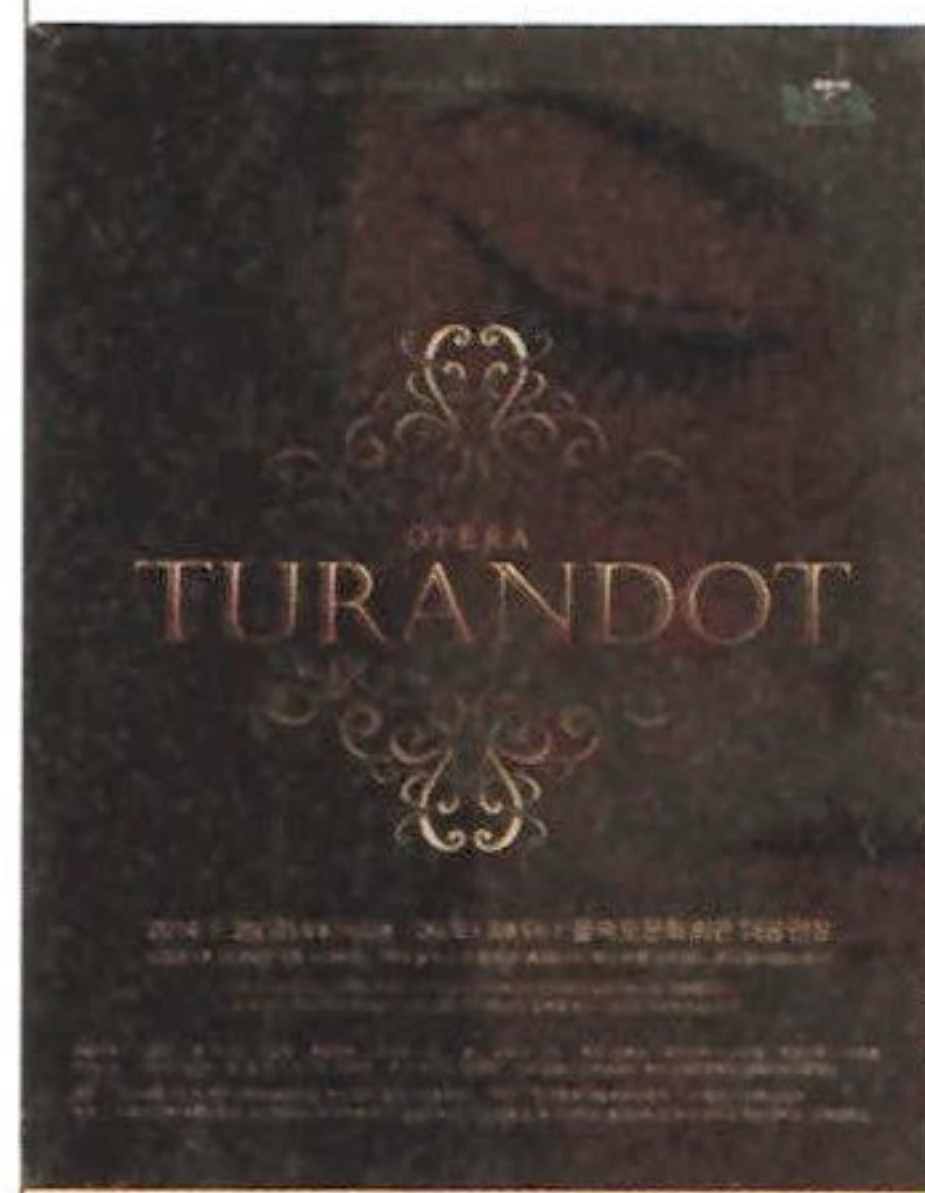
'춘향전'을 주제로 판소리와 바이올린 연주가 만난 색다른 무대 '춘향이 바이올린에 빠지다'. 부산대학교에서 학, 석사과정을 함께 공부한 소리꾼 조아라와 바이올리니스트 조수현이 만남과 사랑, 이별, 시련, 재회 등 5가지의 이야기로 관객과 새로운 소통을 시도한다.

바이올리니스트 조수현은 현재 경남심포니오케스트라 단원, '스펙트라온' 현대음악제 전속반주자로, 소리꾼 조아라는 제11회 여수 전남국악경연대회 판소리 일반부 최우수상, 제39회 부산 동래전국전통예술경연대회 일반부 대상을 수상하고 현재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34호 판소리 흥보가 전수장학생으로 활동하고 있다.



을숙도문화회관 제33회 명품콘서트 오페라 '투란도트'

일 시 | 7월 25일 금요일 오후 8:00
26일 토요일 오후 4: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1층 2만원, 2층 1만원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3



을숙도문화회관이 직접 제작한 오페라 무대로 화제가 되고 있는 을숙도문화회관 오페라 '투란도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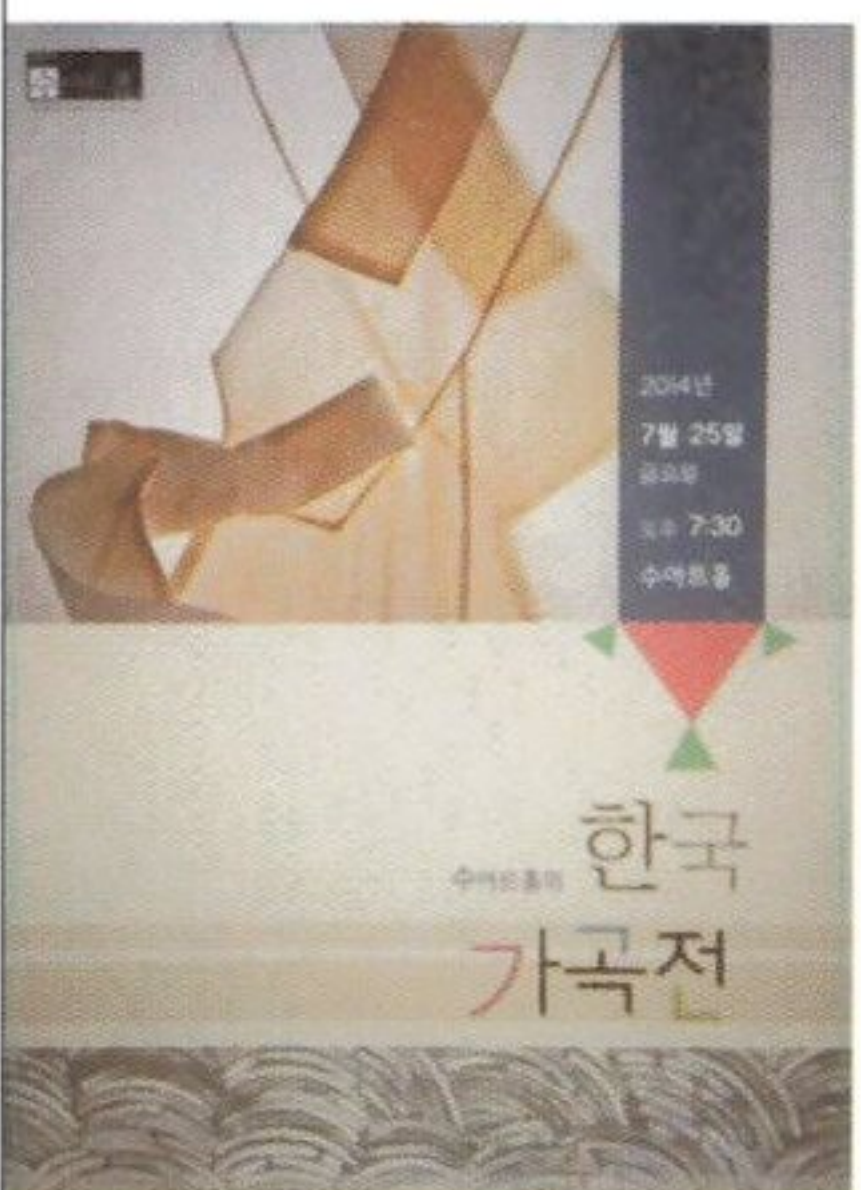
을숙도문화회관 상주예술단체인 T.I.F심포니오케스트라와 함께 무대에 올리는 오페라 '투란도트'는 얼음처럼 차갑고 잔인하지만 신비한 아름다움을 가진 공주 투란도트와 지혜롭고 능률한 왕자 칼라프의 이야기를 그린, 작곡가 푸치니의 마지막 오페라이다.

헤럴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 김봉미의 지휘, 오페라 제작소 밤비니 대표 김성경의 연출로, 투란도트 역에 소프라노 이화영, 김라희가, 칼리프 역에 테너 박기천, 이정원이 출연한다.

- 연주/T.I.F심포니오케스트라
- 합창/부산오페라합창단, 센텀어린이합창단

수아트홀 한국가곡전

일 시 | 7월 25일 금요일 오후 7:30
수아트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수아트홀 744-1415



2012년 5월 개관 후 연주자와 청중이 가까이서 함께 호흡하는 무대를 가저온 해운대 수아트홀이 새롭게 마련하는 특별무대 '한국가곡전'.

일제강점기 일본의 이식된 서양음악을 수용하면서 탄생된 한국가곡의 어제를 되돌아보고 시대별

특징과 그 시대 명곡을 통해 한국가곡사를 되짚어 본다.

소프라노 성정하, 김아름, 테너 최현규, 김경민, 바리톤 황상연, 정승화 등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성악가들이 1920년대부터 현재까지 널리 불리고 있는 한국가곡을 들려준다.

2014 기장 전국 리코더 페스티벌

일 시 | 7월 26일 토요일 오후 4:00
차성아트홀
입장료 | 무료
문 의 | 기장청소년리코더합주단
김영화 010-6768-5315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리코더합주단의 교류를 통해 리코더의 저변확대와 리코더 음악의 발전을 꾀하기 위한 2014 기장 전국 리코더 페스티벌.

기장청소년리코더합주단과 대구청소년리코더합주단, 여수청소년리코더합주단, 창원교사리코더양상블, 울산남산초등학교 리코더합주단, 춘천 에뚜왈 리코더양상블 등 전국 6개팀이 출연, 리코더 음악의 향연을 펼친다.

프로그램

모차르트/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 무지크
스트라우스/라데츠키 행진곡
비발디/두대의 트럼펫을 위한 협주곡 등



숙명가야금연주단의 해설이 있는 음악회 가야금 For You

일 시 | 7월 26일 토요일 오후 3:00, 6:0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초중고생 50% 할인)
문 의 | 동래문화회관 550-6611

가야금 크로스오버 연주로 유명한 숙명가야금연주단의 해설이 있는 음악회 '가야금 For You'.

지난 1999년 한국 최초의 가야금오케스트라로 창단된 후 2009년 KBS국악대상, 2010년 대한민국 한류대상을 수상하며 국악한류를 이끌어 온 숙명가야금연주단은 이번 무대에서 숙명여자대학교 전통문화예술대학원 송혜진 교수의 해설로, 25현 가야금의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준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비보이그룹 리버스쿠루와 함께 우리국악의 대중화, 세계화에 발판이 된 대표적인 퍼포먼스 공연도 펼친다.



프로그램
가이드

글로벌 행복음악회

일 시 | 7월 27일 일요일 오후 3:00
글로벌아트홀

입장료 | 자율(글로벌장학재단 기금마련)

문의 | 글로벌아트홀 505-5995

국제 수준의 어쿠스틱 음향 연주홀인 글로벌아트홀이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 마련하는 상설무대 글로벌 행복음악회.
글로벌아트홀은 그동안 지역민과 부산시민들의 문화 저변확대를 위해 다양한 장르의 수준높은 공연을 무대에 올려왔다.



제63회 사진이 있는 작은 음악회 박고운, 박진우 '첼로&피아노'

일 시 | 7월 29일 화요일 오후 7:00
고은컨템포러리사진미술관

입장료 | 후원비 1만원

문의 | 고은사진미술관 010-4781-5959

현재 올림푸스 앙상블 단원으로 호흡을 맞추고 있는 첼리스트 박고운과 피아니스트 박진우의 무대. 박고운은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립음대 최연소 입학, 최우수 졸업, 비엔나 국립음대 대학원과 존스홉킨스 피바디음악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동안 독주회 및 오케스트라 협연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독일 데트몰트 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하노버국립음대에 재학중인 박진우는 2010년 Pietro Argento 국제콩쿠르 1위 및 전체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프로그램

리스트/위로 제3번

바그너-리스트/트리스탄과 이졸데 중 '사랑의 죽음'
리스트/발라드 제2번 등



동래문화회관 목요국악힐링콘서트 춤추는 가얏고

일 시 | 7월 31일 목요일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소극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의 | 동래문화회관 550-6611

젊은 국악연주자들로 구성된 국악밴드 아비오가 펼치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신명나는 무대 동래문화회관 목요국악콘서트.
2007년 결성된 국악밴드 아비오(我飛娛)는 '음악을 자유로이 즐기는 사람'을 뜻하는 말로, 기존 국악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음악을 스스로 찾아보고자 하는 젊은 국악인들이 의기투합하여 만든 퓨전국악그룹이다.
아비오는 다양한 기획공연과 초청연주를 통해 한국적인 느낌과 전통의 색깔은 고수하면서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아비오만의 음악을 널리 알려왔다.



BS금융그룹 행복한 음악캠프 수료 축하연주회

일 시 | 8월 2일 토요일 오후 4: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재)BS금융그룹희망나눔재단 620-3049

BS금융그룹이 국내외 음악인들과 함께 지역의 클래식 음악 인재 양성을 위해 마련한 행복한 음악캠프 수료 축하연주회.

행복한 음악캠프는 예술총감독 오충근 고신대학교 교수, 양고은 경희대학교 교수(바이올린), 최승룡 전 KBS교향악단 수석(비올라), 이윤정 경희대학교 교수(오보에) 등 17개 분야 33명의 교수진들이 오디션을 거쳐 선발된 고등학생, 대학생 등 100여명의 음악도들과 함께 합숙하며 개인별로 맞춤레슨을 가진다.

- 지휘/오충근
- 협연/김영미(플루트), 박라나(하프)
- 연주/BS뮤직캠프오케스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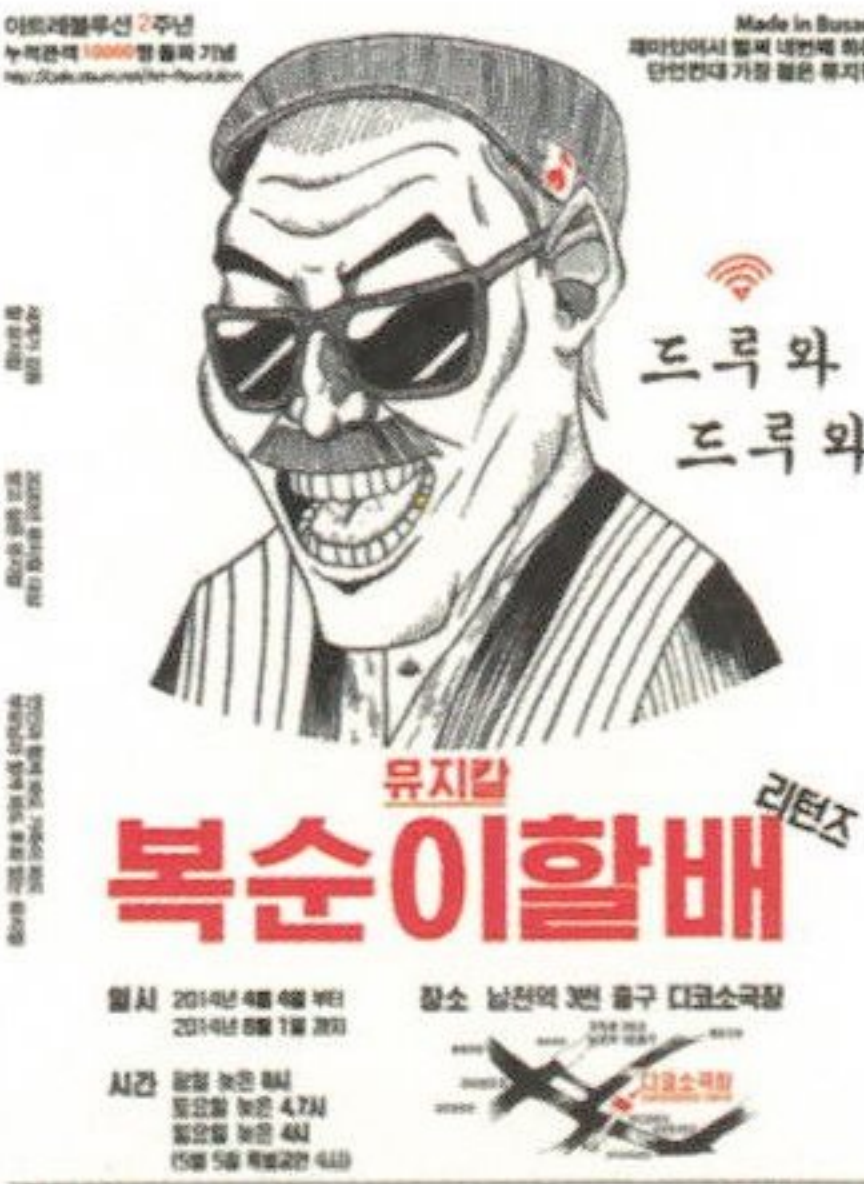
연극

창작뮤지컬 복순이할배 리턴즈

일 시 | 4월 4일(금)-8월 24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4:00
(일요일 공연없음) 디코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의 | 아트 레볼루션 010-7749-8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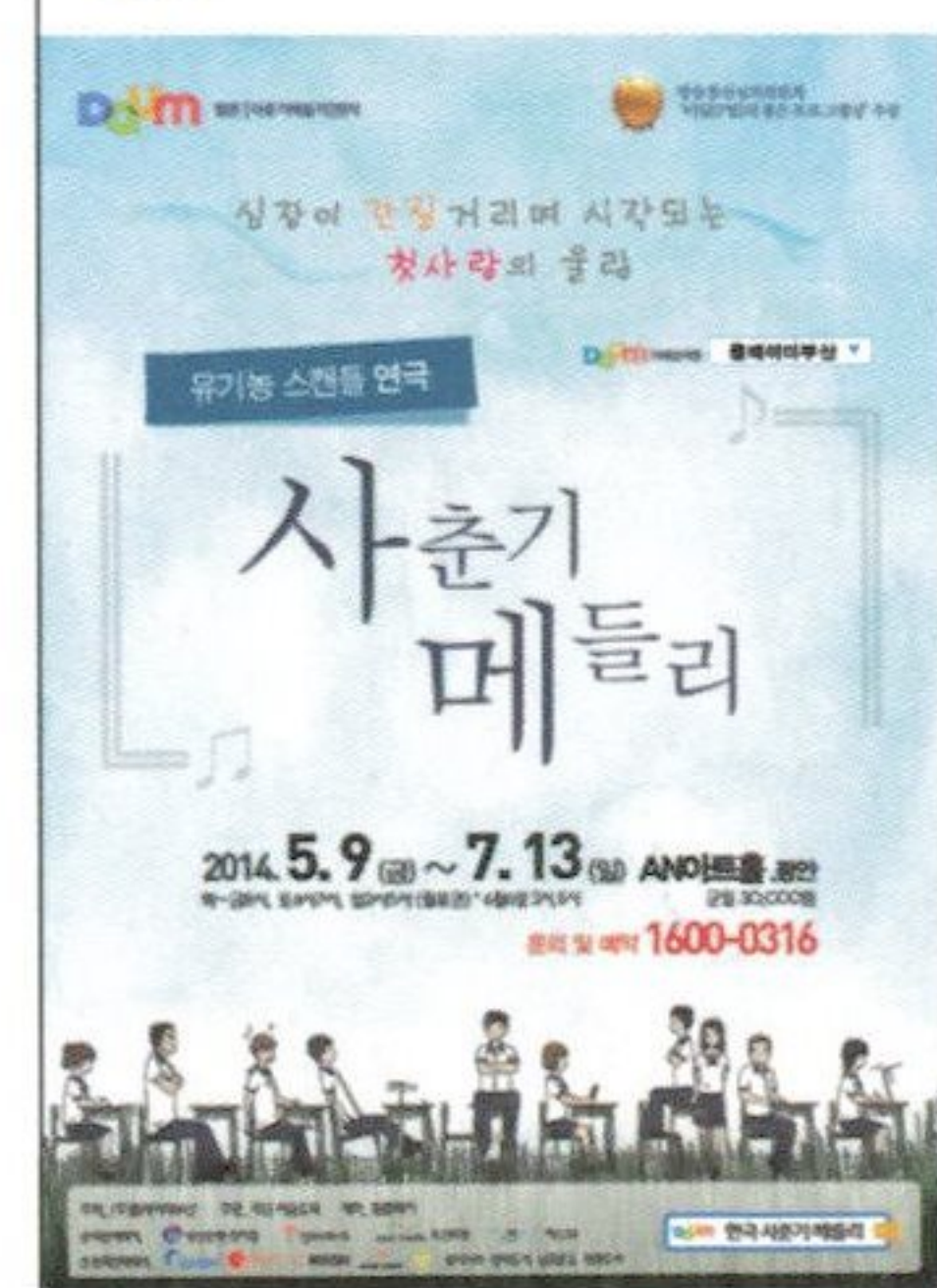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따뜻한 감동으로 그려낸 창작뮤지컬 '복순이할배 리턴즈'. 친구처럼 지내는 옛사랑 지혜의 마음을 돌리려 애쓰지만, 사랑을 모른다는 이유로 거절한 사회복지과 학생 태수는 학과 실습차 괴짜 독거노인 복순이 할배집에 가게 되고, 할배로부터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그를 생각하고 위하는 마음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배우게 된다.

- 연출/박정우
- 출연/박준성, 박정우, 손아영, 김경원, 채민수, 김범수

연극 사춘기 메들리

일 시 | 5월 9일(금)-7월 13일(일) 화-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
(일요일 공연없음) AN아트홀.광안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의 | (주)플레이더 부산 1600-0316



인터넷에 연재되어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객인준 작가의 동명의 웹툰을 무대에 올린 연극 '사춘기 메들리'. 아버지의 직장 때문에 낯설고 한적한 시골마을에 전학 온 주인공 정우를 통해 순수했던 첫사랑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사춘기 메들리'는 지난해 7월 드라마로도 제작되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정하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을 드라마 최초로 수상하기도 했다.

Program Guide >>

공포호러연극 2014 두여자

일 시 | 6월 4일(수)~9월 7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초록우산 가온아트홀 1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평일 60%, 주말
50% 할인)

문의 | SM기획 1600-1602



서늘한 반전이 있는 탄탄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시각, 청각 뿐 아니라 후각, 촉각, 미각 등 인간의 오감을 통해 지금까지 기존의 호러극에서 느껴보지 못한 색다른 공포를 선사하는 호러연극 '두여자' 10년 전, 정신분열증을 심하게 앓았던 언니 주성희, 그녀는 방화사건으로 정신병원에 갇히게 된다. 그 사건으로 부모님들은 모두 돌아가셨지만 그녀의 쌍둥이 동생 주명희만은 극적으로 살아남아 지금은 평범한 가정을 꾸미며 살고있다. 그 후로부터 10년 후, 10년 전 그 일을 떠올리며 불안해하는 주명희 앞에 언니 주성희가 나타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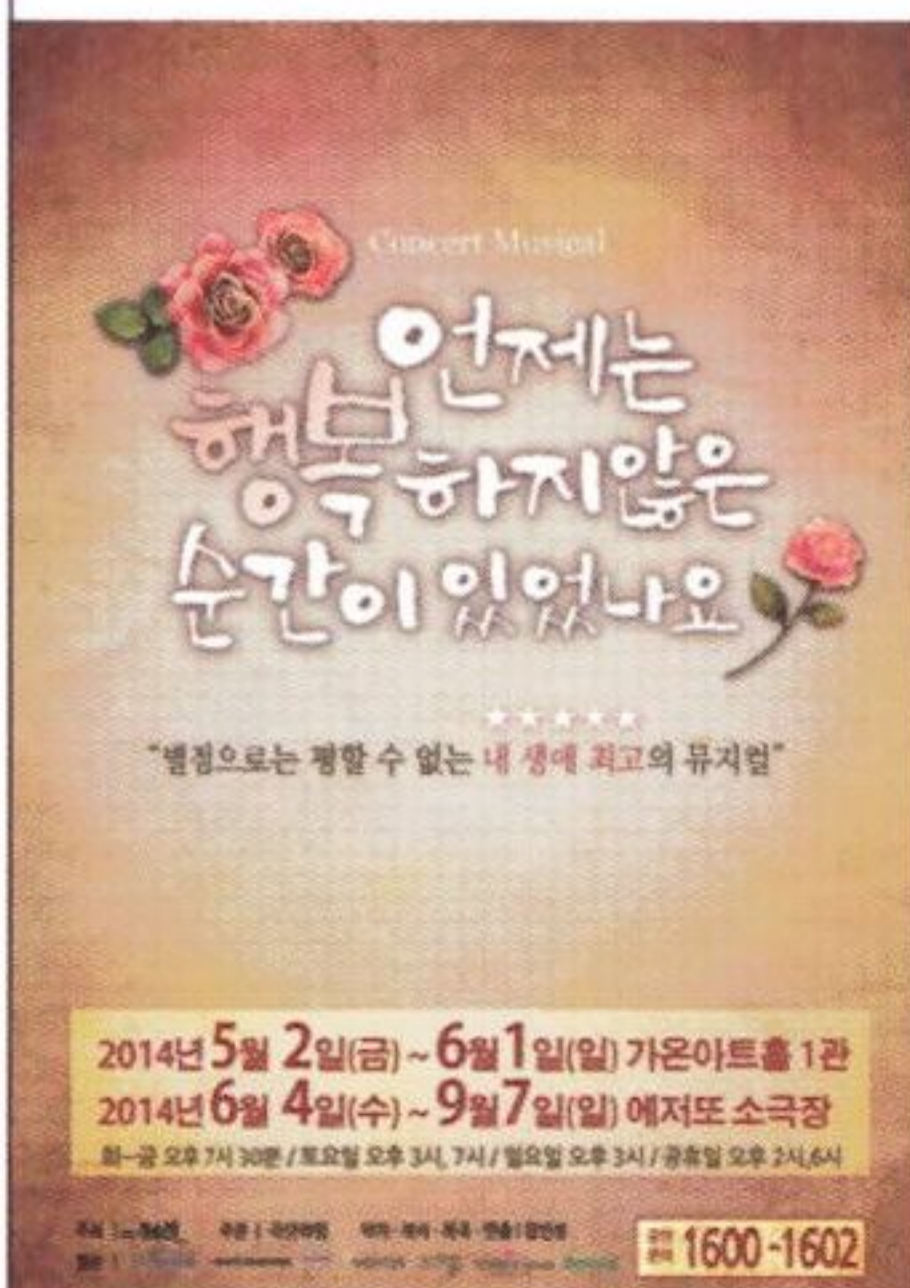
콘서트뮤지컬

언제는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있었나요

일 시 | 6월 4일(수)~9월 7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6:00 에저또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평일 60%, 주말
50% 할인)

문의 | SM기획 1600-1602



10년 동안 한사람을 그리워해온 남자 태양과 10년 동안 한사람을 마음에만 품어온 여자 두나, 그리고 친구의 첫사랑을 이어주기 위해 노력해온 두나의 소꿉친구 만식과 제니 등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위로해주는 두 쌍의 연인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콘서트 뮤지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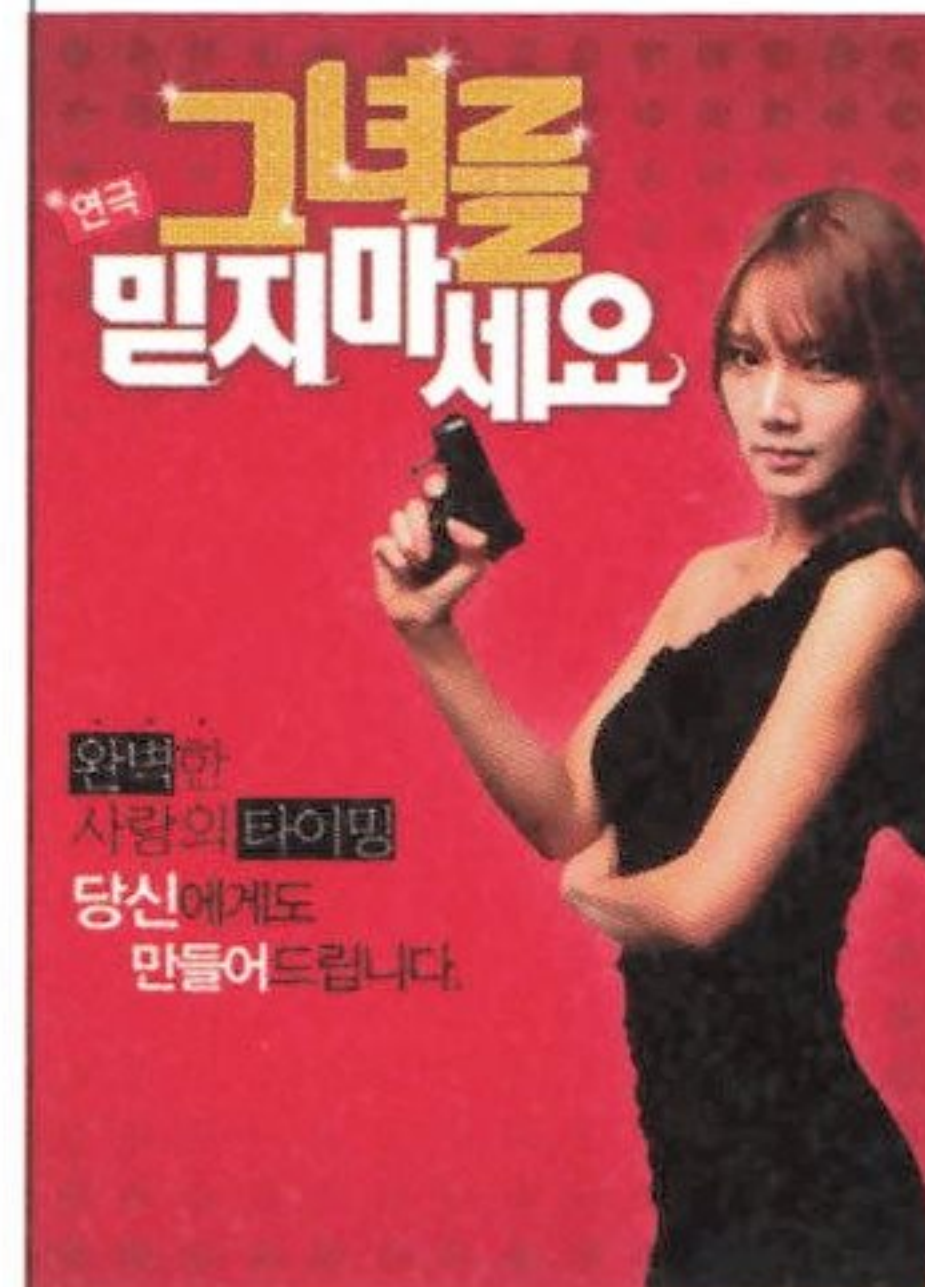
•작, 작사, 작곡, 연출/김인

그녀를 믿지 마세요-부산

일 시 | 6월 12일(목)~7월 13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5:30,
8:00, 일요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조은극장 스타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BS부산은행 조은극장 1588-27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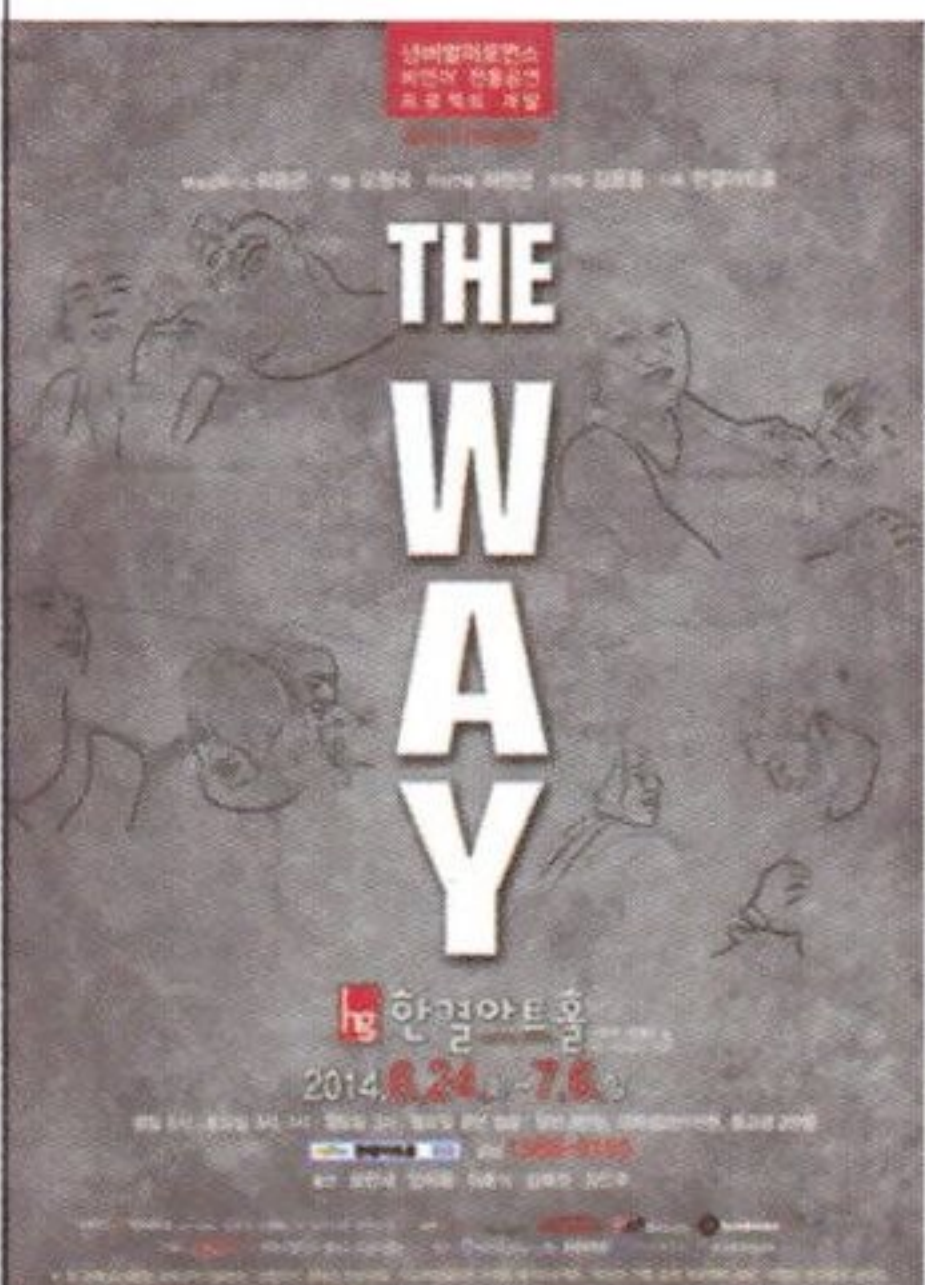
감출 수 없는 사랑의 감정을 고백하기 위한 '썸 타는' 커플의 좌충우돌 이야기를 다룬 로맨틱 코미디 연극 '그녀를 믿지 마세요' 부산공연. 미워할 수 없는 천방지축 사고뭉치 준희가 2년간 짝사랑해 온 차도남 차명석과 사랑의 결실을 맺기 위해 연애키텐

설팅 업체에 의뢰하면서 펼쳐지는 '그녀를 믿지 마세요'는 로맨틱 코미디다운 톡톡 튀는 대사와 허를 찌르는 웃음코드가 관객들의 폭소를 자아낸다.
•출연/변아로미, 차승연, 문성운, 이진실

년버벌 퍼포먼스 The Way 2014

일 시 | 6월 24일(화)~7월 6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공휴일 오후 3:00 한결아트홀

입장료 | 일반 3만원, 대학생 2만 5천원, 초중고생 2만원
문의 | 한결아트홀 1588-9155
www.hangyeolarthal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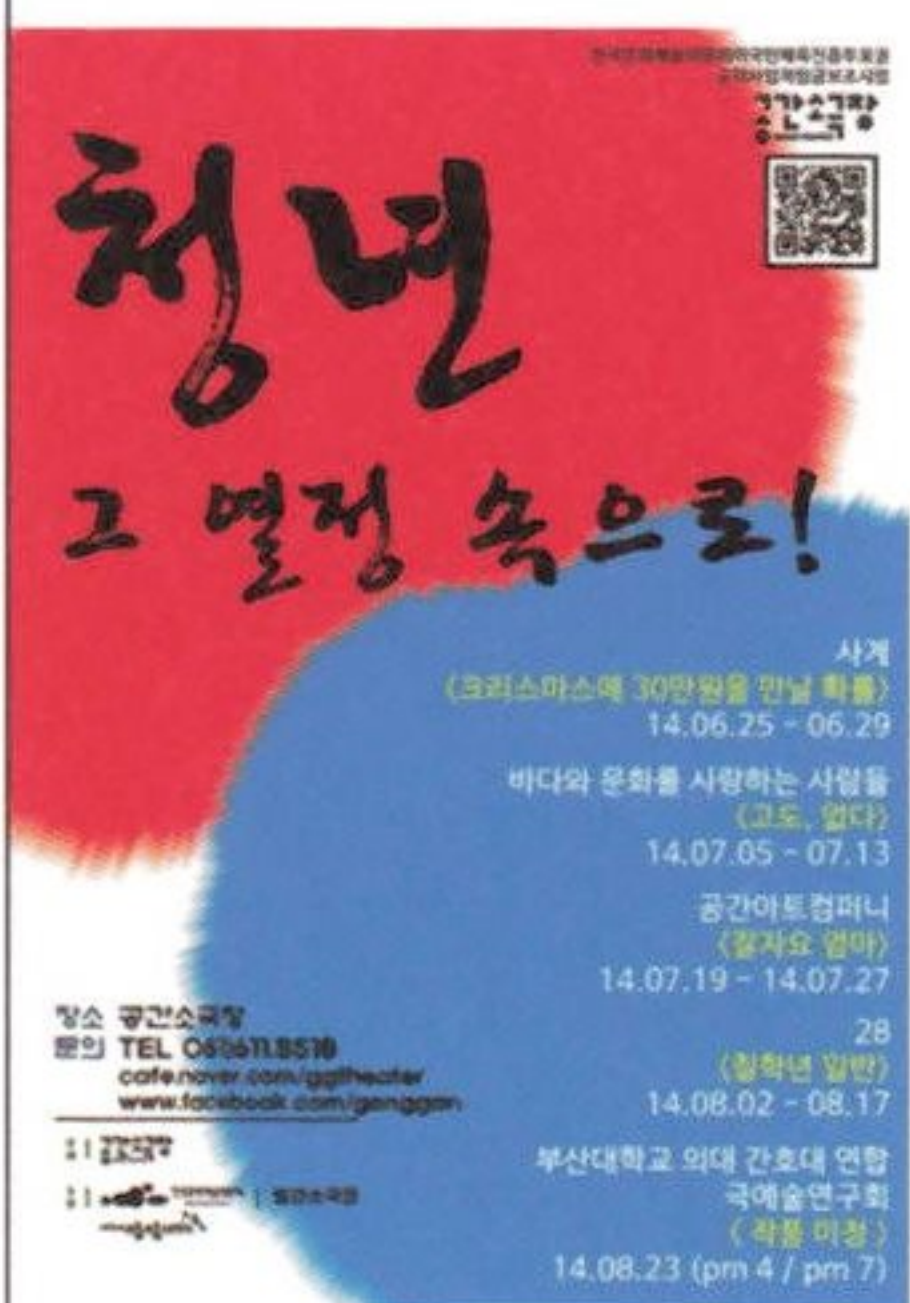


삼국유사 중 '조신의 꿈'을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선승이었던 혜암스님의 선문찰요 중 수미산화로 풀어낸 년버벌 퍼포먼스극 'The Way 2014'. 인생의 단계를 이미지화해 각 장면별로 인생의 단계별 고민과 선택의 과정을 그려낸 'The Way 2014'는 관념적일 수 있는 무거운 주제를 코믹한 장면과 영상을 이용해 이해하기 쉽게 풀어냈다.
•작/이종근
•연출/오정국
•마임연출/하현관
•출연/장한새, 안지환, 이준석, 김예진, 김민주

2014 청년 열정 속으로

일 시 | 6월 25일(수)~8월 17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
(월요일 공연없음) 공간소극장

입장료 | 무료('고도, 없다'는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 공간소극장 611-6518



공간소극장이 부산의 젊은 연극인들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해 마련한 특별한 무대 '청년 그 열정 속으로' 2014년 무대.

6월 25일(수)~29일(일) 극단 세계 '크리스마스에 30만원을 만날 확률' 가족해체라는 절망적

인 상황에서도 인간에 대한 애정과 따뜻함으로 웃음과 위안을 전해주는 코믹 가족극. 크리스마스 전날 아들은 여자 친구와의 데이트 비용을 구하기 위해 어머니에게 거짓말로 돈을 빌리고, 어머니는 자기 애인을 경찰서에서 빼내기 위해 남편에게 돈을 빌리고, 아버지는 애인과 크리스마스를 즐기기 위해 아들에게 돈을 빌리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진다.

•예술감독/김만중 •작/오세혁
•연출/김정환 •출연/박소민, 이영봉, 김정환

7월 5일(토)~13일(일) 극단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고도, 없다' 부조리극의 대명사 '고도를 기다리며'를 한국식으로 재해석한 창작극. 여성적 공감대의 확장을 통해 고도의 다양한 의미를 시대와 상황에 맞게 재해석해 본다.
•작, 연출/최은영
•출연/김진주, 류송이, 권혁진, 최은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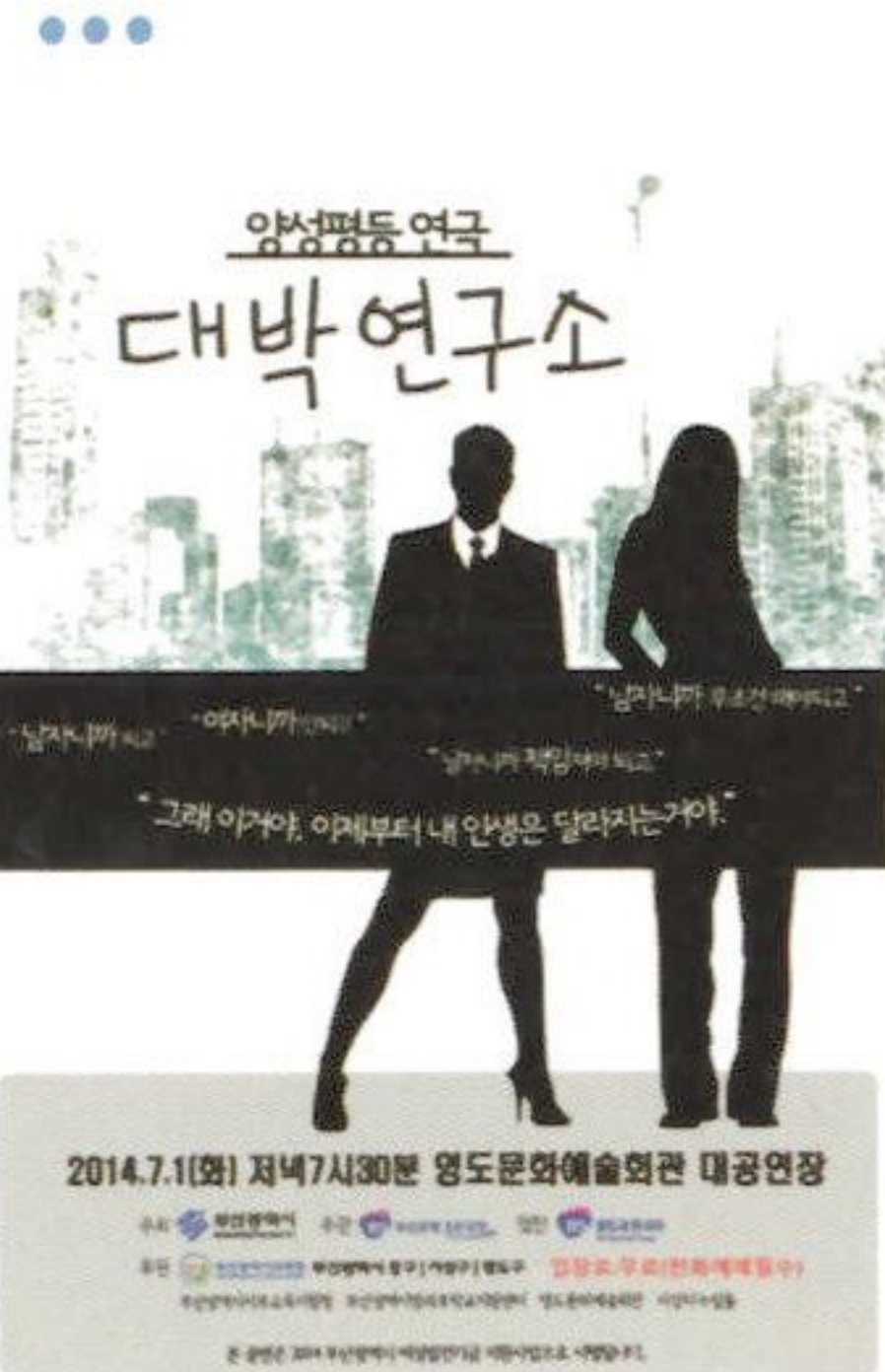
7월 19일(토)~27일(일) 공간아트 컴퍼니 '잘 자요, 엄마' 1983년 희곡부문 풀리처상 수상의 영광을 안겨준 미국의 여성극작가 마사 노먼의 대표작 '잘 자요, 엄마'. 딸의 자살을 앞둔 모녀의 마지막 밤이라는 다소 충격적인 소재를 그린 작품으로, 무대의 시간과 실제 시간이 동일하게 흘러간다.
•작/마사 노먼
•연출/전상배
•출연/임선미, 강혜림, 정유주, 김민경

8월 2일(토)~17일(일) 극단 28 '칠학년 일반'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한 만학도의 그녀들이 펼치는 인생 이야기 '칠학년 일반'.
•작, 연출/김지영
•출연/고미선, 김진주, 전자연, 김수홍

프로그램
가이드

양성평등연극 **대박연구소**

일 시 | 7월 1일 화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입장료 | 무료(전화예매 필수)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2014 부산광역시 가족사랑 및 양성평등 공모사업 당선작으로, 남녀차별적 문화개선을 주제로 한 양성평등연극 '대박연구소'. 고전소설 흥부놀부전을 소재로 차용한 '대박연구소'는 가까운 미래, 원하는 성별을 바꿔주는 대박연구소를 배경으로 젊은 청춘남녀들의 민감한 주제인 '원나잇'과 '임금'이라는 주제를 통해 남녀불평등의 문제를 풀어낸다.

- 연출/이원준
- 작/김민수
- ※ 7월 2일(수) 오후 7:30 사상다누림홀
- 7월 3일(목) 오후 2:30 BS부산은행 조은극장
- 7월 4일(금) 오후 3:00 중구청 강당

세계명작뮤지컬 **빨간모자와 늑대**

일 시 | 7월 4일 금요일 오전 10:20, 11:30,
5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입장료 | 균일 8천원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명작동화를 뮤지컬로 제작한 '빨간모자와 늑대'. 평화로운 마을에 늑대가 나타나자 마을사람들은 공포에 떠다. 엄마의 심부름으로 할머니 병문안을 가게 된 빨간모자는 늑대가 있는 숲속으로 가지 말라는 어른들의 말을 무시하고 늑대가 있는 지름길인 숲속으로 간다. '어른의 말을 귀담아 듣는 착한 어린이가 되자'는 교훈적인 내용을 담은 '빨간모자와 늑대'는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동물 캐릭터와 재미있는 율동, 다양한 무대변화로 극의 몰입도를 높여준다.

뮤지컬 **김종욱 찾기**

일 시 | 7월 11일 금요일 오후 8:00,
12일 토요일 오후 3:00, 7:00,
13일 일요일 오후 2:00, 5: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R석 5만 5천원, S석 4만 4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 (주)WSM 1566-54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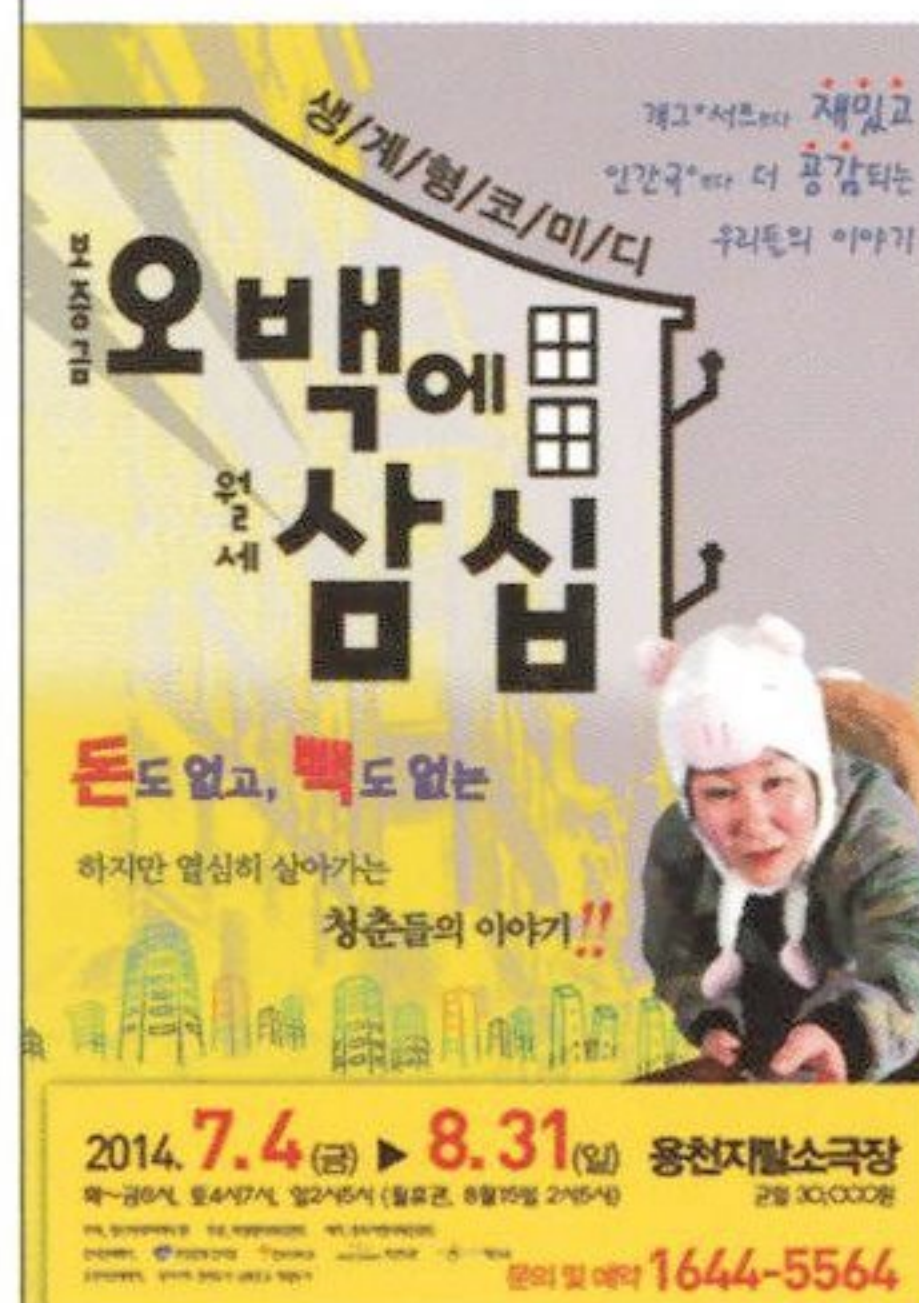


2006년 초연 이후 지금까지 대학로를 대표하는 창작뮤지컬계의 스테디셀러 뮤지컬로 사랑받아 온 '김종욱 찾기' 부산공연. 첫사랑을 찾아나선 남자와 첫사랑을 찾아주는 남자의 티격태격로맨틱 코미디 뮤지컬로, 제12회 한국뮤지컬대상 2관왕, 제1회 뮤지컬 더 뮤지컬 어워즈 4관왕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 2013년에는 국내무대를 넘어 6월과 11월 중국 상해와 일본 동경에서 공연되면서 국내 최초 한·중·일 아시아 3개국에서 공연한 창작뮤지컬로 기록되기도 했다.

- 극작, 작사/장유정
- 작곡/김혜성

생계형 코미디극 **오백에 삼십**

일 시 | 7월 4일(금)-8월 3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용천지랄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화랑엔터테인먼트 1644-55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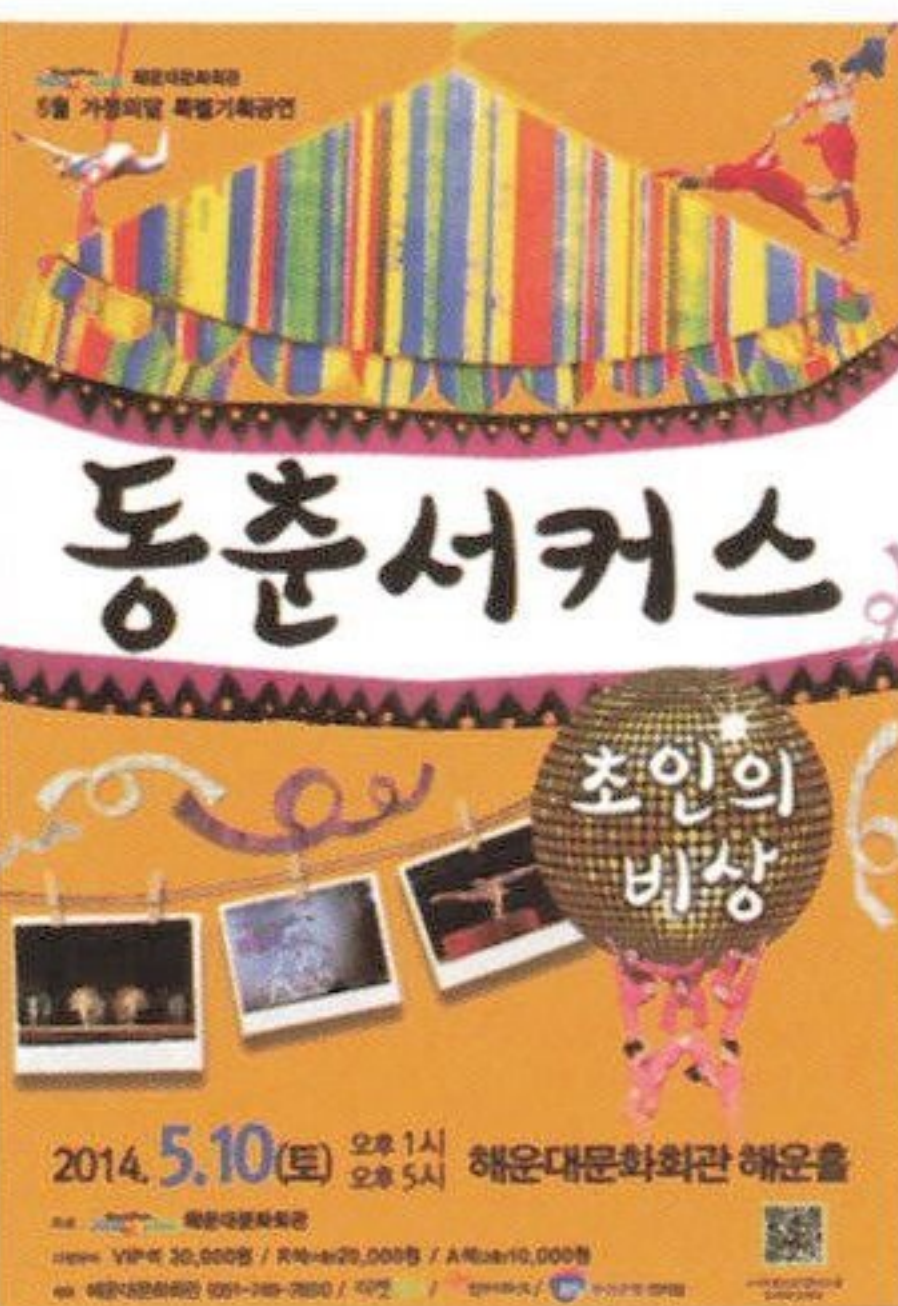


보증금 오백만원에 월세 삼십만원 '7평 원룸'에서 생활터전을 꾸려가는 젊은 청춘들의 꿈과 삶을 그린 연극 '오백에 삼십'. 돈 없고 뺨 없어도 열심히 유쾌하게 살아가는 젊은 청춘들이 모여사는 '독자원룸'을 배경으로, 어느날 원룸에 의문의 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코믹하게 풀어낸 '오백에 삼십'은 남녀노소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생활 속 주제에 뛰어난 연기력으로 무장한 개성 강한 캐릭터가 더해져 관객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안겨준다.

- 작, 연출/박진영

해운대문화회관 특별기획공연
동춘서커스 - 초인의 비상

일 시 | 7월 5일 토요일 오후 1:00, 5: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VIP석 3만원, R석 2만원, A석 1만원
(학생 및 단체 30%, 장애인, 국가유공자 50% 할인)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1925년 일본서커스단에서 독립한 30여 명의 조선인들로 창단된 88년 역사와 전통의 동춘서커스단 초청공연. 국내 유일의 서커스단으로, 전통적인 곡예와 모기에 무용, 마술, 음악 등 예술성을 가미한 현대서커스로 관객들과 새롭게 만나고 있는 동춘서커스단은 이번 무대에서 변검, 서커스 발레, 공중수직 줄타기, 공중실크, 불방망이 저글링 등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수준높은 서커스 공연을 선보인다. 동춘서커스단은 이번 무대에서 어른들에게는 어린 시절의 향수를, 어린이들에게는 가슴 떨리는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부두연극단 30주년 기념공연 **서쪽부두**

일 시 | 7월 16일(수)-27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월요일 공연없음)
한결아트홀
입장료 | 일반3만원, 대학생 1만 5천원
중,고생 1만원(사랑티켓 참가작)
문 의 | 부두연극단 010-5580-4364
한결아트홀 1588-9155



최신 해외극을 선보여온 부두연극단이 창단 30주년을 기념해 마련하는 연극 '서쪽부두'. 샤뮤엘 베케트 이후 최대의 극작가로 일컬어지는 프랑스 작가 브르나르-마리 콜테스의 '서쪽부두'는 자본주의 사회의 경쟁에서 밀려난 다인종 사람들이 폐쇄된 창고에서 벌이는 처참한 생존경쟁을 그린 작품이다. 콜테스는 현대문명의 그늘인 소외와 폭력문제를 주로 다뤄온 작가로, 이번 작품을 통해 현대문명에 관한 문제와 새로운 연극형식을 탐구하고 있는 부두연극단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볼 수 있다.

- 연출/이성규
- 출연/권철, 이영아, 구미석, 안성혜, 하희진 외

극단 에저또 몽? 몽! 몽...

일 시 | 7월 25일 금요일 오후 7:30,
26일 토요일 오후 4:30,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 5천원

문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소심한 고시생 경태는 길에서 주운 천원으로 복권을 산다. 그 천원을 잃어버린 여대생 유희는 천원을 찾기 위해 천원을 잃어버리게 한 가판대 주인아줌마와 한판 싸우고, 그 옆에서 담배를 사려던 다혈질 일용과도 시비가 붙게 된다. 싸움을 말리던 경태는 그 와중에 1억에 당첨된 복권을 잃어버리고... 천원짜리 복권으로 인해 벌어지는 서민들의 웃기기도 슬픈 이야기 창작극 '몽? 몽! 몽...'.

- 작/심상교
- 연출/최재민
- 출연/최재민, 이지훈, 김지연, 변창열, 이주현, 공성주, 임철진, 이미경, 남성욱, 김기태, 황진호, 박채현, 최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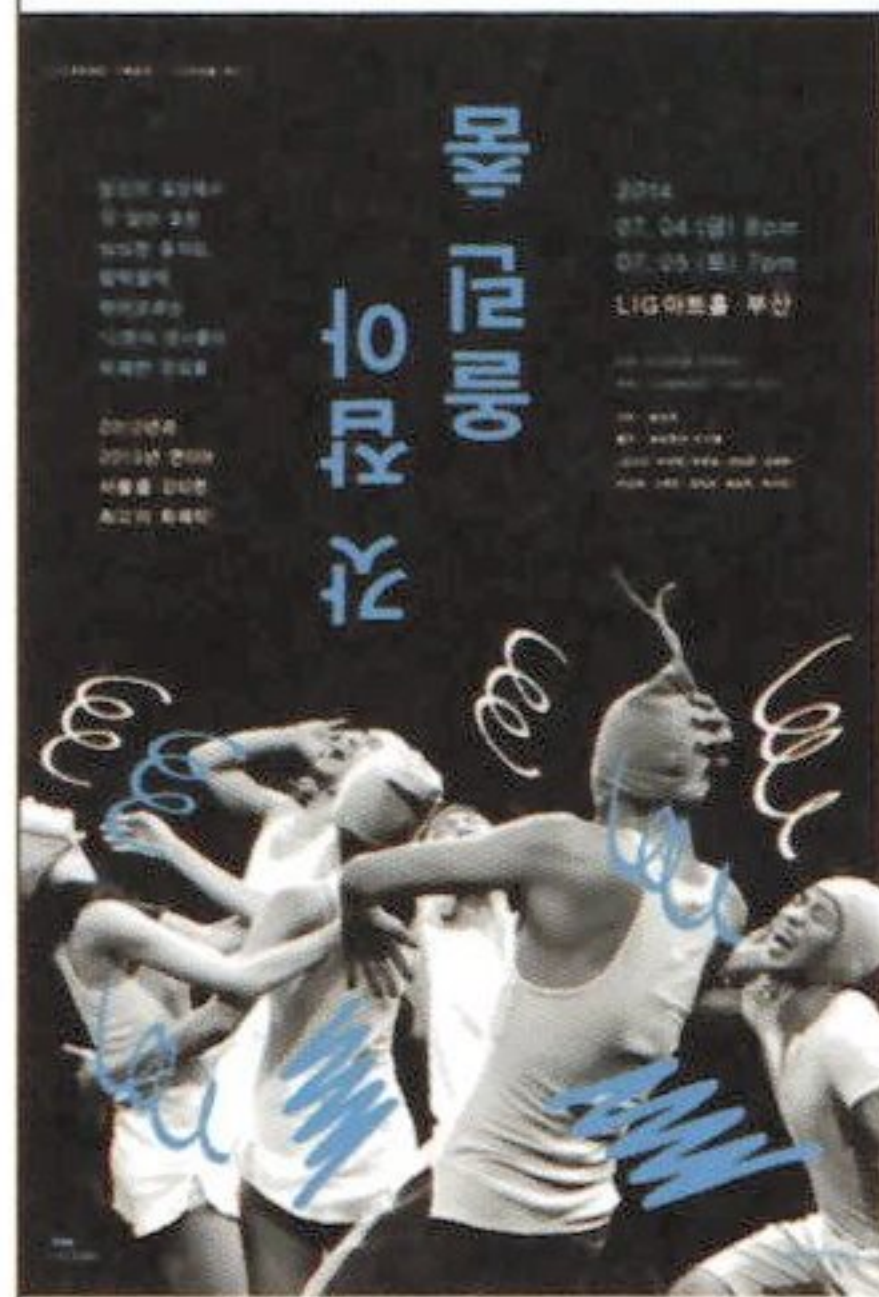
무용

류장현 안무작 갓 잡아 올린 춤

일 시 | 7월 4일 금요일 오후 8:00, 5일 토요일 오후 7:00 LIG아트홀·부산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의 | LIG아트홀·부산 661-8701



발칙하고 솔직한, 그리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안무와 춤으로 현재 가장 주목받는 젊은 안무가인 류장현의 화제작 '갓 잡아 올린 춤'.

지난 2012년 초연된 후 2013년 현대무용으로서는 드물게 2주간 장기 공연에서 매진사례를 기록해 화제가 되었던 '갓 잡아 올린 춤'을 2014년 여름 새롭게 선보이는 이번 무대는 유년 시절의 기억을 바탕으로 숨바꼭질, 공차기에서부터 대한민국 남자들이 통과해야 하는 군대생활 등 평범한 일상에서 포착된 움직임과 장면들을 댄서들의 팔딱팔딱 뛰어오르는 춤으로 표현한다.

- 안무, 연출/류장현

2014버전 창작발레 운현궁의 봄

일 시 | 7월 10일-11일 목-금요일
오후 2:30, 8: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1층 3만원, 2층 2만원, 어린이, 중고생 1만원
문의 | 김옥련발레단 626-9486



타 장르와의 융합과 우수한 문예작품을 재해석한 새로운 구성의 창작발레로 관객과 만나고 있는 김옥련발레단 창작발레 '운현궁의 봄'. 김동인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운현궁의 봄'은 유학의 병폐와 당파싸움으로 지배계급은 썩어가고 백성들은 참혹한 가난에 허덕이던 조선 500년 말, 서구문명이 물밀 듯이 밀려오던 시기를 배경으로, 흥선 대원군과 명성황후 민비의 회한과 소명, 인간적 고뇌 그리고 갈등, 쇠국과 개방의 충돌, 몰락과 해후를 창작발레로 표현한 작품이다.

- 안무/김옥련, 유은주
- 연출/유상홀
- 배우/권철, 김미경
- 노래/김현애(소프라노)
- 연주/조희규(해금), 강원집(대금), 박태영(피리/태평소), 권다정(아쟁), 김지우(가야금), 주은지(거문고), 최정욱(장구), 김보연(팽과리)

안무가 김재덕 웃음

일 시 | 7월 26일 토요일 오후 5:00

LIG아트홀·부산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의 | LIG아트홀·부산 661-8701



안무, 춤에서부터 음악, 노래까지 재기발랄한 무용가이자 앙상블 컴퍼니 예술감독, 싱가포르 현대무용단이 지명한 첫 레지던스 안무가로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젊은 아티스트 김재덕의 무대. 지난 3월 오픈스튜디오에서 중간 제작단계 공개 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신작 '웃음'은 진실된 웃음과 거짓된 웃음이라는 '웃음의 양면성'을 무용수의 움직임이라는 실제와 애니메이션으로 그려낸 가상을 통해 나와 타인, 개인과 사회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한다.

- 안무, 작곡/김재덕
- 출연/치정식, 이정인, 한태준, 김래혁, 장지호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 아이스발레단 내한공연

잠자는 숲 속의 공주

일 시 | 7월 30일 수요일 오후 3:00, 8:00,
31일 목요일 오후 8: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R석 6만원, S석 5만원, A석 4만원

문의 | 영화의전당 780-6000

러시아 정통 아이스발레의 진수를 선보이고 있는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 아이스발레단 내한공연 '잠자는 숲 속의 공주'. 아이스링크로 바뀐 공연장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고전 발레를 감상할 수 있는 색다른 무대로, 토슈즈 대신 피겨스케이팅을 신은 무용수들이 얼음 위에서 마치 날개를 단 듯 역동적이며 화려한 기술과 함께 기존의 아이스 쇼와는 또 다른 정통 발레 공연 자태로서의 우아함도 함께 선보인다.



영화

2014 영화의전당 야외상영회

일 시 | 2일(수), 9일(수), 16일(수), 23일(수),
30일(수) 오후 8:00 영화의전당 야외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영화의전당 780-6000

국내 최대 야외스크린에서 펼쳐지는 명작영화의 감동 2014 영화의전당 야외상영회 7월 상영회.

2일 사랑을 부르는, 파리(감독/세드릭 클라피쉬, 상영시간 130분, 15세이상 관람가)

9일 대사건(감독/두기봉, 상영시간 90분, 15세이상 관람가)

16일 바베트의 만찬(감독/가브리엘 액셀, 상영시간 102분, 전체 관람가)

23일 마당을 나온 암탉(감독/오성윤, 상영시간 93분, 전체 관람가)

30일 브로드웨이를 쏘라(감독/우디 앨런, 상영시간 98분, 15세이상 관람가)



마당을 나온 암탉

프로그램
가이드

콘서트

**최진희, 김상배의
행복 Dream 7080 콘서트**

일 시 | 7월 17일 목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플라이투더스카이 컴백 스페셜 콘서트
'CONTINUUM' The Return-부산**

일 시 | 7월 26일 토요일 오후 7:00
KBS 부산홀
입장료 | R석 11만원, S석 9만 9천원
A석 7만 7천원
문 의 | (주)WSM 1566-5490



행사

이영란의 밀가루 체험놀이 가루야 가루야

일 시 | 7월 5일(토)-8월 31일(일)
영화의전당 비프힐(월요일 휴관)
입장료 | 어린이 2만 3천원, 어른 1만 7천원
문 의 | 영화의전당 780-6134

...
하얀 밀가루 속에서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느끼는 오감만족 체험놀이 '가루야 가루야'.

무지크바움 클래식과 재즈의 만남

일 시 | 7월 12일 토요일 오후 5:0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
무지크바움에서 지난해 7월부터 매일 진행중인 클래식과 재즈 매니아를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

[1부 프로그램]
- 게르기에프, 상트페테르부르크 마린스키극장 신관개관기념 갈라공연
- 알도 로마노, 일 까미노 다큐멘터리, 프랑스 포르콜르 공연

[2부 프로그램]

- 로드리고 이 가브리엘라, 일본공연실황
- 재즈발티카 2010 앙상블 공연실황, 마틴우드, 마이클울니, 라스다니엘슨
- 마이클 부블레, 메디슨 스퀘어 라이브
• 기획 및 진행/손명균, 박형석



**시를짓고듣는사람들의모임
시마당 제144회 시낭송대회**

일 시 | 7월 22일 화요일 오후 6:3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입장료 | 무료
문 의 | 회장 안태봉 017-552-0626

전시

인체과학전 사이언스 쇼 더 바디

일 시 | 4월 3일(목)-7월 6일(일)
KNN 월석아트홀
입장료 | 성인(만18세이상~만65세미만) 1만 2천원
소인(만24개월이상~만18세미만) 1만원
문 의 | (주)KNN 850-9383

...
인체의 구조와 움직임을 첨단 영상기술과 접목시켜 마치 직접 몸속 구석구석을 탐험하는 것과 같은 놀라운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인체과학전 '사이언스 쇼 더 바디'.

**명화를 만나다
한국근현대회화 100선**

일 시 | 4월 8일(화)-7월 6일(일)
부산시립미술관
입장료 | 균일 5천원
문 의 | 부산시립미술관 744-2602

...
1920년대부터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근현대 회화 반세기의 역사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별전 '명화를 만나다_한국근현대회화 100선'. 이인성, 구본웅, 오지호, 이상범, 이중섭, 이응노,



김기창, 박수근, 천경자 등 한국미술사에 큰 업적을 남긴 화가 57명의 수묵채색화 70점, 유화 30점 등 한국회화의 진수 100점이 선보인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한국 근·현대미술사의 '트로이카'로 꼽히는 이 중섭(1916~1956)의 '황소(1953년경)', 박수근(1914~1965)의 '절구질하는 여인(1954)', 김환기(1913~1974)의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1970)' 등을 만날 수 있다.

Sehen Zen 시선禪

일 시 | 5월 10일(토)-7월 30일(수)
고은사진미술관, 고은컨템포러리사진미술관
문 의 | 고은사진미술관 746-0055

...
고은사진미술관이 마련하는 두 번째 해외교류전으로, 다양한 사진형식을 통해 사진적 표현의 가능성을 넓혀온 독일의 주관주의 사진을 소개하는 'Sehen Zen 시선禪'. 독일 중부에서 활동하는 작가들로, 오토 슈타이너트의 영향권에 있는 아르노 안센Arno Jansen의 제자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작업방식이나 스타일에서

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작가 클라우디아 웨렌캠퍼와 요제프 스노블의 작업을 만날 수 있다.



클라우디아 웨렌캠퍼 요제프 스노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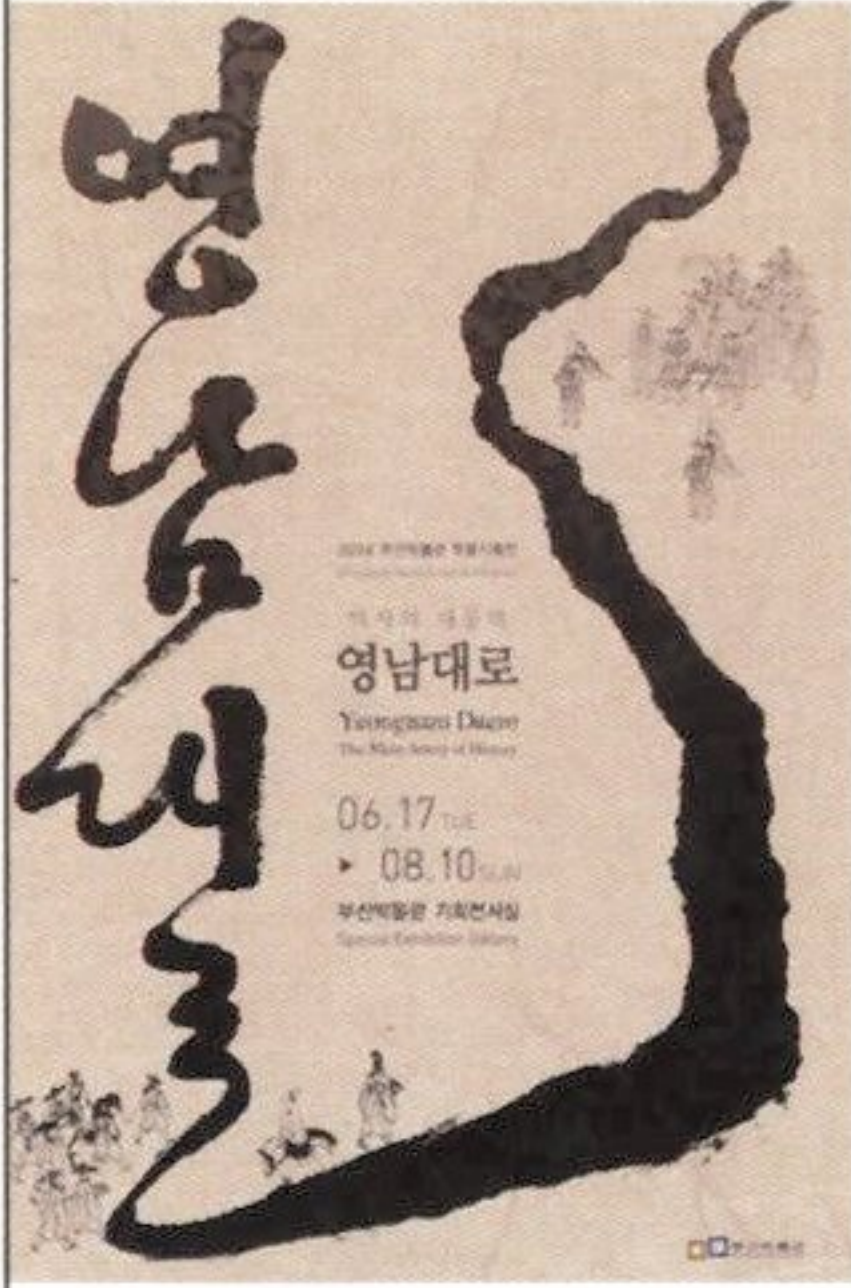
2014년도 제2회 신수유물소개전

일 시 | 5월 27일(화)-8월 24일(일)
부산박물관 기증전시실
문 의 | 부산박물관 610-7111

...
부산박물관이 최근 입수한 기증·수탁 유물이나 보존처리가 끝난 유물들을 소개하는 전시로, 청동기 시대 돌칼(磨製石劍), 삼국시대 두귀달린항아리(兩耳附壺), 고려시대 청자화형대접(靑磁花形大椀), 조선시대 백자청화초화문병(白磁靑華草花文瓶) 등 고 김현철 선생의 기증유물 30여 점 중 15점이 공개된다.

역사의 대동맥 영남대로嶺南大路

일 시 | 6월 16일(월)-8월 10일(일)
부산박물관 기획전시실
문의 | 부산박물관 610-7111



조선시대 동래에서 한양에 이르는 옛길인 영남대로(嶺南大路)의 역사와 문화를 조명해보는 특별 기획전.

'영남대로 조선의 혈맥', '역사와 통하다', '길 위의 사람과 풍속' 등 3개의 테마로 구성된 이번 전시회에서는 '대동여지전도'

를 비롯해 보부상 유물인 '인궐, 상무인(중요민속문화재 제30-3호)', '이의양필 산수도(부산시 지정유형문화재 제79호)', 김홍도 '행려풍속도병', 김준근 '기산풍속도첩' 등 200여점이 전시된다.

T'POP&PARTY'展

일 시 | 6월 16일(월)-7월 21일(월)
롯데갤러리 광복점
문의 | 롯데갤러리 광복점 678-2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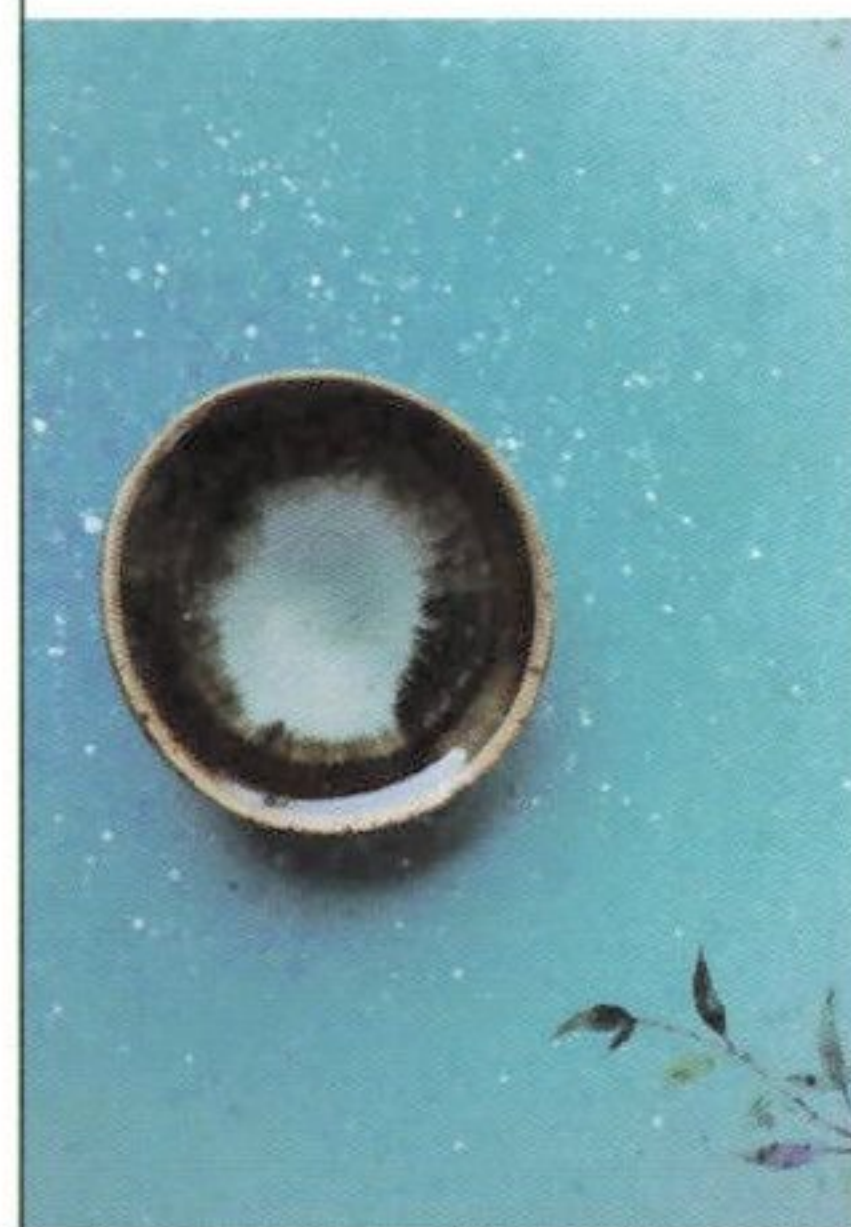
마리킴, 찰스장, 김지평, 김태중 등 감각적이고 현대적인 표현으로 주목받고 있는 팝아티스트 4인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POP&PARTY'展.



the Healing Table - 힐링 테이블

-김미희, 조재임-

일 시 | 6월 19일(목)-7월 18일(금)
소울아트스페이스 해운대점 제1, 2 전시실
문의 | 소울아트스페이스 731-5878



김미희 작 '접시'

최영준 개인전

일 시 | 6월 19일(목)-7월 18일(금)
소울아트스페이스 해운대점 제3전시실
문의 | 소울아트스페이스 731-5878

제61회 혁 정기전

일 시 | 7월 2일(수)-7월 10일(목)
BS부산은행 갤러리
문의 | BS부산은행 갤러리 246-8975

표현양식의 변모를 통해 조형이념의 내적 문제와 외부적 문제의 양면성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발전해온 부산현대미술단체 '혁'의 61번째 정기전.



김경남 작

Ken Done 캔 던 개인전

일 시 | 7월 4일(금)-8월 17일(일)
조현화랑 부산, 갤러리 다운타운
문의 | 조현화랑 부산 747-8853
갤러리 다운타운 746-8353

2000년 시드니 올림픽 공식 엠블럼 디자인을 비롯해 예술, 디자인, 관광분야에 있어 국가훈장을 받으며 호주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알린 호주의 대표적인 현대작가 캔 던 작품전.

캔 던은 호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풍부한 색감으로 표현, 호주 특유의 이미지를 가장 잘 반영하면서 호주의 국민작가로 불리고 있다.



설계스튜디오 전시 <시와 건축>

일 시 | 7월 7일(월)-7월 12일(토)
스페이스 움
문의 | 스페이스 움 557-3369

제40회 부산여류전

일 시 | 7월 11일(목)-7월 20일(일)
BS부산은행 갤러리
7월 23일(수)-7월 29일(화)
해운아트갤러리
문의 | BS부산은행 갤러리 246-8975
해운아트갤러리 742-2211

Eco movement 단체전 지구를 생각하다

일 시 | 7월 14일(월)-8월 2일(토)
스페이스 움
문의 | 스페이스 움 557-3369



강순구 작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지구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담은 환경 작품전.

북아내리는 북극빙하와 그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북극곰의 모습을 소이 왁스 캔들로 표현한 강순구, 생활 속 버려진 재료를 이용해 우리들의 모습을 나타낸 김정주, 그리고 김보경, 박일환, 김보라의 작품이 전시된다.

하비에 그라나도스 전

일 시 | 7월 15일(화)-8월 29일(금)
갤러리 아인
문의 | 갤러리 아인 747-2612

다채로운 칼라와 낙천주의적인 유머감각을 통한 여성의 일상과 심리를 작품 속에 담아온 스페인 작가 하비에 그라나도스 작품전.

아홉 번째 이길성 개인전

일 시 | 7월 22일(화)-7월 31일(목)
BS부산은행 갤러리
문의 | BS부산은행 갤러리 246-89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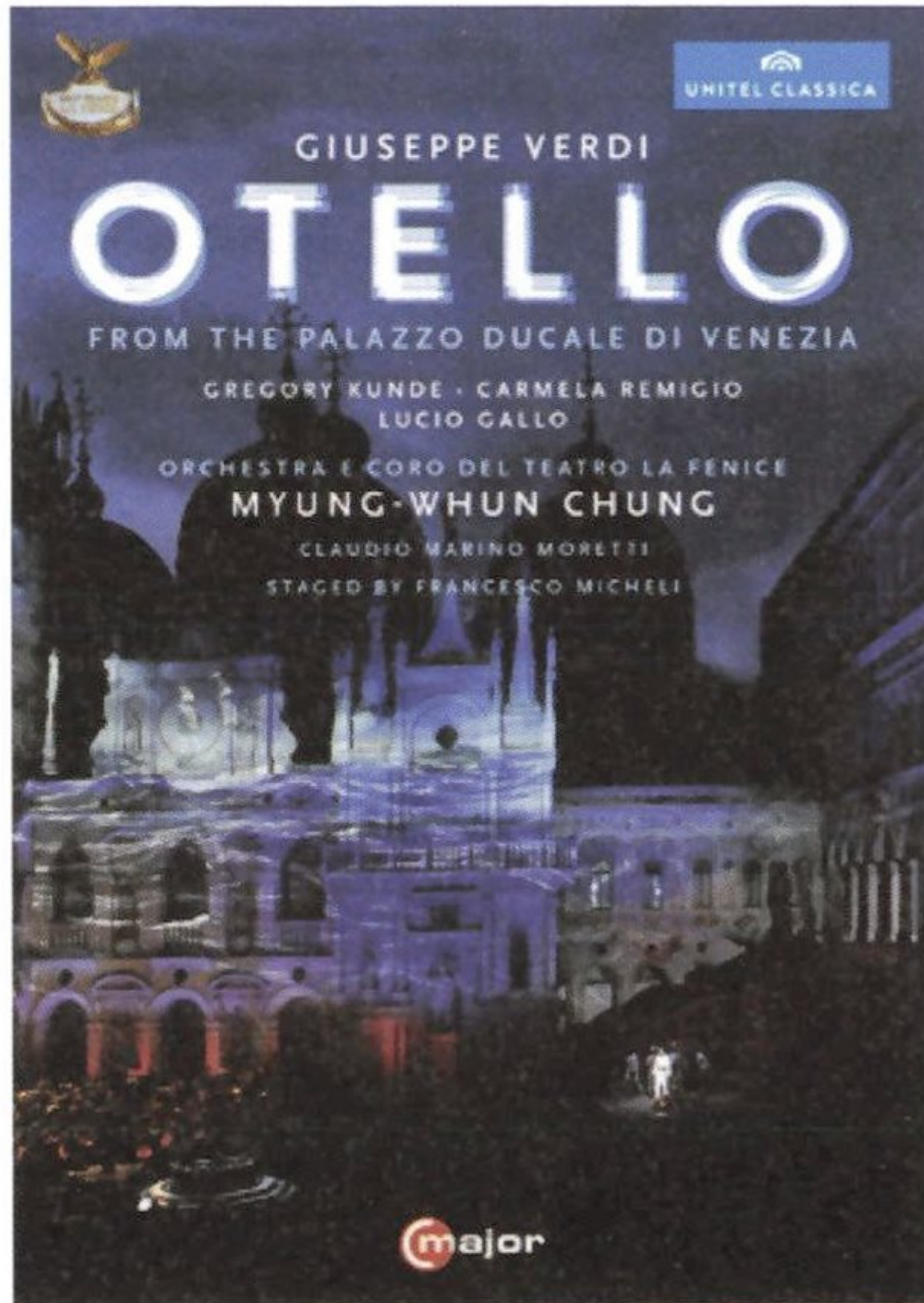
여름방학 특별전

'마우리 시우 지 소유자'展

일 시 | 7월 24일(목)-8월 18일(월)
롯데갤러리 광복점
문의 | 롯데갤러리 광복점 678-2610

아이들을 위한 만화책과 다양한 만화 캐릭터로 브라질에서 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브라질의 만화가 장 '마우리 시우 지 소유자' 특별전. 마우리 시우 지 소유자의 다양한 아트상품과 원화, 조각작품을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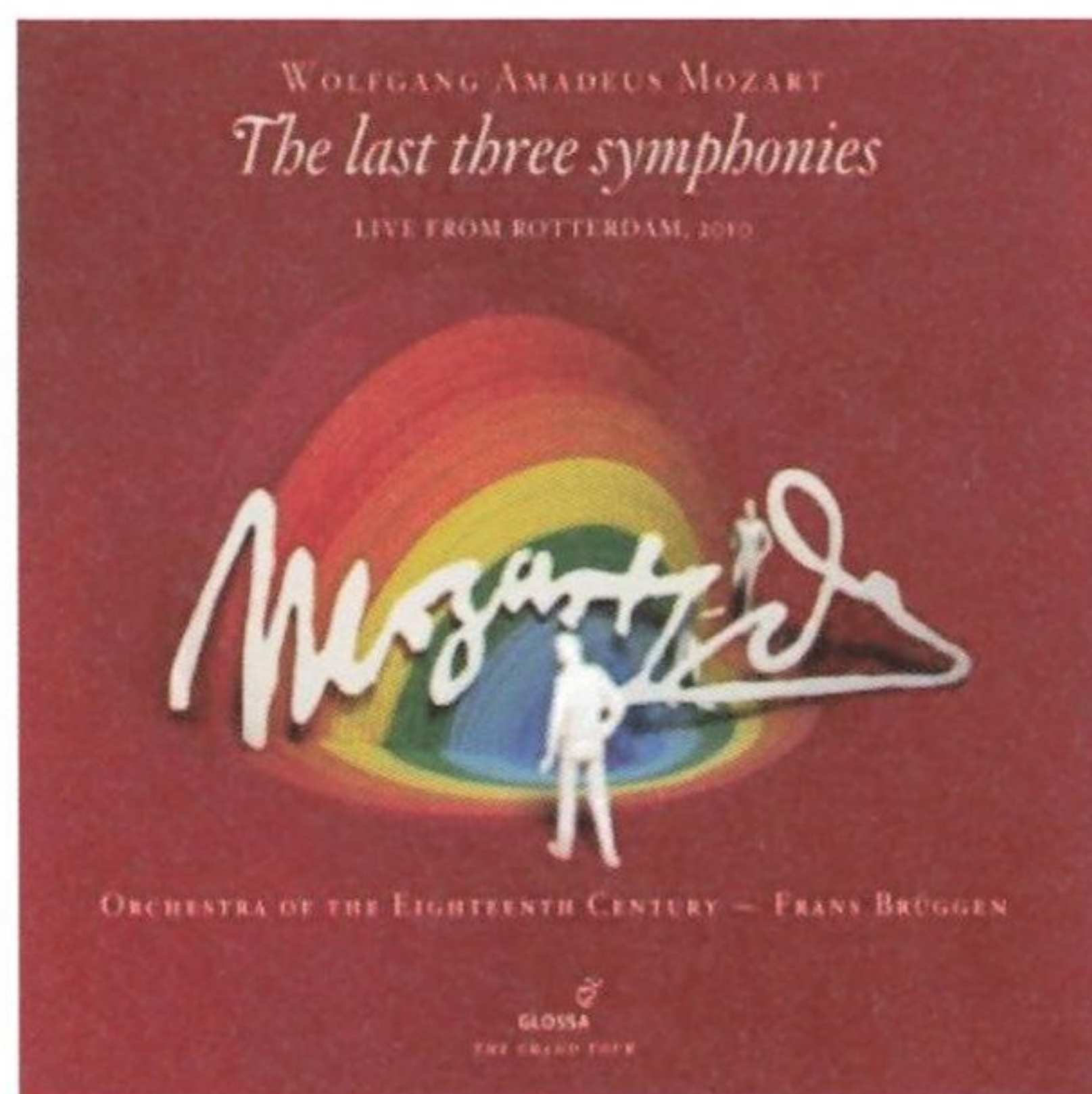
New Album... GM뮤직 제공



❖ 베르디 오텔로 (한글자막)

그레고리 쿤드(오텔로)/ 카르멜라 레미조(데스데모나)
루치오 갈로(이아고)/ 프란체스코 마르실라(카시오)
엘리자베타 마르토라나(에밀리아) 외/ 정명훈(지휘)/ 베네치아 라 페니체 오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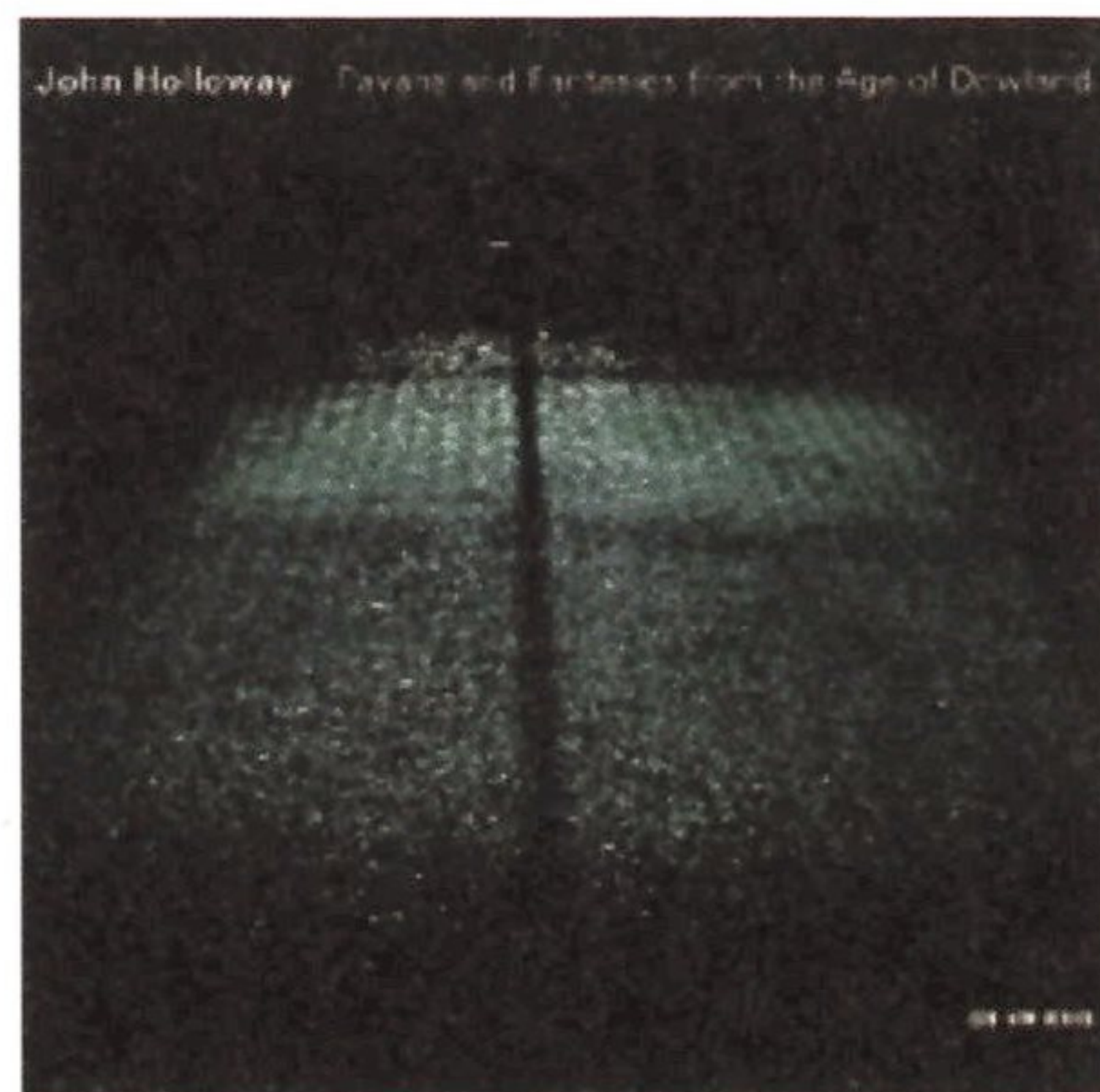
정명훈은 세계적인 커리어를 자랑하는 지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주를 영상물로 만나볼 수 있는 기회는 극히 드물었다. 이에 대한 애호가들의 갈증을 달래줄 특별한 영상물이 출시되었다. 2013년 베네치아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팔라초 두칼레의 야외무대에서 펼쳐졌던 베르디의 <오텔로>가 그것이다. <오텔로>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남다른 열정을 갖고 있었던 베르디가 만년에 완성했던 걸작으로, 타이틀 롤은 드라마틱 테너의 모든 가치를 요구하는 난역으로 유명하다. 오텔로의 계보는 드라마틱 테너의 전설 마리오 델 모나코, 존 비커스,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쿠라로 이어졌는데, 이제 미국의 테너 그레고리 쿤드가 이 시대를 대표하는 오텔로로 급부상하고 있다. 2012년 라 페니체에서 이 배역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던 그는, 이번 영상물에서도 연기와 가창 모두에서 빼어난 기량을 자랑한다. 화려한 조명과 상징적인 프로젝션 이미지로 야외무대의 한계를 멋지게 극복해낸 연출가 프란체스코 미첼리의 감각과 정명훈의 자신감 넘치는 지휘는 이 오페라를 사랑하는 애호가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안겨줄 것이다.



❖ 존 다울랜드

<흘러라 나의 눈물이여>에 의한 '7개의 눈물'과 동시대의 파반과 판타지
존 홀로웨이(바이올린, 비올라), 모니카 바에르(바이올린, 비올라)
레나테 스타인만 (비올라), 수잔나 헤프티(비올라), 마르틴 젤러(베이스 바이올린)

바로크 바이올린의 대가 존 홀로웨이가 존 다울랜드의 <흘러라 나의 눈물이여> 주제에 의한 7개의 파반, 7개의 눈물을 연주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놓쳐서는 안될 음반이다. 존 홀로웨이는 변함없는 격조와 순수함으로 과장된 기교 없이도 풍부한 서정을 이끌어 내며, 순간순간의 미묘한 인토네이션의 변화를 통해 걱정 이상의 슬픔과 비애를 탁월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 사이에 당대의 대가들, 헨리 퍼셀, 윌리엄 로스, 존 젠킨스, 토마스 몰리, 매튜 로크의 파반과 판타지를 연주하여 다양한 색채감과 함께 다울랜드의 '눈물'의 깊이를 더하고 있다.



❖ 모차르트 교향곡 39, 40, 41번 (2 for 1.5)

프란스 브뤼헨(지휘)/18세기 오케스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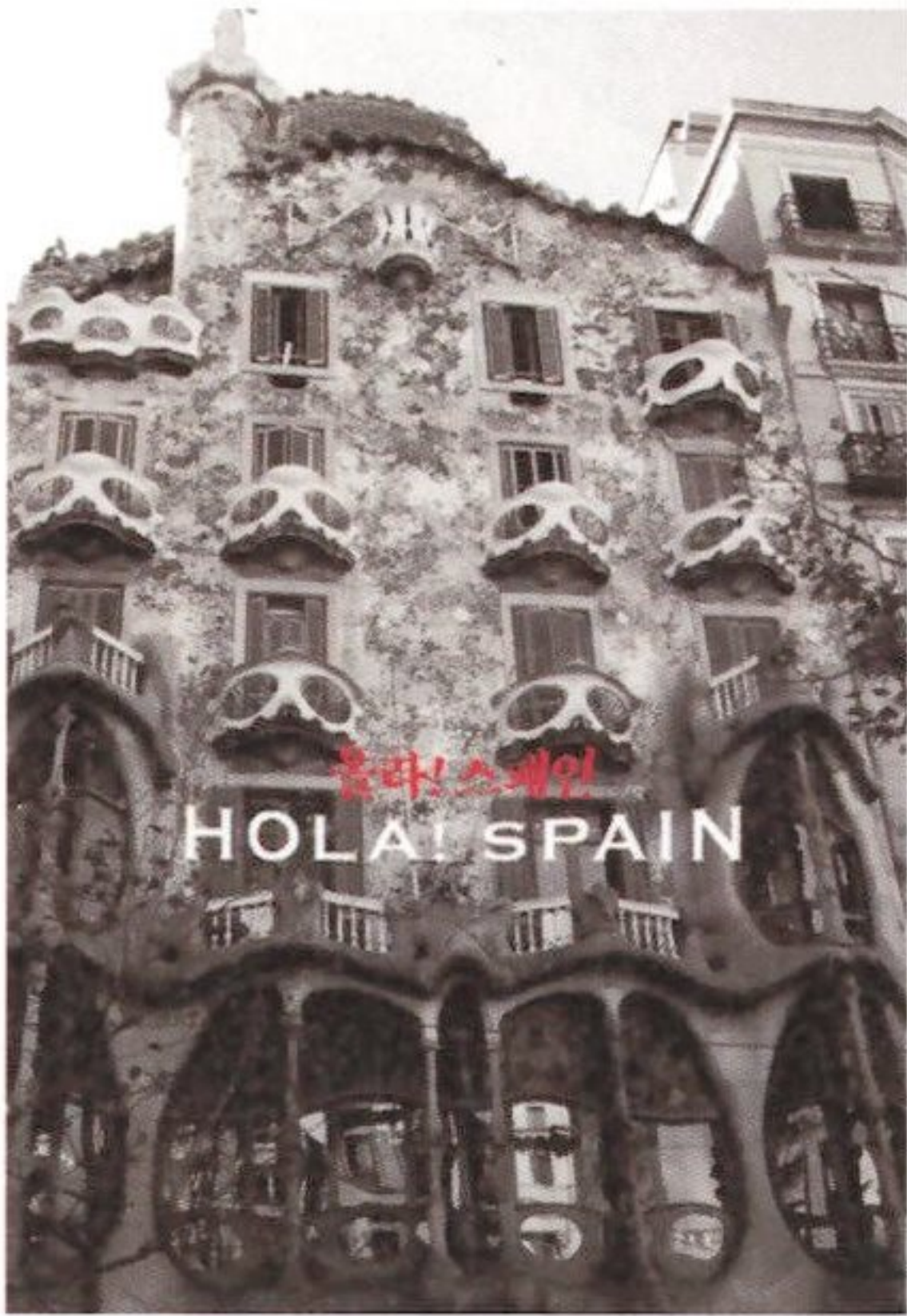
노년의 가장 원숙한 경지를 보여주고 있는 프란스 브뤼헨과 18세기 오케스트라의 모차르트 3대 교향곡집이다. 이번에도 실황 연주(네덜란드 로테르담)를 담았는데, 이미 오래 전 필립스 시절부터 모차르트 음악의 탁월한 해석자로 인정받았던 브뤼헨과 18세기 오케스트라는 과거의 성과를 뛰어넘는 탁월한 연주를 만들어냈다. 브뤼헨답게 소편성이지만 지나치게 자극적인 프레이징이나 빠른 템포를 고집하지 않으며, 투명한 텍스처와 맑은 음색으로 자연스러운 음향의 건축물을 쌓아올리고 있다. 세 곡의 구성과 음악적 흐름을 거시적으로 바라본 헤안도 큰 감동을 준다.



❖ 올라! 스페인

예다운 지음 / 북노마드 / 376p / 1만 8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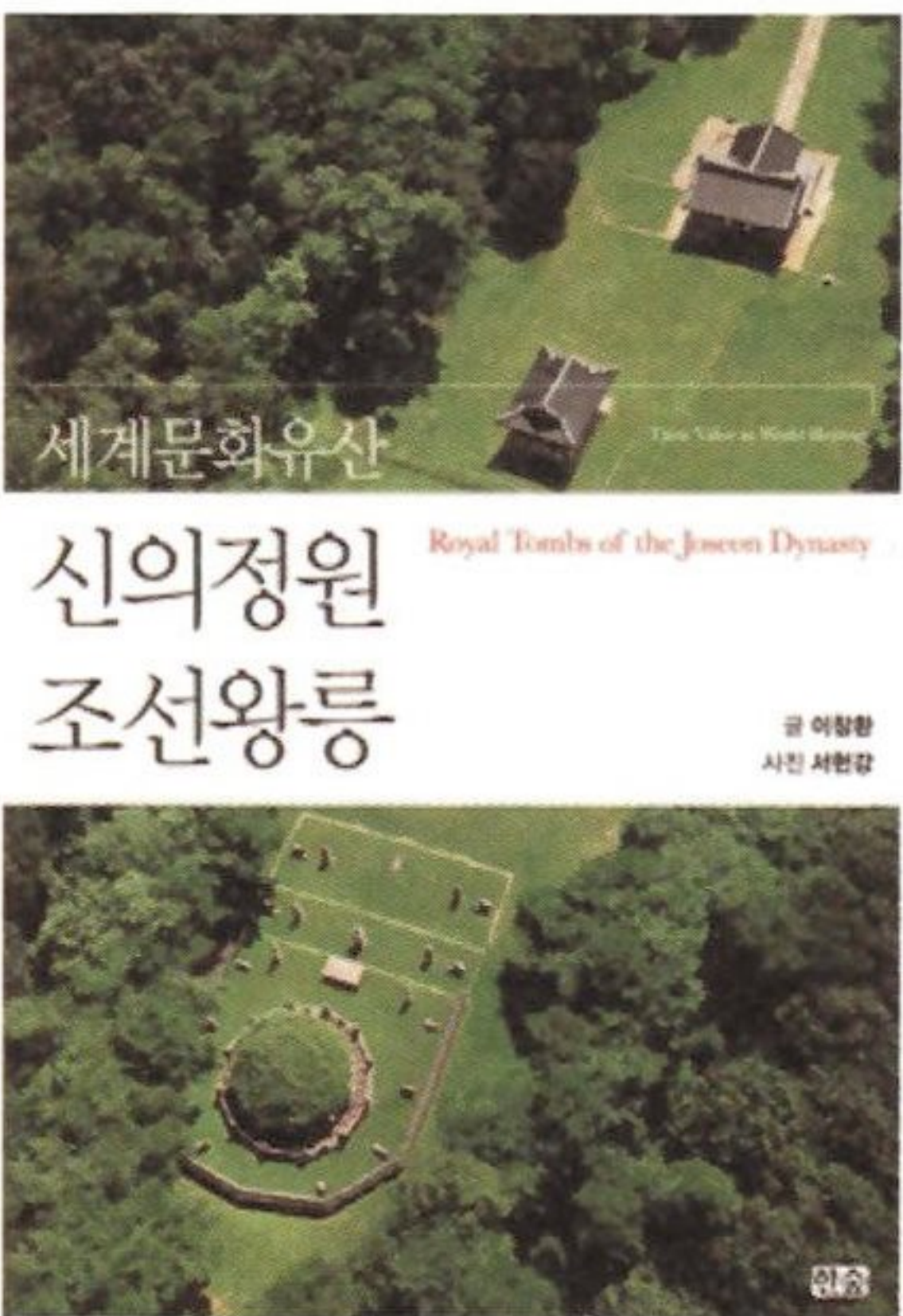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향해 한 발짝 더 다가선다! IT 기획자로 일하던 저자는 자신의 젊음과 현실을 저울질 하지 않겠노라 다짐하며 스페인을 향해 떠난다. 그곳에서 저자는 모두에게 처음인 '오늘'을 새로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마주하는 방법을 깨닫는다. 모든 것을 처음 겪어보는 소년 소녀처럼 기쁘게 하루를 맞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눈앞에 펼쳐진 것들에 감사해하며 말이다. 그렇게 될 줄 알았다며, 인생이란 원래 그런 거라며 삶을 쉽게 평하고 단정 짓고 포기하는 어른이 되는 대신, 오늘을 기쁘게 맞이할 줄 아는 청춘으로 남기를 선택한다. 또한 '무엇이 필요한지'보다 '무엇이 필요 없는지'를 고민하며 스스로의 삶을 심플하게 비워가는 여행의 과정 또한 인상적이다. 20킬로그램에서 14킬로그램으로 줄어든 그녀의 짐은 더는 버릴 것이 없는, 부족함도 불편함도 없는 완벽한 짐이 됐다. 그리하여 그녀는 '한 손으로도 가볍히 들 수 있는'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짊어지고 살아가기 시작한다. "가볍게, 더 가볍게"라는 그녀의 말은, 끝없는 소유욕 때문에 여행과 일상을 망쳐버리곤 하는 이들에게도 건강한 메시지가 되어줄 것이다.



❖ 신의 정원 조선 왕릉

이창환 지음 / 한숲 / 520p / 3만 원

"집이 경기도 여주라 세종대왕의 능인 영릉에 몇 번 가본 적이 있다. 하지만 그냥 큰 무덤이라는 생각만 들었지 별 감흥이 없었다. 서점에서 책의 표지를 보고 영릉이 실린다는 자부심에 구입해서 읽어보게 되었는데 재미가 있었다. 그냥 큰 무덤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편견이 부끄러워질 정도로 왕들의 무덤에는 각각의 사연과 미적 특징이 담겨져 있다." 한 독자가 이 책을 읽고 인터넷에 남긴 감상이다. 조선 왕릉은 519년 동안 지속된 한 왕조의 왕과 왕비의 무덤이 보존되어 있는 유적지이다. 왕릉의 봉분을 세우는 방식이며 주변 석물들의 배치는 단순하면서도 엄숙하다. 왕릉 주위는 자연 친화적인 환경이며 독특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 조선 왕릉을 일러 신의 정원이라고 하는 까닭은 그 때문이다. 조선 왕릉은 2009년 6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조선 왕조의 무덤은 총 119기인데 그중 임금과 왕비가 잠들어 있는 왕릉은 42기이다. 42기의 왕릉 중 40기가 세계문화유산이다. 옛 고려의 도읍지인 개성에 있는 2기는 북쪽에 있어 함께 등록되지 못했다. 이 책은 우리 민족의 유적이며, 이제는 세계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인정받고 있는 조선 왕릉을 소개한다.



❖ 더 클래식 1-바흐에서 베토벤까지

문학수 지음 / 돌베개 / 360p / 1만 7천 원

음악에 대한 깊은 애정과 감각적인 글쓰기로 사랑을 받아온 문학수 씨가 어떤 음반을 들어야 할지 고민하는 독자들을 위한 친절한 클래식 안내서를 펴냈다. 이 책은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부터 베토벤의 '현악 4중주 16번 F장조'까지, 바로크 후기에서부터 낭만주의 초입에 놓인 클래식 걸작 34곡을 담고 있다. 해설 말미마다 각 곡의 악장별 감상 포인트를 정리해주고 있다. 음악을 들을 때 자칫 놓칠 수 있는 대목들을 강조하거나, 각 곡에 담긴 기본적인 정서도 세심하게 전해준다. 이 책의 장점은 저자 특유의 인문주의자로서의 섬세한 글쓰기가 명곡명반 가이드로서의 실용성과 절묘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저자는 음악가 개인의 기질과 내면, 당대의 그가 처해 있던 상황과 사회적 배경을 두루 살피면서 34곡에 담긴 사연을 하나하나 써 내려간다. 또한 각 장 뒤에는 해당 곡의 추천 음반을 3장씩 엄선하여 소개한다. 역사적 명연부터 실력파 연주자의 명반까지 총 100여 장이다. 명반으로 정평이 난 기존 음반은 물론, 2000년대 녹음된 음반들 중에서도 놓치기 아까운 것들을 함께 수록했다. 클래식 음악과 막 사랑에 빠지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음악편지 같은 책이다.



Special Events



❖ 2014 제3기 시민아카데미 '세계의 바다, 문화, 도시 II'

재)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4 제3기 시민아카데미 '세계의 바다, 문화, 도시 II'. 인문학 아카데미를 통해 다양한 삶의 가치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이번 강좌는 7월 3일부터 22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세계의 바다, 문화, 도시'라는 테마로 총 6강좌가 진행된다. 3일에는 '카리브해의 흑진주, 콜롬비아의 카르타헤나(차경미·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HK연구교수)', 8일 '국제항의 문화, 베라쿠루스와 하바나(최명호·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HK연구교수)', 10일 '동남아시아의 강, 바다, 문화(김인규·부산외국어대학교 동남아지역원 HK연구교수)', 15일 '동남아 해상왕국의 종교와 교역(김인아·부산외국어대학교 동남아지역원 HK연구교수)', 17일 '프로방스의 문화예술을 찾아서(장니나·부산외국어대학교 지중해지역원 HK연구교수)', 그리고 22일에는 '이탈리아 중세도시, 시에나의 축제문화(김정하·부산외국어대학교 지중해지역원 HK연구교수)'라는 주제로 부산외국어대학교 트리니티홀(D동) 108호실에서 강의가 펼쳐진다. 접수기간은 7월 1일까지이며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www.bsarte.or.kr)에서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강의료는 무료. 문의는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745-72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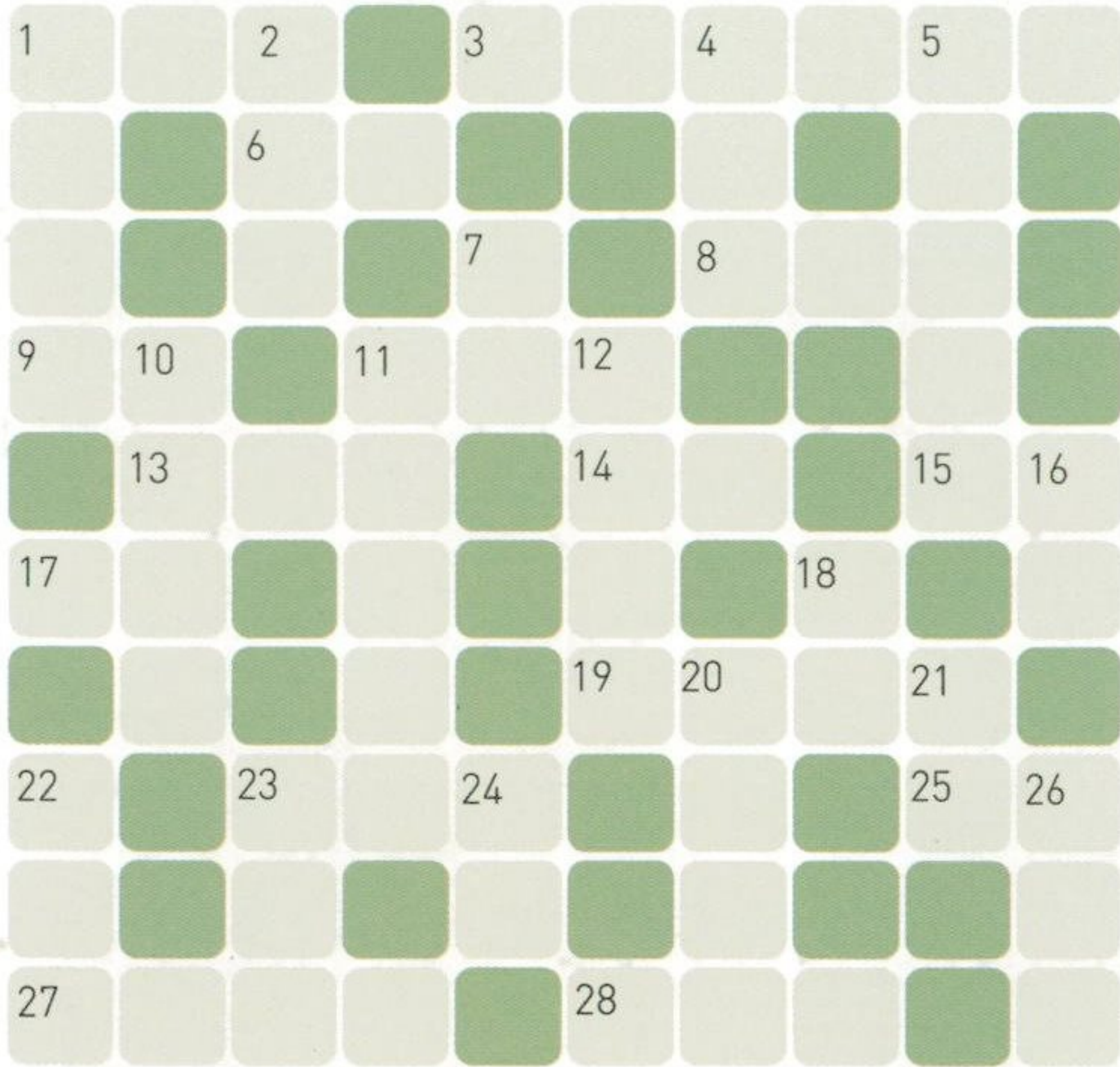
❖ 문화공간 봄 7월 강좌

'생활 속 인문학 실천'의 가치를 내걸고 2012년 8월 문을 연 '문화공간 봄(BOMM)' 7월 강좌일정이 확정 되었다. 가장 많은 강좌 수를 자랑하는 인문학아카데미는 1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세차례 펼쳐진다. 7월부터는 ▷서양음악사(화요일) ▷노자 도덕경:無의 숲길에서 도를 보다(수요일) ▷불교철학:비움의 철학과 무소유-‘중론’읽기를 통한 불교의 공사상과 깨달음(목요일)이 펼쳐진다. '서양음악사'는 독일 다름슈타트 국립음대와 미국 조지아크리스천대학에서 공부한 김영도 박사가, '노자도덕경'은 박종식 부산대학교 외래교수가, '불교 철학'은 '문화공간 봄(BOMM)' 대표인 윤종갑 동아대학교 교수가 강의를 맡는다. 수강료 8만원. 또, 매월 둘째주 화요일과 셋째주 목요일에는 북 콘서트와 인문학 콘서트가 펼쳐진다. 7월 8일 북 콘서트에서는 도서 '디아스포라와의 대화(서경식 著)'로 부산대학교 이재봉 교수와 이야기를 나누며, 17일 인문학 콘서트에서는 '이슬람 문화:중세 이슬람 문화사'라는 주제로 부산외국어대학교 황익갑 교수의 강의를 진행한다. 시간은 오후 7:30, 강의료는 무료. 문의는 714-6909, www.cafebomm.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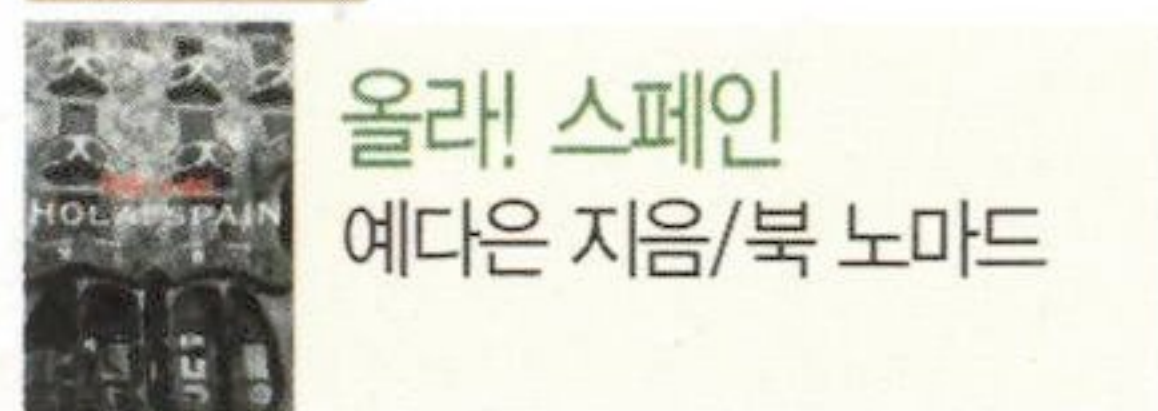
❖ 부산시립박물관 박물관투어

부산지역의 다양한 박물관을 돌아보며 참가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해설을 들을 수 있는 역사문화체험 '부산시립박물관 박물관 투어'. 매월 셋째주, 넷째주 토요일(오후 1:30~7:30) 두차례 펼쳐지는 박물관 투어는 차량을 이용, 부산박물관을 비롯해 동삼동패총전시관, 임시수도기념관, 북천박물관, 근대역사관 등 부산박물관 산하 분관, 그리고 국립해양박물관을 방문해 전시물을 관람한다. 매월 셋째주에는 부산박물관-동삼동패총전시관-국립해양박물관-임시수도기념관-부산박물관 코스로, 넷째주에는 부산박물관-북천박물관-근대역사관-부산박물관 코스로 운영된다. 참가인원은 40명이며, 7월 신청 접수는 부산박물관 홈페이지(museum.busan.go.kr)에서 만 50세 이상 어르신은 7월 1일부터 7일까지 우선 접수받으며, 일반시민은 7월 7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 한편, 매월 넷째주 토요일(오전 10:00~오후 12:30)에 펼쳐지는 가족 대상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토요일 박물관 교실'은 7월 7일부터 부산박물관 홈페이지(museum.busan.go.kr)에서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7월 프로그램은 '말그림 부채만들기'이며, 수강료는 역시 무료. 문의는 부산박물관 610-7141.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공간소극장 | 051-611-8518
 조은극장 | 1588-2757
 큰집 | 051-245-3320
 문학동네 | 031-955-8869



지번호 정답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7월 퍼즐 당첨자

가로열쇠

- 창의력 넘치는 아이디어와 재미있는 해설로 늘 청중과 함께 호흡해온 지휘자. 그가 이끄는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 7월 1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오페라 여행 '라 트라비아타'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 1962년 창작오페라 '왕자호동'으로 창단공연을 가진 후 대한민국 오페라사의 새로운 포문을 열었던 예술단체. 8월 29일과 30일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으로 부산을 찾는다.
- 어떤 사회에서 신성(神聖)하거나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접근이나 접촉을 금하고 그것에 대해 말하기를 금하거나 꺼리는 일. 폴리네시아어에서 나온 말로, '금기(禁忌)된'이란 뜻을 지닌다.
- 미국 서부 카우보이들이 솜씨를 겨룬 데서 발단한 놀이경기로, 길들이지 않은 말이나 소를 탄 채 떨어지지 않고 오래 버티거나 길들이는 경기.
- 높낮이가 서로 다른 여러 음이 동시에 울려서 나타나는 음의 흐름. 리듬, 선율과 더불어 음악의 3요소이다.
- 해남과 진도를 잇는 해협으로, 물길의 입초에 부딪혀 튕겨 나오는 소리가 매우 커 바다가 우는 것 같다하여 부처진 이름이다. 정유재란 당시 이순신이 지휘하는 조선 수군이 불과 13척 배로써 일본 수군 133척을 무찌른, 명량대첩의 장소이기도 하다.
- 김기덕 감독의 영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으로 한층 더 유명해진, 주왕산 자락의 저수지. 저수지에 자생하는 150년 수령의 왕버들과 능수버들이 물 위에 떠 있는 듯 몽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며 사계절 독특한 풍광을 보여준다.
- 민중들 사이에서 저절로 생겨나 전해지는 노래를 통틀어 이르는 말.
- 타격 성적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타율이 높을수록 강타자로 인정받는다.
- 영화로도 제작되어 많은 사랑을 받았던 '순정만화', '아파트', '26년' 등 감성적 소재와 탄탄한 구성력이 돋보이는 장편 서사 웹툰을 연이어 히트시키며 인터넷 미디어 시대의 대표 이야기꾼으로 떠오른 만화가.
- 영화, 드라마, 소설 등에서 줄거리의 전개가 관객이나 독자에게 주는 불안감, 긴박감, 박진감을 뜻하는 말.
- '미키 마우스' 시리즈, '백설공주', '판타지아' 등 일련의 단편, 장편만화 이외에도 극영화, 기록영화에서부터 동물 실사 필름에 의한 드라마 구성, 텔레비전 프로그램까지 진출한 미국의 만화영화 제작자.
- 예전 임금이나 정승, 유현(儒賢)들이 죽은 뒤에 그들의 공덕을 칭송하여 주던 이름.
- 4번에 걸친 항해를 통해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 유럽인들이 신대륙을 탐험, 개발, 정착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한 이탈리아의 탐험가.
- 하이든, 모차르트와 함께 빈교향파를 대표하는 독일의 작곡가. 악성(樂聖)이라 불리며, 주요 작품으로 9개의 교향곡과 피아노 소나타 '열정', '월광', '비창' 등을 남겼다.

세로열쇠

- 조선 시대, 김시습이 지은 전기체(傳奇體) 소설로,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 현재는 '만복사저포기(萬福寺樗蒲記)', '이생규장전(李生窺牆傳)', '취유부벽정기(醉遊浮碧亭記)', '용궁부연록(龍宮赴宴錄)', '남염부주지(南炎浮洲志)' 등 다섯 편만 전한다.
- 북한을 탈출한 북한 주민을 일컫는 말.
- 질투로 인한 000 장군의 비극을 그린,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
- 한물간 철없는 가수와 그의 매니저 사이의 우정을 그린 이준익 감독, 박중훈, 안성기 주연의 영화로, 2008년에는 무비컬의 열풍속에 뮤지컬로 제작되어 무대에 올려졌다.
- 길쭉한 돌을 그대로 또는 약간 손질하여 세운 돌기둥. 고인돌과 더불어 대표적인 큰돌문화(巨石文化)에 속한다.
- 대표적인 남도민요 가운데 하나. 가정의 길흥화복(吉凶禍福)을 관장하는 가옥신(家屋神)인 성주신에게 재앙을 물리치고 행운이 있게 해달라고 비는 성주굿에서 무당이 부르던 무가(巫歌)가 민가에 퍼져 민요화된 노래이다.
- 아프리카 오지 수단에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한 한국의 슈바이처, 故 이태석 신부의 헌신적인 삶을 감동적으로 그려낸 휴먼 다큐멘터리.
- 조선 후기의 실학자 정약용이 우리나라와 중국의 역사서를 비롯해 자(子)집(集) 등에서 치민(治民)과 관련된 자료를 뽑아 수록함으로써 지방관리들의 폐해를 제거하고 지방행정을 쇄신하기 위해 지은 책.
- 조선시대의 문신, 성리학자 이이(李瑀)의 호.
- 미국의 배우, 영화감독. 영화 '미스틱 리버(2003)', '밀크(2008)'로 두 번의 아카데미상을 수상했으며, 1995년 영화 '데드 맨 워킹'으로 베를린 국제영화제 남우주연상, 1997년 영화 '더 홀로 칸 국제영화제 남우주연상, 영화 '헐리벌리(1998)', '21그램'으로 베니스 국제영화제 남우주연상을 두 차례 수상했다.
- 악보에서, 한 음씩 또렷하게 끊는 듯이 연주하라는 말.
- 윤동주 시인의 대표작.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르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앞세워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 호텔에서 투숙객을 지정한 시간에 깨워 주는 서비스.
- 故 김광석 50주년을 기념해 김광석의 자작곡, 가창곡, 미발표곡으로 제작된 창작뮤지컬.
- 생(生)철학의 대표자로 실존주의의 선구자였던 독일의 철학자. 민주주의, 반(反)유대주의, 힘의 정치 등에 강력히 반대했지만 뒷날 그의 이름은 그가 혐오했던 파시스트들에게 이용되면서 파시즘의 사상적 선구자로 불리기도 했으며, '신은 죽었다'는 그의 주장은 20세기 유럽 지식인의 주요한 구호가 되기도 했다.
- 제2차 세계대전 뒤 아시아의 반식민지운동을 이끈 베트남 민족운동의 지도자. 그의 이름을 딴 000은 베트남의 수도이기도 하다.

공간소극장 김미정(동래구 총렬대로)
초대권 박현희(기장군 기장대로)
 이은정(북구 만덕대로)
 전명수(사하구 비봉로)
 조태호(사하구 하신중앙로)

조은극장 김경자(사하구 낙동남로)
초대권 박선희(영도구 절영로)
 오명환(남구 동명로)
 이미경(연제구 월드컵대로)
 전경수(사하구 감천로)

큰집 김숙희(동래구 복천로)
식사권 이명숙(부산진구 중앙대로)
 이재희(해운대구 해운대로)
 정정자(사하구 감천로)
 형정민(서구 고운들로)

올래 스페인 권상욱(부산진구 신천대로)
 김인숙(동구 망양로)
 박승영(북구 만덕1로)
 이슬재(사하구 괴정로)
 최동이(기장군 정관4로)

NEWS

우리가락과 함께하는 신나는 토요일 2014 한국문화예회관 연합회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부산문화회관 토요일감놀이터 '얼씨구樂'



부산문화회관에서 4월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에 진행하고 있는 토요일감놀이터 '얼씨구樂' 상반기 교육이 뜨거운 호응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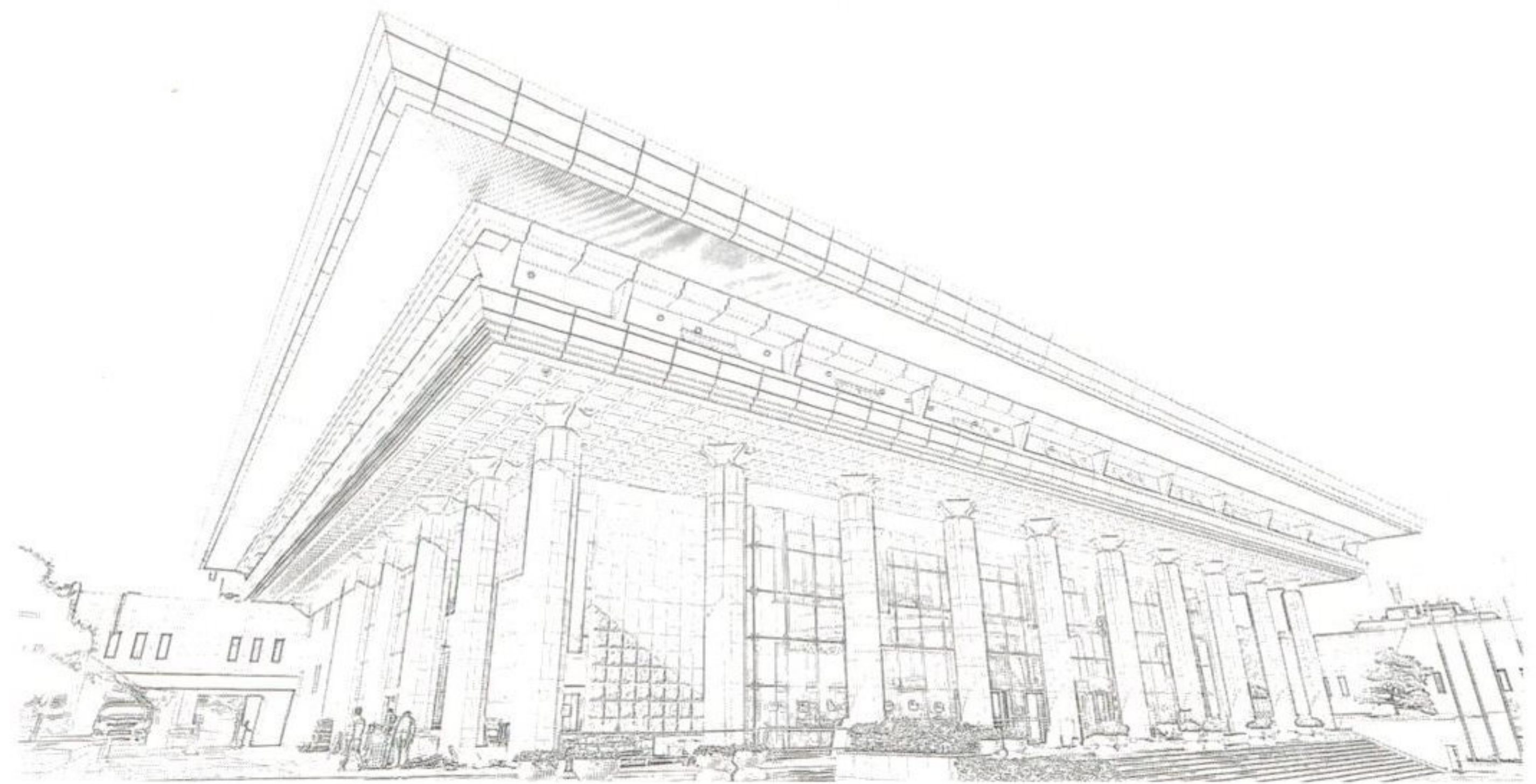
2014 한국문화예회관연합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토요일감놀이터 '얼씨구樂'은 온 가족이 함께 소통하는 국악체험 프로그램으로 부산문화회관에서 처음으로 기획, 참가 가족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4월 5일 가족이 함께 배우는 사물놀이 프로그램을 위해 가족이 함께 장구를 직접 조립하는 1회차 교육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우리 가락의 즐거움에 흠뻑 빠진 참가가족들은 지난 5월 23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 30주년 공연 단체 관람에 이어 5월 24일 두 달간 배운 가락을 더듬어가며 가족 사물놀이 발표회를 가지기도 했다.

흥겨운 사물놀이 수업에 이어 가야금의 고장 고령을 방문, 우리의 대표 현악기인 가야금의 역사를 담은 우륵박물관 탐방과 가야금 연주체험, 가야금 만들기 등으로 참가가족들이 함께 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지난 5월 31일 자신이 연주할 소금을 직접 다듬어가며 악기 원리를 배우는 '소금 다듬기' 수업에서관악기에 대해 배운 참가 가족들은 6월부터는 본격적인 소금 배우기에 도전한다. 소금의 아름다운 음색이 살아있는 민요와 동요를 함께 배운 가족들은 15회차 교육이 끝나는 7월 19일 종합발표회를 통해 그동안 배운 사물놀이와 소금을 전체가족들 앞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하반기 교육은 8월 11일부터 접수를 시작, 8월 23일부터 1회차 수업이 시작된다.



제31기 어린이한국춤교실 제42기 시민무용교실 수강생 모집

|강습기간| 2014. 7.28(월) ~ 7.31(목) (4일간)
|강습장소| 부산문화회관 국제회의장
|접수기간| 2014. 7.7(월) ~ 7.10(목)

• 제31기 어린이한국춤교실

|강습내용| 바람개비 체조 (10:00~11:00),
번개 체조 (11:00~12:00)
|대 상| 초등학생 어린이(각 반 20명 내외)
|준 비 물| 바람개비(각자 준비)
|수 강 료| 10,000원



일자	시간	내용	강사	장소
7.28(월)	10:00~11:00	바람개비 체조	강미향, 이나겸	국제회의장
~31(목)	11:00~12:00	번개 체조	이현정, 이상민	
8.1(금)	13:00~14:30	강습 발표회		

• 제42기 시민무용교실

|강습내용| 흥풀이, 최종실류 소고춤
|대 상| 일반 시민 및 교사(각 반 30명 내외)
|준 비 물| 소고 및 소고채(각자 준비)
|수 강 료| 20,000원(※방문 접수만 가능)



일자	시간	내용	강사	장소
7.28(월)	13:00~15:00	흥풀이	강미향, 이나겸	국제회의장
~31(목)	15:00~17:00	소고춤	이현정, 이상민	
8.1(금)	13:00~14:30	강습 발표회		

- ▷바람개비 체조 :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바람개비를 가지고 신나는 전통 가락에 맞춰 상상력과 감성을 키워주는 춤
- ▷번개 체조 : 몸의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에 태권도와 한국무용을 가미한 씩씩하면서도 힘찬 동작으로 구성된 체조
- ▷흥풀이 : 민요음악에 맞춰서 기본 춤사위를 바탕으로 만든 신명나고 흥겨운 춤
- ▷최종실류 소고춤 : 농악에서 소고놀이의 독특한 춤사위와 가락을 짜임새 있게 구성한 춤

※ 레퍼토리는 무용단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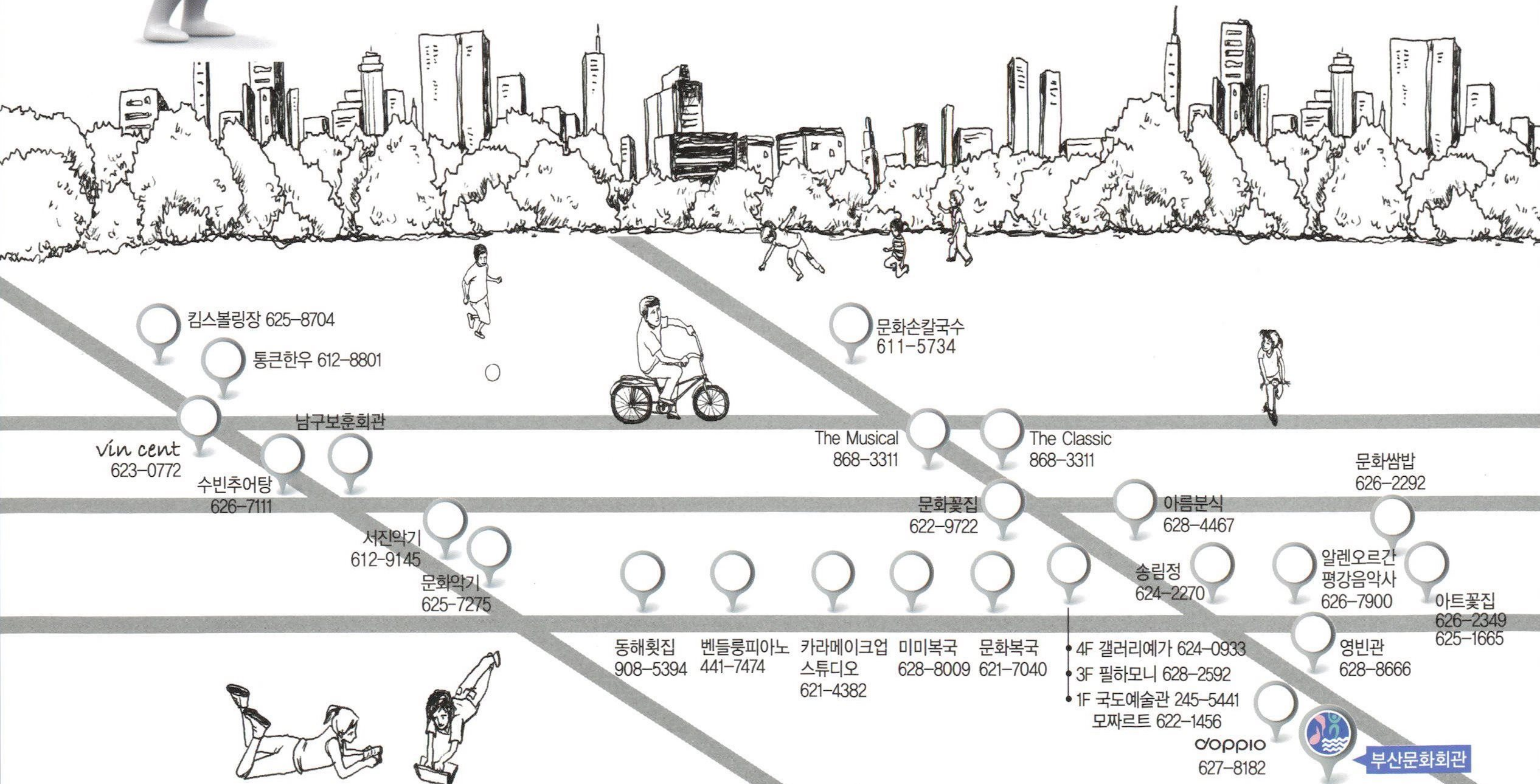
- 문의 : 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및 공연관람객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

	<p>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음료 10%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1층 Tel. 051)622-1456</p>		<p>부산문화회관 주최 공연티켓 소지자 커피 10%할인 (커피에 한함) Tel. 051-623-0772</p>
<p>Since 1981 philharmony 필하모니</p>	<p>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Tel. 051)626-2592</p>		<p>부산문화회관 주최 공연티켓 소지자 식사 5%할인 Tel. 051-624-2270</p>
	<p>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시 평일 3천원, 주말·공휴일 4천원 할인 (회당 2매/조조, 심야, 3D 제외)</p>		<p>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와 할인쿠폰 소지자 특별우대 Tel. 051-752-9811(광안), 051-747-9812(해운대)</p>



공연시간에 쫓겨 힘든 것 많으시죠.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문화회관 주변 안내도입니다.



20% Discount
센텀점 토다이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Discount
모차르트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Discount
센텀점 하나돈까스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Discount
Since 1981 필하모니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 Discount
연극 '그녀를 믿지 마세요'

• 쿠폰소지 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 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할인됩니다.

30% Discount
2014 청년열정속으로 '고도, 없다'

• 쿠폰소지 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 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할인됩니다.

60% Discount
공포호러극 '2014 두여자'

• 쿠폰소지 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 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할인됩니다.

60% Discount
뮤지컬 '언제는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있었나요'

• 쿠폰소지 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 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할인됩니다.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 름 _____
 주 소 _____
 연락처 _____
 □□□ - □□□

요금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4. 1. 1 ~
 남부산우체국승인
 제265호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 (대연동)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의 초대> 담당자 앞
608-811

CULTURAL SCHEDULE

부산문화회관 7월 공연일정

2014 JULY 7

- 1 19:30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금-새와 떠나는 오페라 여행! '라 트라비아타' 대극장
 2만원, 1만5천원, 1만원/부산문화회관(607-6058)
- 2 19:30 닥터스심포니밴드 제13회 정기연주회
 대극장 초대/닥터스심포니밴드(010-2561-6047)
- 3 19:30 제25회 이견음악회-베를린 필하모닉
윈드퀸텟 초청공연 대극장
 초대/주이건창호(032-760-0898)
- 19:30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13회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중극장 균일 2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 10:15 어린이뮤지컬 '벌거벗은 임금님' 소극장
 11:20 균일1만원/카즈셈(070-8281-6593)
- 4 19:30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02회 정기연주회
가장 유베르트 수당 초청 '명작, 러시아!'
 대극장 2만원, 1만5천원, 1만원, 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 19:30 **송강수 장단발표회** 소극장 초대/송강수(010-4576-9117)
- 5 16:00 **토요상설무대-김현숙의 우리춤 '동행'** 소극장
 무료/공연30분전 선착순 입장/부산문화회관(607-6056)
- 6 17:00 **김은경 클라리넷 리사이틀 V** 소극장
 균일 2만원/김은경후원회(02-2143-0044)
- 7-9 19:30 **2014 부산무용제 중극장**
 1만원 · 5천원/부산무용협회(632-5116)
- 10 19:00 **부산음악콩쿠르 시상식 및 축하연주회**
 중극장 무료/부산문화방송사업팀(760-1126)
- 12 19:30 **출산장려 가족 창작뮤지컬 '아빠 함께해요'**
 중극장 초대/까리프로젝트(759-7112)
- 16:00 **토요상설무대-조철현대금연구소 '대금소리 사랑소리'**
 소극장 무료/공연30분전 선착순 입장/부산문화회관(607-6056)
- 13 11:00 **출산장려 가족 창작뮤지컬 '아빠 함께해요'**
 14:00 중극장 초대/까리프로젝트(759-7112)
 17:00 **김영희무용단 정기공연'W-Members 프로젝트** 공연
 소극장 2만원 · 1만원/김영희무용단(010-808-6550)
- 14 19:30 **이성은 피아노 독주회-베토벤스나타 전곡연주 시리즈 I**
 중극장 초대/이성은(010-9716-0717)
- 16 19:3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74회 정기연주회**
'동행' 중극장
 1만원, 7천원, 5천원/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3)
- 17 15:30 **스미일 스포 프로젝트** 소극장
 19:00 (세빛은미소운동본부(02-883-5630, 010-7342-7773)
- 17-18 20:00 **부산시립무용단 2014 여름마당출판 '7월의 크리스마스-클라리와 후두이아기'** 야외무대
 무료/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우천시 중극장
- 19 14:00 **국제청소년교류음악제**
 중극장 균일1만원/부산음악교육협의회(637-0580)
- 16:00 **토요상설무대-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 소극장
 무료/공연30분전 선착순 입장/부산문화회관(607-6056)
- 20 19:30 **이일세 첼로 독주회**
 중극장 균일2만원/이일세(010-9998-7207)
- 24 10:30 **부산시립교향악단 2014 악기가족이야기 종합편**
 15:30 **-악기미울 한미음 음악회 중극장**
 균일 2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 25 10:30 **부산시립교향악단 2014 악기가족이야기 종합편**
 15:30 **-악기미울 한미음 음악회 중극장**
 균일 2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 13:00 **부산시립무용단 무용교실 발표회** 소극장
 무료/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 8/1 11:00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2014 헬싱키콘서트 III '코지 판 투레' 중극장
 균일 1만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토다이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20% 할인
(평일 점심 제외)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센텀 임페리얼 타워 6층
예약 : 051)731-7000
※본행사는 토다이 센텀점에 한합니다.

모차르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음료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기림빌딩 1층
051)622-1456

하나돈까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점심특선 제외)
센텀SH빌리 210층
051)747-8244

필하모니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기림빌딩 2층
051)626-2592

연극 '그녀를 믿지 마세요'

2014.6.12(금)-7.13(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5:30, 8:00
일·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입장권 : 균일 3만원
장 소 : 조은극장 스타홀
문의 및 예매 : BS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2014 청년열정수으로 '고도, 었다'

2014.7.5(화)-13(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월요일 공연없음)
입장권 : 균일 3만원
장 소 : 공간스극장
문의 및 예매 : 공간스극장 611-6518

공포호러극 '2014 두여자'

2014.6.4(수)-9.7(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입장권 : 균일 3만원
장 소 : 초록우산 카운아트홀 1관
문의 및 예매 : SM7기획 1600-1602

무지컬 연제는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있었나요?

2014.6.4(수)-9.7(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6:00(월요일 공연없음)
입장권 : 균일 3만5천원
장 소 : 에저트스극장
문의 및 예매 : SM7기획 1600-1602

CULTURAL SCHEDULE

2014 JULY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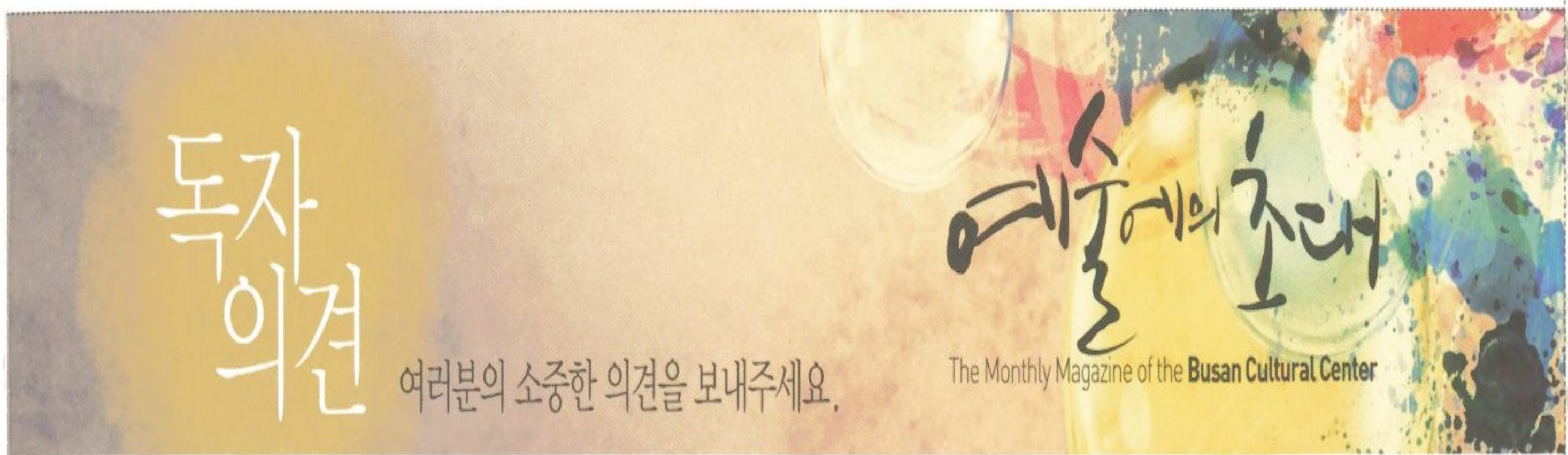
1	19:30 Opera Travel 1 with Nanse Gum 'La Traviata' Grand Theatre 20,000/15,000/10,000/B,C,C(607-6058)	13	11:00 Creative Musical 'Together Dad' Medium Theater Invitation/Hong Seonju(759-7112, 010-4784-7721) 14:00 17:00 Kim Young Hee Dance Company's Regular Performance 'W-Members Project' Small Theatre 20,000/10,000/ Kim Young Hee (010-4196-8250)
2	19:30 The 13th Regular Concert of Doctors SymphonicBand Grand Theatre Invitation/Doctors Symphonic Band(554-1088)	14	19:30 Lee Seongeun Piano Recital Small Theatre Invitation/Lee Seongeun(010-9716-0717)
3	19:30 EAGON 25th Concert 'Berlin Philharmonic Wind Quintet' Grand Theatre Invitation/EAGON(032-760-0898) 19:30 Busan Philharmonic Youth Orchestra 'Soloist of the Festival' Medium Theater 2,000/B,P,C(607-3111~3) 10:15 Musical 'Naked King' Small Theater 11:20 10,000/Kidssam(070-8281-6593, 010-6358-5449)	16	19:30 The 174th Regular Concert of Busan Metropolitan Traditional Orchestra Medium Theater 10,000/7,000/5,000/B,M,T,C(607-3123)
4	19:30 The 502th Regular Concert of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Grand Theatre 20,000/15,000/10,000/5,000/B,P,C(607-311~3) 19:30 Song Gangsu Recital Small Theater Invitation/Song Gangsu(010-4576-9117)	17	15:30 Smile School Project Small Theater 19:00 Smile Korea(02-883-5630, 010-7342-7773) 20:00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2013 Summer Yard Chumpan Outdoor Stage Free/B,M,D,C(607-3131~2)
5	16:00 Saturday Regular Stage Small Theater Free(On a first come first serve basis)/B,C,C(607-6056)	18	20:00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2013 Summer Yard Chumpan Outdoor Stage Free/B,M,D,C(607-3131~2)
6	17:00 Kim Eungyeong Clarinet Recital IV Small Theater 20,000/Kim Eungyeong(02-2143-0044)	19	14:00 Festival International Youth Exchange Medium Theater 10,000/Busan Music Education Association(637-0580) 16:00 Saturday Regular Stage Small Theater Free(On a first come first serve basis)/B,C,C(607-6056)
7~9	19:30 2014 Busan Dane Festival Medium Theater 10,000/5,000/Busan Dance Association (632-5116)	20	19:30 Lee Ilse Cello Recital Medium Theater 20,000/Lee Ilse(010-9998-7207)
10	19:00 2013 Busan Music Concours Awards & The Winner Concert Medium Theater Free/Busan MBC Business Team(760-1126)	24	10:30 The Children's Concert of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Medium Theater 2,000/B,M,T,C(607-3111~3) 15:30
12	19:30 Creative Musical 'Together Dad' Medium Theater Invitation/Hong Seonju(759-7112, 010-4784-7721) 16:00 Saturday Regular Stage Small Theatre Free(On a first come first serve basis)/B,C,C(607-6056)	25	10:30 The Children's Concert of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Medium Theater 2,000/B,M,T,C(607-3111~3) 13:00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Dancing Classrooms Conference' Small Theater Free/B,M,D,C(607-3131~2)
		8/1	11:00 The Special Concert of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2014 WellBeing Concert 3-Cosifan Tutte' Medium Theater 10,000/B,P,C(607-311~3)

8월 테마여행 신청

테마여행지 추천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 (대연동)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예의 초대) 담당자 앞
608-811



1. 이번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3.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11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2014월빙콘서트
시에 만나요!

하이라이트
Opera III
코지 판 투테
COSÌ FAN TUTTE

2014.8.1금 오전 11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PROGRAM

모차르트·코지 판 투테



지휘·해설 이동신



연출 유철우



피오르딜리지 김현애



도라벨라 신민원



콜리엘모 박상진



페란도 김기태



돈 알폰소 양재원



테스피나 김혜영

공동주최 부산광역시 부산일보사

협찬 부산교통공사

문의 607-3111~3 (부산시향), 607-3100 (홍보마케팅부)

입장권 균일 10,000원 (정기회원 30% 할인)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BS 부산은행 전지점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G. Bizet

카르멘 국립오페라단초청

지휘 | 이병욱
연출 | 폴 에밀 푸호니
재연출 | 손영주
무대·의상 | 루이 데지헤
조명 | 파트릭 메우스
분장 | 구유진
합창지휘 | 영진섭

출연
카르멘 | 백재은
돈 호세 | 정의근
미카엘라 | 이세진
에스카미요 | 제상철
프라스키타 | 김민지
메르세데스 | 신민정
모랄레스 | 김지단
단카이로 | 민경환

부산시립교향악단
의정부시립합창단
CBS소년소녀합창단
진아트컴퍼니

조기예매 **20%** 할인 (6월 23일~7월6일까지)

2014. 8.29 (금) ~ 30 (토)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금 19:30 / 토 15:00 문 의) 부산문화회관 공연과 607-6057

주 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산광역시 주 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국립오페라단 부산문화회관

후 원 복권위원회 입장권 R석 100,000원 S석 80,000원 A석 60,000원 B석 40,000원

티켓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http://culture.busan.go.kr> 인터파크 1544-1555 부산은행 전지점

"이 사업은 복권기금 문화나눔의 일환으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하여 전국의 문예회관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